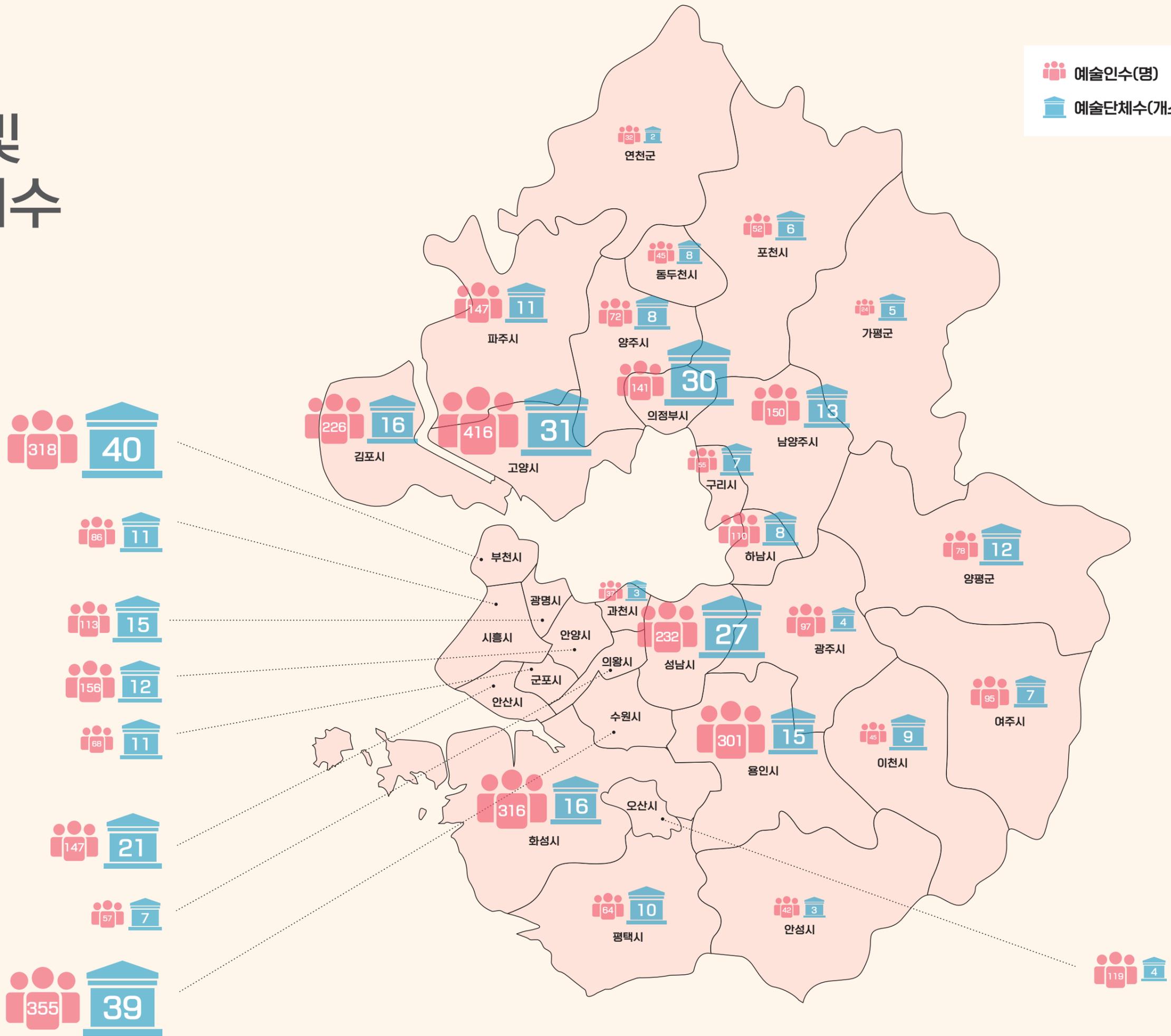


2021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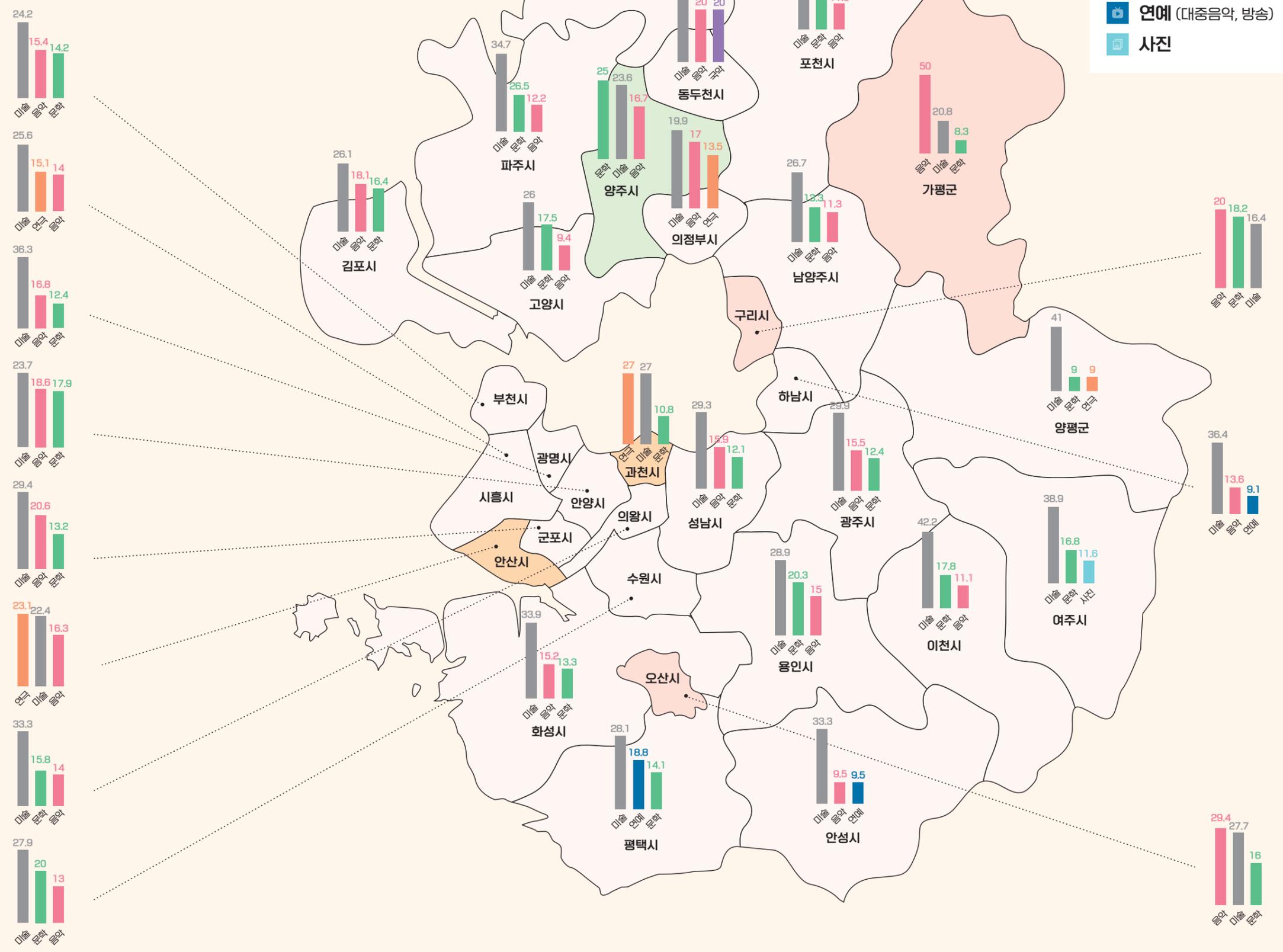
시군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수

 예술인수(명)
 예술단체수(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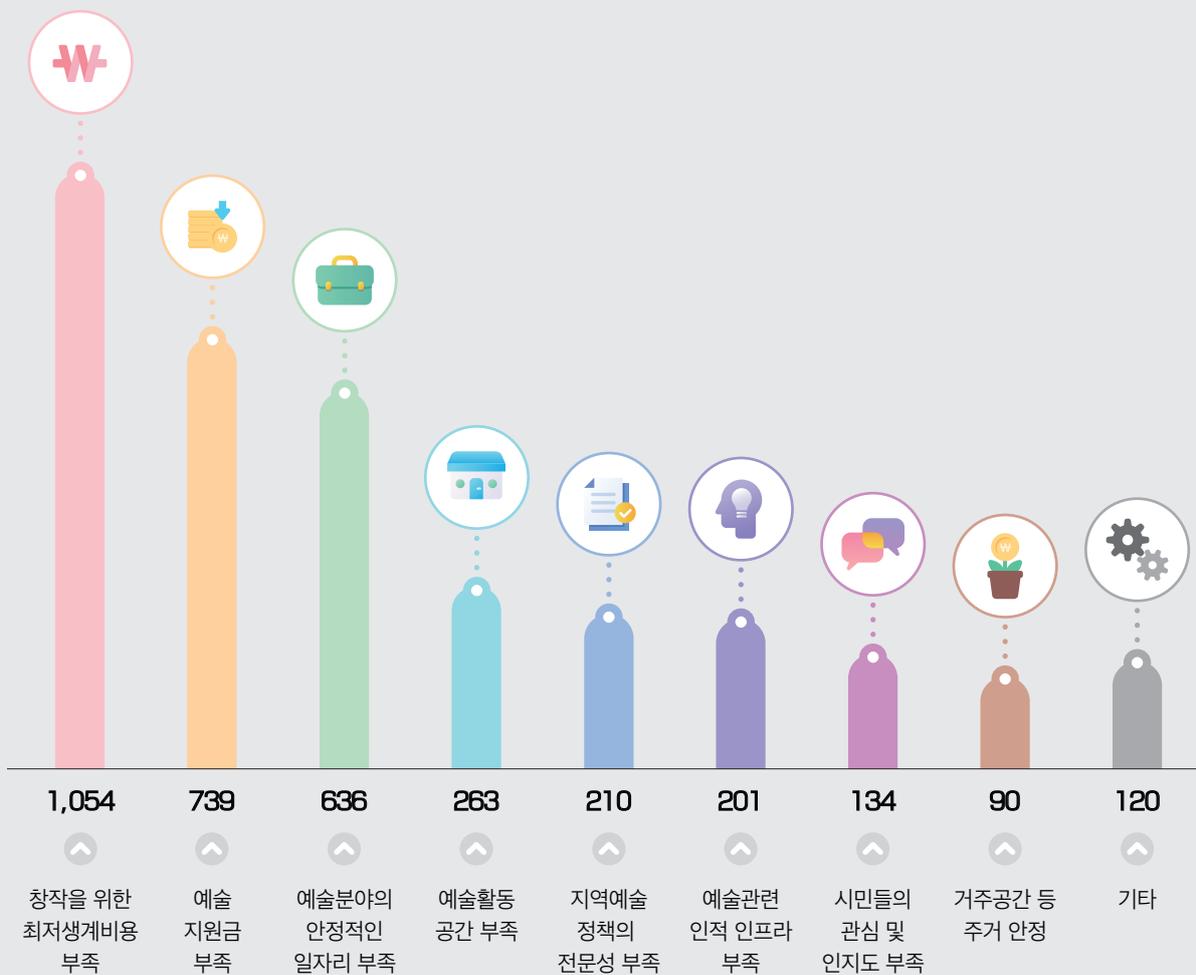
시군별 주요예술활동 분야

- 음악 (양악, 클래식)
- 미술 (디자인, 공예)
- 문학
- 연극
- 국악
- 연예 (대중음악, 방송)
- 사진



경기도 내 예술활동 시 어려움

총계 3,447명



제 출 문

(재)경기문화재단 귀중

본 보고서를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수 행 기 관 : (주)비온드리서치

과제 감독자 : 백 경 현 ((주)비온드리서치 대표이사)

과제 책임자 : 김 경 남 ((주)비온드리서치 부장)

[이용자 안내]

1. 통계표 및 도표내의 숫자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통계표 및 도표에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해당 숫자 없음 0 : 단위 미만
 3.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재)경기문화재단의 자료임을 밝혀야 합니다.
-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
1. 조사의 배경	1
1)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	1
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생계유지 어려움 가중	1
3)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대응	2
4)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의 필요성	3
2. 조사의 목적	3
2절 조사의 구성	4
1. 조사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4
2) 시간적 범위	4
3) 내용적 범위	4
2. 조사 구성	4
1) 사전 논의회의	4
2) 자문회의 운영	5
3)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	5
3. 조사 내용	7
1) 예술인 대상 조사 내용	7
2) 예술단체 대상 조사 내용	8
4. 자료검증 및 처리방법	9

제2장 사전 논의회의

1절 구성 및 진행	13
1. 개요	13
2. 세부 내용	14
1) 진행 방법	14
2) 사전 논의회의 참여자 선정 및 현황	14
3) 주요 논의 주제	15
2절 주요 결과	17
1. 종합의견 정리	17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17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참여자 보상 방안 등)	18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설계	19
4) 예술인 지원 정책 수요	19
3절 그룹별 세부 의견 정리	21
1. 경기도 기초문화재단 그룹 내용 요약	21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21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22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23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24
2. 경기문화원연합회 그룹 내용 요약	25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25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25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26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27

3. 경기민예총 그룹 내용 요약	28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28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29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29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30
4. 북부권역 예술인 그룹 내용 요약	31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31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32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32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33
5.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 내용 요약	34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34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35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36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37
6. 남부권역 예술인 그룹 내용 요약	38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38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40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41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41
7.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 내용 요약	42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42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43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44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45

제3장 경기도 예술인 분석결과

1절 일반현황	49
1. 인구통계 특성	49
1) 성별	49
2) 연령별	49
3) 거주지역별	50
2.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 실태분석	52
1) 장애인 등록증 보유 현황	52
2)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 연평균 가구 수입 및 개인 총 수입	53
3)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현 예술활동 유형	54
4)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개인 지출 현황 및 현 수입 수준	55
5)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예술활동 시 어려움	56
6)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수혜 여부	56
7)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57
3. 예술작품 발표 및 수상실적	58
4. 예술인 소득 현황	59
2절 예술활동 현황	61
1. 주 활동지역	61
2. 타 지역 예술활동 이유	63
3. 현 예술활동 유형	64
1) 예술활동 유형	64
2) 예술활동 이외 다른 경제활동 유형	65
3) 예술활동 유형별 개인 수입현황	66
4. 예술분야 경력	67
5. 예술활동 경력 단절 현황	68
1) 예술활동 경력 단절경험 및 단절 기간	68
2) 예술활동 경력 단절 이유	69

6. 주요 예술활동 분야	70
7. 예술분야 활동 직업유형	72
8. 소속 예술인 협회 및 단체 현황	73
9.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현황	74
1) 발급여부	74
2) 예술인 활동증명 미발급 이유	75
10. 예술분야 관련 교육 및 강의진행 여부	77

3절 예술활동 공간 현황 78

1.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현황	78
1) 창작공간 보유여부	78
2) 창작공간 소유형태	79
3) 공동활동 공간 유형	80
2. 현 예술활동 공간의 문제점	81
3. 주 창작활동 장소	82

4절 생활 및 근로복지 83

1. 개인 지출항목 비율	83
2. 필요금액 대비 개인 수입수준	84
3. 4대 보험 가입현황	85
4. 예술활동 고용형태	87
5.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자격증 보유현황	88
6. 예술창작활동 및 예술관련활동 투입일수	89
7.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91
8.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현황	93
1) 불공정 거래 및 계약피해 경험 및 횟수	93
2) 불공정 거래 및 계약피해 유형	94

5절 경기도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95

1. 경기도 예술활동 시 어려움 95

2. 경기도 예술활동 공간 수준 96

 1) 예술 창작공간 보유 수준 96

 2) 예술 발표공간 보유 수준 96

3. 경기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 시 고려사항 97

4.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지원수혜 현황 98

 1) 예술활동 지원수혜 경험 98

 2) 예술활동 지원수혜 횟수 및 지원금 수준 98

 3) 예술활동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100

5. 경기도 추진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101

6절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변화 103

1. 코로나19의 예술활동 영향도 103

 1) 예술활동 유형별 영향수준 103

 2) 예술창작활동 축소 및 증가 이유 104

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환경 변화 106

7절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및 정책 107

1.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현황 107

 1)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107

 2) 공모지원사업 신청횟수 및 선정횟수 108

2.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109

3. 경기문화재단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10

제4장 경기도 예술단체 분석결과

1절 일반현황 113

1. 기초 현황	113
1) 설립년도	113
2) 소재지	113
3) 단체유형	114
4)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보유 여부	114
2. 예술활동 실적 및 수상내역	115
1) 예술활동 횟수	115
2) 예술활동 기간	115
3) 수상경험	116
3. 주요 예술활동 분야	117
4. 주 활동지역	118

2절 예술단체 운영현황 120

1. 예술단체 인력현황	120
1) 인원현황	120
2) 회원현황	121
2. 보유 공간 현황	122
3. 운영예산 조달방법	123
4. 항목별 지출예산 비율	124

3절 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 현황 125

1. 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	125
2. 자금지원 수혜현황	128
1) 지원수혜 경험	128
2) 지원횟수, 지원금 규모	129

4절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거래 경험 130

- 1.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130
- 2.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현황 131
 - 1) 불공정 거래 및 계약피해 경험 및 횟수 131
 - 2) 불공정 거래 및 계약피해 유형 132

5절 경기도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133

- 1. 경기도 예술활동 시 어려움 133
- 2. 경기도 예술활동 공간 수준 134
 - 1) 예술 창작공간 보유 수준 134
 - 2) 예술 발표공간 보유 수준 134
- 3. 경기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 시 고려사항 135
- 4. 경기도 추진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136

6절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변화 139

- 1. 코로나19의 예술활동 영향도 139
 - 1) 예술활동 유형별 영향수준 139
 - 2) 예술창작활동 축소 및 증가 이유 141
- 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환경 변화 143

7절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및 정책 144

- 1.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현황 144
 - 1)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144
 - 2) 공모지원사업 신청횟수 및 선정횟수 145
- 2.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146
- 3. 경기문화재단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147

제5장 예술인 지원정책 제언

(제언1) 예술인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복지 지원 정책마련 시급	151
(제언2) 예술인 대상 다양한 지원 사업 방안 마련 필요	151
(제언3) 소통과 상생이 가능한 예술인 공동체 육성 지원	152

제6장 부록

1. 예술인 대상 설문지	155
2. 예술단체 대상 설문지	164

| 2 0 2 1 년 경 기 도 예 술 인 전 수 조 사 |

제1장 조사개요

01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의 배경

1)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

-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제정되어 시행됨
 - 2011년 11월 17일 제정, 2012년 11월 18일 시행
- 예술인 복지법은 수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당면함에 따라 예술활동 자체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간의 예술인의 노력과 희생하에 탄생된 법이라 할 수 있음
- 관련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와 직업안정, 고용창출 지원, 예술인 복지 금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생계유지 어려움 가중

- 2020년 1월 국내 첫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팬데믹을 몰고 왔으며, 이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연, 전시 등 현장성에 기반한 문화예술분야에 직격탄을 주었고, 급격하게 얼어붙은 사회활동과 소비활동은 예술기획 및 예술관련 활동의 취소와 연기로 이어져 예술인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음

[표 1]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분야 피해 양상 및 현장 대응 노력

분야	피해 양상 및 현장의 대응
공연예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잠정 폐쇄 조치, 공연 취소 및 연기로 관람객 수 감소, 매출액 감소, 경영상 어려움 직면, 공연예술단체·사업체의 휴업 및 폐업, 공연장 내 거리두기 실시로 손실 확대 • 고용피해로 인건비 감소, 권고사직 등 해고 및 감원, 무급휴직 발생, 공연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 축소 • 관행화된 불공정 관행의 문제 대두 : 공연 취소 시 공연장 대관료 및 준비 비용에 대한 보상의 문제 •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공연 추진, 야외 돔 텐트, 거리두기 펜스, 에어 샤워 게이트 설치 등을 통한 축제 추진,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

[표 1]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분야 피해 양상 및 현장 대응 노력

분야	피해 양상 및 현장의 대응
시각예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미술관의 휴관 및 폐관 조치로 전시 취소 또는 연기, 창작자들의 활동 기회 축소 • 경매시장 매출 및 낙찰률 감소 • 기업 후원 등 메세나 위축, 심리적 박탈감 • 대형 아트페어의 취소 및 변경, 아트 에이전시의 국제적 교류활동 위축 • 박물관, 미술관 사전예약제 등 활용한 제한적 이용 • 온라인 뷰잉룸 등 온라인 전시, 온·오프라인의 동시적 활용을 통한 아트페어, 전시회 운영
문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콘서트 등 각종 문학행사 및 강의 취소로 독자와의 교류 창구 차단, 문인들의 활동 위축 및 생계 위협 • 동네서점 매출 감소로 경영악화, 폐점, 지역문화거점 활동 타격 • 도서관 및 서점 휴관으로 문학 향유 기회 감소, 문학적 경험의 단절 • 공교육과 연계된 문학작품의 온라인 저작권 문제 확산 •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문학행사의 대체 • 오디오북, 전자책, 웹소설 분야의 약진
문화예술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문화예술교육의 중단과 온라인 전환 • 예술강사들의 활동 위축 및 고용 불안족 심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긴급구제책 실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생활문화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 휴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취소, 이용자 감소, 수입 감소 등 • 생활문화사업 취소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및 주민공동체 모임 등 위축 • 문화기반시설/생활문화시설의 철저한 방역 • 집에서 즐기는 생활문화활동과 온라인 모임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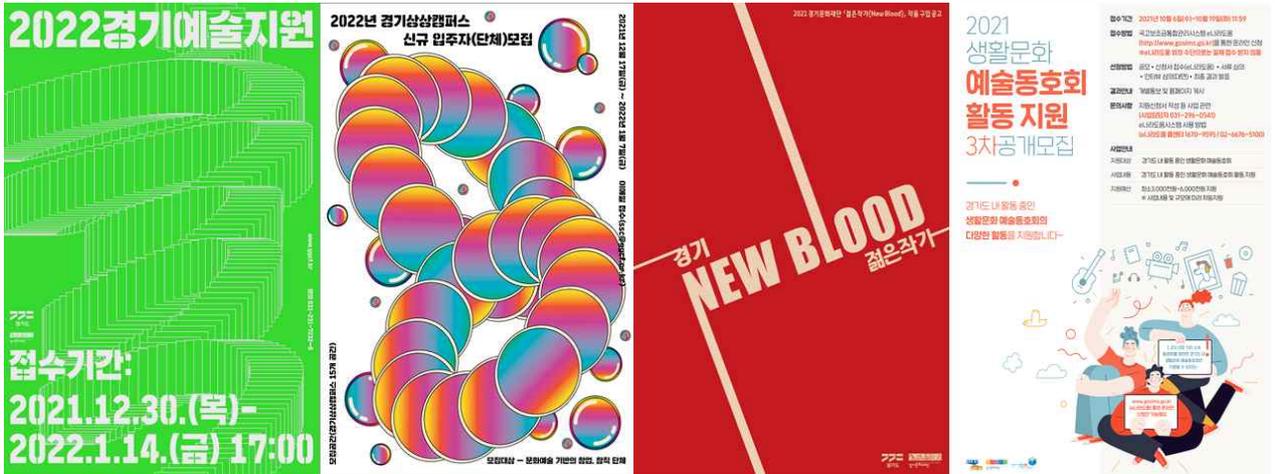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대응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주로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피해조사, 긴급재난지원, 인건비 지원, 창작 지원 등이 추진되었으나, 문화예술계의 재난 대응 매뉴얼 부재와 정보 공유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었음

3)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대응

- 코로나19 예술인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진행하였고, 경기도 맞춤형 긴급지원 사업과 예술인 복지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지난 2021년 7월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 내 예술인에게 2022년부터 창작활동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 조례주요내용 :
 - 1)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대상 규정 (제5조)
 - 2)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과 절차 등을 규정 (제6조 및 제7조)
 - 3)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제8조)
 - 4)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하려는 시,군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 5) 만족도 평가 및 정책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그림 1] 2021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공모 내용 중 일부



출처 : 경기문화재단

4)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환경의 변화와 예술인 복지법,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 예술인의 생활실태 및 창작여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복지증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현황 파악과 기초자료 구축이 요구됨
- 나아가 세부지역별·장르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하여 지역과 장르특성을 감안한 지원방안 및 장기적 정책 수립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2.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기도 예술인의 활동여건과 활동실태, 복지수요 등을 파악하여 경기도 예술복지 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 또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경기도형 문화예술복지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발전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함
-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각 시/군별 특성,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사용될 예술인 현황자료 DB구축의 출발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02 조사의 구성

1. 조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거주지 관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

2) 시간적 범위

- 기본적으로 최근 3년(2019년~2021년)을 기준으로 하여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고, 일부의 경우 장르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최근 5년 이내 예술활동 현황까지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음

3) 내용적 범위

-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경기도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범위
 - 둘째, 경기도 예술인들의 현황과 예술활동
 - 셋째, 경기도 예술인들의 생활 및 근로환경
 - 넷째,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 및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

2. 조사 구성

1) 사전 논의회의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의 방향 정립과 조사범위 및 설계를 위해 예술인 관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대규모 사전 논의 과정을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함
- 사전 논의회의에서는 경기도 내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지원 측면에서의 경기도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논의하고,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진행을 위한 홍보 방법과 모집단 구축 방안, 전수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경기도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하였음

2) 자문회의 운영

- 사전 논의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조사 전 최종 설문 확정 및 조사 진행에 필요한 유의점 등 조사수행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음
- 자문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은 경기도 예술단체와 각 권역별 예술인을 대표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함
- 전수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검토를 위한 2차 자문회의도 실시함

[표 2]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자문위원 구성

소속	기관/분야	자문위원명
경기민예총 회장	예술단체	이00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예술단체	최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	유관기관	김00
경기 북부권역 예술인	무용	우00
경기 서부권역 예술인	연극	최00
경기 남부권역 예술인	사진	이00
경기 동부권역 예술인	미술	복00

3)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

-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모집단 구축 후 실제 본조사를 실시함
- 1차적인 응답자 확보를 위해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참여자와 기존 예술인 실태조사 참석자에게 문자와 메일발송으로 조사참여를 독려함
- 그 외 추가적인 조사모집단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형태의 다양한 조사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율을 높임

[표 3] 전수조사 설계 요약

구분	내용
목표모집단	경기도 거주 예술인
조사모집단	2019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참여자 명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참여자 명부 그 외 추가 모집단 확보방안을 통해 수집된 예술인 명부
조사방법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전화조사, 현장조사 병행
조사기간	2021년 8월 31일 ~ 12월 12일

- 이번 전수조사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조사로 진행되었으나, 경기도 내 31개 시, 군별 현장방문 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진행함
- 각 시, 군별 현장방문 조사는 지역별 예술단체를 사전 접촉하여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기초문화재단의 협조로 지역 내 공연 및 행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별도 메일발송을 통해 참여홍보와 안내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많은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짐

- 단, 현장방문 시 조사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당국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음

[표 4] 경기도 31개 시, 군별 전수조사 협조내용

시군명	협조내용
가평군	예술단체 접촉 후 현장조사진행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협조로 예술단체 접촉
과천시	과천문화재단 협조로 예술인 메일링 진행
광명시	대면협조 진행 (11/2 경기문화재단 방문)
광주시	대면협조 진행 (11/18 광주시문화재단 방문)
구리시	구리문화재단 협조로 예술인 메일링 진행
군포시	군포문화재단 협조로 군포문화살롱 3차 간담회 방문 (11/11)
김포시	김포문화재단 협조로 김포아트홀 방문조사 실시 (11/15~11/17)
남양주시	예술단체 접촉 후 현장조사진행
동두천시	예술단체 접촉 및 동두천 시민회관 행사 방문조사 실시
부천시	예술단체 접촉 후 현장조사진행
성남시	대면협조 진행 (12/1 성남문화재단 방문)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협조로 경기아트센터 방문조사(11/4) 및 수원SK아트리움 방문조사(12/4) 실시
시흥시	예술단체 접촉 후 현장조사진행
안산시	대면협조 진행 (11/9 안산문화재단 방문)
안성시	예술단체 접촉 후 현장조사진행
안양시	안양문화재단 협조로 예술인 메일링 진행
양주시	예술단체 접촉 후 현장조사진행
양평군	양평예술인전수조사 결과 공유 예정 (예술인 202명, 예술단체 40개)
여주시	대면협조 진행 (11/18 여주세종문화재단 방문)
연천군	연천미술협회 정기전 @DMZ피스브릭하우스 방문조사 실시 (11/25)
오산시	오산문화재단 협조로 오산무용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대상 방문조사 실시(11/5, 11/16, 11/30)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협조로 포은아트홀 방문조사 실시 (11/27)
의왕시	예술단체 접촉 후 현장조사진행
의정부시	대면협조 진행 (9/17 의정부문화재단 방문)
이천시	대면협조 진행 (12/01 이천문화재단 방문)
파주시	예술단체 접촉 후 현장조사진행
평택시	평택문화재단 협조로 예술인 메일링 진행
포천시	포천문화재단 협조로 예술단체 접촉 후 조사진행
하남시	하남문화재단 협조로 방문조사 실시 (11/12)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협조로 아티스트 소셜 간담회 방문 (11/26), 경기문화재단 드라이빙씨어터 행사 방문조사(11/20)

3. 조사 내용

1) 예술인 대상 조사 내용

○ 경기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7개 영역의 46개 항목으로 구성됨

[표 5] 예술인 대상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Part A.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횟수 / 수상경험 • 현 거주 지역 • 성별 / 출생년도 / 장애인 등록증 보유여부 • 최근 3년간 가구 전체 연수입, 개인 연수입 / 예술활동 수입 비율
Part B. 예술활동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활동 지역 • 예술활동 유형 / 타 경제활동 유형 • 예술분야 입문(데뷔) 시기 • 예술분야 입문 후 예술활동 경력 단절 경험 / 단절 기간 / 단절 이유 • 주 예술활동 분야 • 활동중인 예술분야 직업 유형 • 소속 예술인 협회 및 단체 유무 •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 여부 / 발급연도 / 미발급 이유 • 예술분야 관련 교육 및 강의진행 가능여부
Part C. 예술활동 공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여부 • 창작공간 소유형태 / 임대 사용 시 공간 크기 및 임대료 수준 • 공동활동 공간 사용 시 공간 유형 • 예술활동 공간 이용의 문제점 • 창작공간이 없는 경우 주 창작활동 장소
Part D. 생활 및 근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지출 항목별 비율 • 항목별 필요금액 대비 개인 수입 수준 • 4대 보험 가입 여부 / 예술인 고용형태 •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자격증 보유 여부 • 예술창작활동 및 예술관련활동 주당 투입일수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여부 / 피해 횟수 / 피해 유형
Part E. 경기도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예술활동 시 어려움 • 경기도 내 창작공간 및 발표공간 보유 수준 • 경기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 시 우선 고려사항 • 타 지역 예술활동 이유 •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 경험 / 지원횟수 및 총 지원금 / 미지원 이유 • 경기도 추진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Part F.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영향 수준 • 예술창작활동 축소 이유 / 증가 이유 •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예술창작 환경
Part G.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 신청 횟수 / 선정 횟수 •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 경기문화재단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 기타 건의사항

2) 예술단체 대상 조사 내용

○ 경기도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7개 영역의 32개 항목으로 구성됨

[표 6] 예술단체 대상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Part A.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실적 및 수상내역 • 단체명 / 설립년도 / 대표자 성명 / 대표전화번호 • 단체 소재지 • 단체 유형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여부 • 주요 예술활동 분야 / 주 활동 지역
Part B. 예술단체 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인력 현황 (인원현황 / 회원현황) • 단체 보유 공간 현황 (사무실, 연습실, 무대장치 보관실, 공연장, 강당, 회의실, 다목적실) • 2020년 기준 운영예산 조달방법별 비율 • 2020년 기준 단체 지출예산 항목별 비율
Part C. 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기준 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 2020년 기준 금전적 지원 수혜 여부 / 지원유형 / 지원횟수 / 총 지원금
Part D.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거래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예술인들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 경험 •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횟수 / 피해 유형
Part E. 경기도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단체로서 경기도 내 예술활동 시 어려움 • 경기도 내 창작공간 및 발표공간 확보 수준 • 경기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시 필요사항 • 경기도 추진 예술정책 및 예술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Part F.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영향 수준 • 예술창작활동 축소 이유 / 증가 이유 •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예술창작 환경
Part G.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 사업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 신청 횟수 / 선정 횟수 •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 경기문화재단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 기타 건의사항

4. 자료검증 및 처리방법

- 조사 방법별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응답의 오류를 제거함으로써 정확한 응답 자료를 확보함
 - 각 조사 방법별로 조사원 및 담당 연구원으로 이루어진 단계별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무응답, 논리 오류, 잘못된 데이터 입력 등의 오류를 제거
 - 조사 시작과 동시에 검증 절차를 가동하여, 필요할 경우 응답자에게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 웹 설문을 활용한 조사는 조사 시작 전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여 웹 설문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도록 사전 검증을 진행함
- 검증이 완료된 설문은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에디팅(Editing) 과정을 거치며, 주관식 응답은 그 내용을 유형화하고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데이터 정리
- 이 후 최종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에 사용함

[표 7] 자료처리 프로세스

1. Editing	2. Punching/Coding	3. Data Cleaning	4. Data Processing	5. Stat Table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	설문 자료 입력 및 주관식 내용의 부호화	입력자료의 논리적 오류검색	데이터 분석 명령어 작업	문항별 통계 교차표 작성 (기초분석)

| 2 0 2 1 년 경 기 도 예 술 인 전 수 조 사 |

제2장 사전 논의회의

01 구성 및 진행

1. 개요

- 사전 논의회의는 이 후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의 방향 정립과 조사범위 설계를 위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은 총 4가지 범주로 구성됨
 - 첫째,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 둘째, 예술인 전수조사를 위한 명부확보 방안
 - 셋째,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 넷째,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토의
- 참여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함
- 사전 논의회의의 세부 구성은 예술단체 3그룹과 권역별 예술인 4그룹으로 구성함

[표 8] 사전 논의회의의 세부 그룹구성 및 참여자 범위

세부 그룹구성	참여자 범위
경기도 기초문화재단	22개 재단 담당자 1인
경기문화원연합회	사무국 및 각 지방문화원별 각 1인
경기민예총	14개 지부 및 5개 분과별 각 1인
북부권역 예술인	성, 연령, 장르를 고려하여 20명 선정
서부권역 예술인	성, 연령, 장르를 고려하여 20명 선정
남부권역 예술인	성, 연령, 장르를 고려하여 20명 선정
동부권역 예술인	성, 연령, 장르를 고려하여 20명 선정

- 단, 예술인의 권역별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음
 - (북부권역)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구리, 포천, 남양주, 가평
 - (서부권역) 김포, 부천, 안산, 광명, 군포, 시흥, 안양, 과천, 의왕
 - (남부권역) 수원, 화성, 평택, 안성, 오산, 용인
 - (동부권역) 성남, 이천, 하남, 양평, 광주, 여주

2. 세부 내용

1) 진행 방법

- 사전 논의회의는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원활한 논의를 위해 소규모 분과 회의 운영 방식으로 진행함
 - 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회의 형태로 진행하였음
- 진행자는 전체 사전 논의회의를 총괄하는 총괄 진행자 1명과 각 소규모 분과 회의를 진행하는 테이블 모더레이터 4명으로 구성됨
- 사전 논의회의의 진행시간은 약 140여분(2시간 20분) 정도이며, 소회의실별 주요 의견논의는 90분간 진행됨

[표 9] 사전 논의회의의 진행시간 및 순서

진행 내용	진행자	시간
사전 논의회의의 개회 안내 및 참석자 인사	총괄진행자	5분
사전 논의회의의 진행 방식 및 내용 설명	총괄진행자	10분
참석자 소회의실 입장 및 시스템 점검	총괄진행자 / 모더레이터	5분
진행 아젠다에 따른 소회의실별 논의	모더레이터	90분
그룹별 진행내용 공유 (디브리핑)	총괄진행자 / 모더레이터	25분
회의 종료	총괄진행자	5분
총 진행시간		140분

2) 사전 논의회의의 참여자 선정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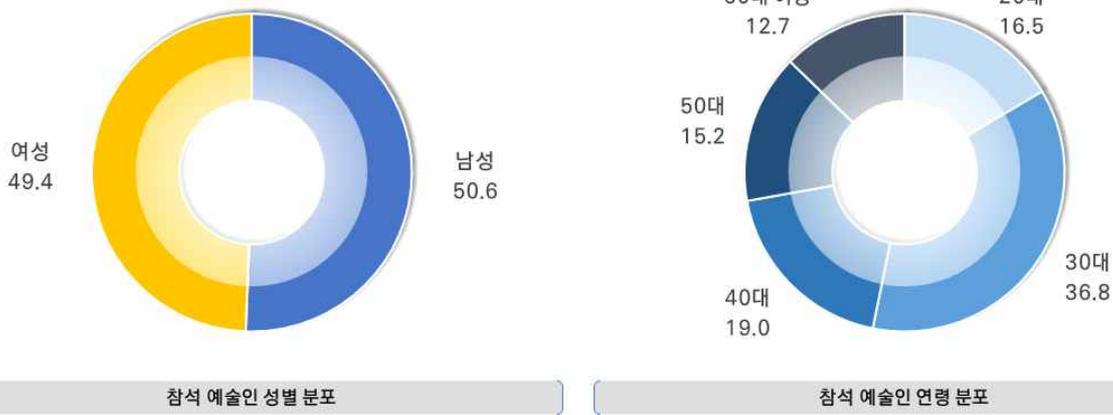
- 사전 논의회의의 참석자 선정을 위해 별도 온라인 신청 URL을 구축하였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각 기초문화재단과 경기도청 등에 게시하였음
- 예술단체 3그룹의 경우 참석 신청 단체는 모두 선정하였으며, 예술인의 경우 권역별 성, 연령, 장르를 고려하여 인원 할당 후 신청순으로 섭외하였음
- 그 결과, 이번 사전 논의회의에 예술단체와 권역별 예술인은 총 131명이 참석하였음

[표 10] 사전 논의회의의 참석자 현황

회의날짜	세부 그룹	참석자 수
2021. 7. 20.	경기도 기초문화재단	18명
2021. 7. 22.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1명
2021. 7. 27.	경기 민예총	13명
2021. 7. 28.	북부권역 예술인	20명
2021. 7. 30.	서부권역 예술인	20명
2021. 8. 3.	남부권역 예술인	19명
2021. 8. 4.	동부권역 예술인	20명
전체 참석자 수		131명

- 사전 논의회의에 참석한 예술인(79명)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하면, 성별로는 남성이 50.6%, 여성이 49.4%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6.8%로 가장 많고, 40대가 19.0%, 20대가 16.5%, 50대가 15.2%, 60대 이상이 12.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사전 논의회의 참석 예술인 성, 연령 분포 (단위 : %)



- 참여 예술인 분야는 미술, 음악, 연극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인 경력은 최소 3년부터 최대 45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 경력은 15.8년인 것으로 분석됨

[표 11] 사전 논의회의 참석 예술인 활동 분야

예술활동 분야	빈도(명)	비율(%)	예술활동 분야	빈도(명)	비율(%)
미술	19	24.1	무용	5	6.3
음악	18	22.8	영화	5	6.3
연극	12	15.2	연예	3	3.8
국악	9	11.4	사진	2	2.5
문학	6	7.6	합계	79	100

3) 주요 논의 주제

- 소그룹별 진행되는 논의 주제는 크게 5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12] 사전 논의회의 주요 논의 주제

구분	조사내용
1)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	① 거주 관점 / 전업 및 겸업 등 업의 관점에서 보는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② 예술활동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예술지원 분야(기획, 홍보, 마케팅 등) 종사자의 예술인 범위 포함여부 ③ 경기문화재단의 복지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예술인 범위 ④ 예술인활동증명을 하지 않은 제도권 밖 예술인의 유형과 지원을 위한 방안
2) 예술인 명부 확보에 필요한 개인정보 문제 해결 방안	① 예술단체 및 재단이 보유한 예술인 명부를 타 기관 등 제 3자 제공을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제공받은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의견

[표 12] 사전 논의회의 주요 논의 주제

구분	조사내용
3) 예술인 명부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①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야별 경기도 예술인들의 접점 포인트 (온/오프라인) - 예술인 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접근 방안 -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의 효율성, 효과성 - 예술단체 및 문화재단의 보유 예술인 명부 활용의 장애요인 ② 예술단체 /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단체 및 문화재단의 보유 예술인 명부 활용의 장애요인 - 보유 예술인 명부 활용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 재단 등에 요구되는 사항)
4)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① 예술인 전수조사 기초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의 주요 내용과 범위 ② 현 예술인들에게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아이템 ③ 경기도 예술인 DB 구축 시 필요한 예술인 정보 유형
5)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발굴	① 예술인 지원에 대한 개념적 의미 파악 (인지된 정의, 최초 상기 키워드 등) ② 공공분야의 예술인 지원의 범위 (방식, 단계, 지원수준 등) ③ 실현가능한 예술인 지원형태에 대한 의견

02 주요 결과

1. 종합의견 정리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 사전 논의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기준으로 이번 전수조사를 위한 ‘경기도 예술인’의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함
 - 경기도 예술인은 1.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2. 직접 창작결과물을 생산하는, 3. 전문예술인 으로 정의함

[표 13]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종합 의견 정리

주요내용

- 거주적/활동적 관점의 경기도 예술인의 범위
 - 복지 지원을 위한 ‘경기도예술인’의 조사는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우세
 - 단, 장기적으로는 전업 > 겸업 > 생활 예술인으로서의 단계적 지원 확대도 검토필요
 - 추가적으로 경기도 비거주 예술인에 대해서, 경기도 내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경기도 예술인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소수의견 존재
-
- 전업/겸업 및 전문/생활 예술인의 구분
 - 전업과 겸업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현재는 생활을 위해 겸업을 하는 상황이므로 구분이 무의미함
 - 생활예술인의 경우 예술인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있으나,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는 전문예술인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우세
-
- 문화예술활동 ‘지원’ 분야 종사자의 구분
 - 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협업을 통한 예술활동에 모두 관여한 경우(특히, 기획자), 즉, 직접적으로 ‘창작결과물’을 생산한 경우만 예술인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인식 우세
 - 단, 그 외 행정적인 지원(마케팅, 홍보 등)이나 창작활동 및 예술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에 미포함
-
-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정착화 되고 있음을 확인, 국가적 차원에서 ‘예술인’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 우세
-
- 제도권 밖의 예술인들은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제도권 내 유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참여자 보상 방안 등)

- 예술인들이 전수조사 시행 사실을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참여 링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 등의 운영을 통한 독려 진행 필요
- 경기도 내 문화시설 이용 및 창작공간 활용 관련 혜택 추가 제공 검토
-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참여 시 행정심의 서류 제출 간소화 편의 제공
- 온라인 DB 구축 시 예술인의 활동 이력 및 작품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포트폴리오 활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술인 커뮤니티 기능을 탑재하여 소통 플랫폼 제공

[표 14]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에 대한 종합 의견 정리

주요내용

- 수집 방법 및 참여 독려 방안
 - 경기문화재단 및 기초문화재단에서 보유한 지원사업 신청자 DB를 기반으로 함
 - 예총, 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 단체와 기관 협조를 통한 URL 발송으로 명부 수집
 - 소개를 통한 명부 확장의 효율성 확인(소개자 별도 인센티브 포함필요)
 - 이슈화를 위한 이벤트 운영(SNS 태그 이벤트 등)
- 전수조사 참여 예술인 대상 혜택 마련
 - ‘경기도 예술인의 날’을 지정하여(월1회 등) 경기도 내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에 무료 입장 등의 혜택 제공
 - 전수조사 참여자 대상 창작공간, 공연·전시공간 등의 시설 이용료, 대관료, 임차료 감면 혜택 제공 (유관기관 협조 필요)
 - 재단 공모사업 지원 시 전수조사 참여예술인 대상 행정심의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편의 제공
- 예술인 DB 구축 및 활용 방안
 -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결합하여, 예술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성, 연령, 경력, 유형, 분야, SNS 계정, 작품 및 공연 사진, 연락처, 이력사항, 경력사항, 행사·강의 가능 여부 등을 탑재하되, 외부 공개 정보는 예술인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 (연락처, 나이 등 민감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직접 설정)
 - 예술인이 스스로 본인의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설계
 - 예술인들이 DB 페이지 자체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작품, 경력 등)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현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설계

- 전체적인 문항 수를 줄이고, 필수 응답/선택 응답 항목을 구분하여 응답자의 피로도 고려가 필요함
- 장애보유 여부, 소득 관련 문항 등 다소 민감한 정보를 조사할 경우 정보의 활용 방안을 명시하여 질문의 의도를 설명해주어야 함

[표 15]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에 대한 종합 의견 정리

주요내용

- 설문안 구성 방향
 - 피로도 감소를 위한 **문항 수 축소** 및 **필수/선택적 응답 항목 구분**
(정서 및 스트레스, 건강수준 등에 대한 문항 삭제)
 - 문항별 **질문 의도 및 활용 용도에 대한 설명** 포함
 - 용어 및 단어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 등의 설명 필요
- 심리적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은 **응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 장애보유 여부, 무직 경험
 - 4대 보험, 실업급여, 실직경험 등에 대한 내용
 - 소득증명, 수입 및 지출 관련 항목(금액 범위를 선택하는 방식 등 고려)
- 문항 추가 제안
 - 공모지원 사업의 만족도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 변화
 - 입문 및 데뷔경로
 - 현 지원사업 수혜 여부
 - 보조금사업 관련 기간 및 횟수

4) 예술인 지원 정책 수요

- 창작·생활·네트워킹·거점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 (예술가 쌀롱, 예술가 라운지 등)
- 예술지원에 대한 다양성 확대 (사회적 이슈, 아이디어, 작은 규모, 다양한 창작시도 등)
- 작품의 보관 및 장비의 대여 등을 위한 공간(공유자원 순환센터)에 대한 수요 존재
- 행정 간소화 (지원사업 서류 간소화 등)
- 작품 배급 및 판로 개척 → 민간과 콜라보, 마켓 활성화
-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생계지원(예술인 기본소득 등)
- 예술가의 연령대별 지원 방안 마련 수요 →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실시
- 자녀돌봄,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생활 지원 수요 →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역할 확대

- 재단-예술인 간, 예술인-예술인 간 소통 창구 마련 수요 → 주기적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으로 예술인과의 직접적·지속적 소통 실시
- 예술인 주도형 의사결정 기구 필요성 제안 → ‘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재단-예술인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표 16] 경기도 예술인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종합 의견 정리

주요내용

- 창작 지원 관련 의견
 - 창작공간에 대한 수요 높음
 - 창작지원금과 창작공간 지원이 결합된 지원사업 제안
 - 주거·생활공간(레지던시,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한 수요 높음
 - 예술가 마을 구축 사업 제안
 -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장비를 기부·대여·보관할 수 있는 시설(공유자원 순환센터)등에 대한 수요
 - 작품 구입이 가능한 미술은행, 예술은행 운영 등의 역할 제안
 - 연초 집중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분포 필요
 - 연령별 지원 방안 마련
 - 교육지원에서 창작결과물 생산까지 창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장기적·포괄적 지원 사업 제안 (단타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지원에 대한 수요 존재)
- 환경 안정 지원 관련 의견
 - 수당 지급, 고용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 수입 보장에 대한 수요
 - 예술가 네트워킹 공간 지원에 대한 수요
 - 예술가 라운지, 예술가 살롱 등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지원
 - 지자체 지정 협약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자녀돌봄,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생활 지원
 - 공모지원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및 서류작업에 대한 교육 지원 수요 존재
 - 해외 교류 워크숍 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한 지원
-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속적 소통의 장 마련 필요 (온/오프라인)
 - 본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소통 및 네트워킹 창구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수
 - 예술인 주도형 의사결정 기구의 필요성 제안 의견 다수

03 그룹별 세부 의견 정리

- 그룹별 세부 의견 정리는 사전 논의회의에 참여한 총 7개 그룹의 세부 소회의실별로 각 주제에 따른 주요 의견을 정리한 내용임

1. 경기도 기초문화재단 그룹 내용 요약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표 17] 기초문화재단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안양, 광명 등은 거주 또는 활동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 있음 • 반면, 서울과 거리가 먼 경기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함도 있으므로 거주지와 활동이 모두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예술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음 • 전업 및 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활동 횟수나 활동량에 대한 측정이 필요. 이 경우 생활예술인의 비중이 더 많을 수 있음 • 예술지원파트 종사자들 중 공연기획자는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 지원을 담당하는 경우 기여비율을 파악할 필요 있음. (예, 40%, 60% 등) • 예술지원 대상자도 기존에 생각하는 예술인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예술인들의 연령, 실제 예술 경력 등에 따라서는 차별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성공한 예술인이나 오히려 예술활동이 매우 미미한 경우라도 모두 지원대상에 넣어야 함이 맞음 돈을 많이 벌거나 허들이 낮다고 해서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안됨. 모든 예술인은 포함되어야 함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및 활동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긴 하나, 결과적으로 복지지원측면에서는 거주지를 중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 •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경기도 내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스스로가 예술인이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맞음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활동에서 점차 복지지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 경우 전문예술인에게 우선 복지혜택을 주는 형태이나 향후 보다 포괄적이고 필요한 혜택들을 잘 선별하여 순차적 확대가 필요함 • 제도권 밖의 예술인은 활동증명을 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활동증명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노출을 극대화하여 제도권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표 17] 기초문화재단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의 범위에 대해 지역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 용인의 경우 이미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경우로 정의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으며, 하남지역은 비교적 넓은 의미로 거주와 활동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굳이 실제 거주가 아니더라도 사무실, 단체 등이 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임 가능하면 일반 생활예술인(동호회 활동 수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있음 예술지원 분야 종사자의 경우 기획자(기획, PD)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예술인에 포함되나 홍보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는 예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만 예술인으로 볼 수 있음 현재 예술인 지원자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벽차기 때문에 제도권 밖의 예술인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여력이 없을 수 있음. 오히려 이러한 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표 18] 기초문화재단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지자체별로 약 500~70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으나, 주된 채널은 지원사업 신청자 DB임. 해당 DB 수집 시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공유는 쉽지 않음 그러므로 향후 각 지자체별로 수집되는 예술인 DB에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형태로 진행함이 바람직함. 단, 제 3자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개별 지자체, 경기도, 중앙정부, 민간기업별 제공여부 등)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로 진행한 지원사업 참여 리스트가 가장 신뢰도가 높음 경기도 전체 명부라는 것이 이제 막 출범한 재단의 경우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오래된 재단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명부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음. 경기도 전체 명부에 대한 활용성에 의문이 있음 제3자 제공동의 등 개인정보법에 대한 법적인 측면, 그리고 단체에서 직접 수집된 정보의 공유 불가 등의 문제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DB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개별 지자체가 아닌 광역 단위에서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는 방향이 좋음 (DB의 통합운영 측면) 구축된 DB의 업데이트 문제는 가입된 예술인이 스스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 담당 기관에서는 시스템과 플랫폼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해당 DB에 대한 홍보기관 마련. 온라인 DB정보 업데이트 시 해당 예술인들에게 인센티브나 포괄적 지원금을 사용함으로써 활성화 가능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상호 목록을 공유하고자 하는 Needs는 많음 타 지역 홍보, 실태자료 및 분석자료 검토 시 필요한 사항을 기초와 광역단체가 합의하여 사용처 및 연장동의 등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같이 마련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음

[표 18] 기초문화재단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명부가 확보되어 있으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움 해당 명부 확보는 예총이나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협조를 받아 URL 발송 방식으로 확보함 (용인 지역 1,600여명) 그 외 공모전 응모나 기초재단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이었음 기초재단에서 활용했던 방식처럼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부 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URL 발송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외 눈덩이 표집이 좋은 방법일 수 있음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표 19] 기초문화재단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보유 관련 문항은 이견이 있었음. 응답자가 심리적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나, 한편으로 필요 하다고는 판단됨. 지원 시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확인은 하되 장애종류와 중증정도까지 파악이 되면 좋음 4대보험, 실업급여, 실직경험 등이 예술관련 경력단절로만 봐야하는지 조직에 대한 관점까지 봐야할지는 판단이 필요함. 실제 필요한 것은 예술인 측면에서의 실업이 더 유용하겠지만 국한될 필요는 없어 보임 예술정책 및 지원환경에서는 경기문화재단 공모만 나와있으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음 DB구축 항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 / 연령 / 경력 / 유형 / 분야 / 연락처(SNS를 통해) / 이력사항(SNS를 통해) / 경력사항 등이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못하면 텍스트화가 필요함 / 그 외 강의 가능 / 행사 가능 등 공개 가능한 연락처는 이슈가 있으므로 이메일 정도이면 좋을 것 같고, SNS를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내용이 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에만 비교적 치우쳐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예술 및 예술인들의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협회나 소속에 따라 트렌드가 다를 수 있음 표준계약 준수여부 필요 자신의 주요활동 지역을 선택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물어보고 싶은 문항이 나오는 방식 검토 필요한 교육지원 및 예술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 있음 DB구축 시 강의여부, 행사가능여부, 예술활동 홍보 노출은 좋으며, 작품이 비주얼 형태로 들어가면 효과가 높음 가능하다면, 예술인의 SNS계정을 Open API로 가져와서 미리보기 기능으로 업로드 해주는 방안도 좋음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는 본인이 개방범위를 설정하도록 선택하는 방식이 좋음

[표 19] 기초문화재단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 사업의 만족도 항목 필요 전업예술인의 고용형태에서 직위 포함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표 20] 기초문화재단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보조금 지원 같은 정책이 대부분인데,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도 있음 레지던스 등 예술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공연을 하는 공간 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에 대한 Needs도 있음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에 필요한 지원금 지원이 가장 중요함 코로나19로 인한 일반 생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단 특성에 맞는 창작활동 지원이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임 지원정책의 경우 경기문화재단과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리가 필요 (예, 같은 지원사업이나 이름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 등)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단체에서의 지원은 예술인의 활동, 실현가능한 것들을 위주로 하지만, 광역단체와 협업하여 예술인 생활에 대한 이슈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면, 1) 교육부터 창작까지 한 사이클을 구성한 통합 지원 2) 사업 기획 시 자녀돌봄,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지자체 지정협약단체와 제휴를 통한 지원 3) 해외 교류에 대한 워크숍 지원 등의 사업 기획 필요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예술인 지원은 보다 전문적인 기획과 컨설팅, 홍보 등이 필요함 비상업적 예술분야나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지원도 필요 기초문화재단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분배되어야 해서 지원대상을 줄이고 지원금을 높이고 싶어도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줘야하는 소액지원 밖에 안됨.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여 기초문화재단에 지원하는 형태의 규모가 큰 지원사업이 필요함 (지원규모의 양분화/차별화 필요 - 소액지원 vs 대규모 지원)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속 지원 필요 공간 지원 & 레지던스 시설 필요 기초문화재단과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으로 예술 활동 기반과 청사진을 마련해주면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 필요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공간제공 / 예술인과 수요자(민간기업)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등 지원규모도 기초문화재단과 차별화 필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예술인 선정하여 이미지 구축이나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문화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 등 고려

2. 경기문화원연합회 그룹 내용 요약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표 21] 경기문화원연합회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예 : 굿, 민요 등) 및 지역의 장인분들도 예술인 범주에 포함될 필요 있음 필요 시 문화원에서 생각하는 예술강사도 예술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이유는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임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은 경기도 내 거주와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게 맞음 단, 지원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업의 측면에서 전업 또는 겸업 예술인 위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 동아리 활동 등의 생활예술인 제외)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지역을 확장하여 인근 지역(서울 등)까지 보는 경우도 있음 전업과 겸업 모두 예술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복지 지원측면에서는 거주지역과 활동을 모두 해당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업 예술인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는 경기도에서 모든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 정의될 수 있음 공간적 관점에서는 거주지보다 활동영역(서울에 거주하여도 경기도에서 활동하면 경기도 예술인이라고 보는)이 더 적합함 지금은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예술인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예술지원분야에서는 전문 기획자는 예술인으로 봐야하나 단순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과는 구분하여야 함 복직적 측면에서 경기도 비거주 활동 예술인도 경기도 예술인으로 분류할 필요도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경기도 내 활동 이력 증명과 파악이 필요함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표 22] 경기문화원연합회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DB 수집의 항목은 다양하게 진행되면 좋고 향후 수집DB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나, 단 외부에 노출되는 만큼 본인 동의하에 공개 가능한 항목들을 설정할 필요있음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명부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예총 등과의 협조를 통해 유관 단체에 대한 명부 확보시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음. 단, 예총과 관련이 없는 단체는 행사마다 수소문해서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예총이나 분과별 담당자, 협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명부제공에 대한 설득을 통해 하나씩 확보하는 접근이 맞을 수 있음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DB 구축에서는 예술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업데이트 되는 방안이 필요 경기도지방문화원과 명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계획 검토 필요

[표 22] 경기문화원연합회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명부나 DB 구축 등은 취지는 좋으나 용어 등의 사용이 주의됨 (관리대상, 예술인 명단 등 - 블랙리스트 사건 연상) 예술가들이 항목별로 본인이 공개여부 체크하는 방식이 좋음 명부 구축의 주체가 중요. 예를 들어 문화원, 예총, 민예총이 협력해서 중립적으로 구축할 경우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가입협회나 소속이 없는 예술인의 경우 소식 전달을 위한 포털 형태의 서비스 제공 필요함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표 23] 경기문화원연합회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제시된 문항이 너무 많음. 예술인 특성 상 모두 응답하기 쉽지 않음 핵심적인 문항으로 예술인 현황과 필요한 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 (예 : 필요성이 낮은 항목 - 정서스트레스, 건강수준 등 대답이 꺼려지는 항목 - 보험가입여부, 실업급여 등)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이 많으므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서 진행 필요 예술인 DB 구축 시 문화원 입장에서는 행사, 강의여부, 사진, 작품들이 나와있으면 활용성이 높을 것 같음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보유여부의 필요성에 의문. 대부분 필요없다는 의견 정서, 스트레스의 질문항목이 모호(의미를 모름).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 4대보험가입 여부는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 같아 의도가 왜곡될 수 있음 전업 예술인의 경우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구체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문항을 정리하고 정의가 필요 예술활동 시 부당한 대우 경험여부 및 대응방안에서 대응방안의 의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음 단어가 주는 의미와 느낌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경우는 수정이 필요 DB구축 관련 내용으로 활동기간이 필요함.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노출하지 않고, 연락처는 노출 시 안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는 않되 재단에 요청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예술인의 작품이 시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안 필요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표 24] 경기문화원연합회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지원정책은 금액적인 부분보다 기회를 주는 형태의 지원 검토 필요함 창작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 기회제공이 중점되어야 함 (예술인 경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 공공영역안에서의 지원정책이 필요. 공공영역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경계에 있는 예술활동과 공공성이 없는 예술측면의 지원정책을 나누어 2가지 트랙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음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예술인 지원에 필요한 내용은 자금과 공간지원으로 의견이 좁혀짐 단타성 지원보다 장기적 지원, 지속적 지원이 더 필요함 대체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격조건이나 심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 각 지역담당자들은 본인들의 지역 현황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지역 현황은 공유가 되지 않으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정보교류의 장을 열어주는 방안 필요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예술인 지원으로 인식. 활동의 정의는 장소, 시스템 등으로 정의될 수 있음 현 공공지원이 가진 한계로는 기준선 밖에 있거나 낙후된 곳에 있는 소외된 예술인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이 공모에서 선정되어 지원될 수 있는 바탕이 깔리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특정지역을 선별하여 해당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을 새롭게 정리하는 형태 구체적으로 예술교육 강사비 지원은 낙후된 지역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예술강사의 Pool이 없으므로 타 지역에서 초빙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우 제한적임. 이러한 예술교육 강사비 지원을 문화재단과 함께 사업을 구성하여 해주는 방안도 검토 경기도민이 모이는 축제 등을 추진하여 문화원, 문화재단 등이 다같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지원이라함은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는 지원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지원이 필요함 다른 의견으로, 예술가들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것이 예술인 지원이라는 의견 예술인 활동에 대한 지원 시 정량적 지표에만 치우쳐져 있어, 정성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예, 공연인 경우 서류만 잘 쓰면 잘한 것처럼 보여지나, 실제 공연장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평론가 피드백 등의 정성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 필요함)

3. 경기민예총 그룹 내용 요약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표 25] 경기민예총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단체가 경기도에 있는 경우라면 경기도 예술인으로 볼 수 있음 • 그 외에는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함 • 업에 대한 측면으로 전문예술인으로 전업인 분들을 예술인으로 봐야 하며, 겸업을 하는 경우와는 차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실제 예술활동만으로는 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임 •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증명되지 않고 제도권 밖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도 일부 필요하나 이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특히, 방과후 학교 강사분들이나 70대 이후 원로 예술가분들은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대한 보완이 필요함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내 거주와 활동이 모두 예술인 범위에 속하지만 생활지원과 활동지원 등 지원유형에 따라 달라야 함 • 생활 지원의 경우 경기도 내 거주가 우선이어야 하며, 활동지원은 경기도 내 활동 기준으로 보아야 함 • 전업과 겸업은 비교 분류가 아닌 전문 예술인이라면 모두에게 지원해야 하고 모두를 예술인으로 보아야 함 • 단, 생활예술인은 참여가 아닌 창작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평가자 역시 전문성을 가진 예술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평가자와 심사표가 다시 정의되어야 함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경기도 거주가 우선 • 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경기도 내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경기도 소재 단체에 가입한 예술인들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 • 대체로 예술인들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향이 약함 • 생활예술인의 범위는 스스로가 예술인이라고 판단한다면, 예술인 범주안에 들어야 하나, 예술 활동을 했다는 증명은 필요함 • 전업, 겸업, 전문, 생활예술인의 경계가 모호할 수 밖에 없음. 전업 예술인인 경우도 상황이 나빠져 불가피하게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겸업이 되는 경우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므로 경계를 나누기가 모호함 • 예술지원 분야의 경우 기획자까지는 포함이 가능 유대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포함됨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표 26] 경기민예총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명부 확보 방안으로 전수조사 시 창작수당지급조례안과 함께 안내하고 조례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과정을 통해 전수조사에 대상이 될 만한 예술가들이 접촉하여 많은 DB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 등을 선뜻 주기 어려우므로 예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있다면 소속된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 예술가들한테 맞춤으로 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DB확보는 좋으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이후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되어야 함 단순 DB만 확보한다면 이전과 다를 것이 없음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슈화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명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봄 (라운드테이블도 해당) 소개를 받아 명부를 확장할 경우 소개해 준 사람한테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 필요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표 27] 경기민예총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업, 겸업에 대한 구분 명확화 필요 현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은 주관적이므로 필요 시 객관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정서적인 부분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매우 중요함 예술인 DB 항목으로 주소의 경우 모두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군/구까지만 제시후 상세주소는 선택 사항으로 정리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 보다는 활동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방안 고려 활동분야, 입문시기, 활동횟수는 괜찮으나, 정량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실적, 4대보험가입여부, 증명 등은 필수적으로 볼 부분은 아님 주관적인 기술항목에서는 자기소개(100자 이내), 입무(데뷔)경로에 대한 문항도 포함되면 좋음 심층현황에서는 예술인 고용형태와 함께 현재 근무상황, 현재 지원사업 수혜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음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의 경우 예술인들이 대부분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필요성에 의문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움 예술인 DB 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은 괜찮으나 본인이 선택해서 공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의무적 공개 항목으로는 장르, 분야, 활동지역, 성, 연령 정도임 개인 연락처는 직접적인 노출이 안되고 연락이 필요한 경우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표 28] 경기민예총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 지원사업을 받을 때 행정적, 정산 등에 대한 서류작업 등이 매우 어려움으로 이를 도움받을 수 있는 교육 필요 예술인 고용 확보 필요. 예술인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고용지원을 통해 일부 해소가능할 것으로 보임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지원은 예술인 활동과 생활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 생활 지원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며, 예술인 기본소득제를 통해 생활까지 지원되고 환경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함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미디어화, 장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도 필요함 (장비대여 등)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지원은 결국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됨 예술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조직에 대한 지원도 검토 추가적으로 예술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보존 측면에서의 활동지원도 검토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기초문화재단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기획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실행은 기초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유는 기초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이해 폭이 넓고 실제 필요한 행사 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임

4. 북부권역 예술인 그룹 내용 요약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표 29] 북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지역은 다르지만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경기도 예술인에 포함되어야 함 예술인에 대한 기준은 전업, 겸업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모두 예술인으로 보아야 함 예술인 창작활동은 대부분 활동증명 등록을 하고 있으며 복지재단 기준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컨센서스 되어 있으므로 복지재단의 기준을 따라도 크게 무리가 없음 다만, 예술인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 중심의 진행 필요 예술인 복지지원은 복지재단에서 놓치는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의 개념 정의는 ‘거주지+활동 내용’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동의함 단, 활동기간을 보는 기준을 장르별로 다르게 가져가야 함. 더불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도 유연하게 경력 인정이 필요함 (육아, 출산, 장애, 사고에 의한 재할 등)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전시가 취소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획이 된 경우는 인정해 주어야 함 복지지원 측면에서 우선순위는 거주예술인을 우선으로 하고 타 지역 거주 활동 예술인은 일정한 비율을 주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 전업, 겸업 예술인에 대한 논의는 절충적으로 예술인복지재단 모델과 비슷함 단순히 발표된 작품 활동의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예술성에 기반한 평가가 있어야 하나 예술성에 대한 내용 평가는 주장하지 않음 전통적 예술 장르의 경계가 무너지거나 확장되는 만큼 크레딧에 포함되는 모두를 예술가로 포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예술치료사, 예술교육자 등의 분화된 예술직업들도 예술인 신청의 행정적 처리가 가능하므로 경계를 나눌 필요는 없음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이 경기도 예술인임 전업, 겸업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본인의 삶에서 예술 활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술인으로 인정해주어야 함 지원을 위한 경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경력, 활동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제도권 틀 밖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임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의 범위로 거주하는 예술인과 활동하는 예술인, 경기도 내 단체에 가입된 예술인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음 전업, 겸업 예술인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술활동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며, 기준으로는 장르별 편차가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표 30] 북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전수조사와 지원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됨 지원사업 설계 단계별로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게되고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예술인 DB의 경우 홍보나 포트폴리오 형태가 제공될 경우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어서 예술인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 정보가 생성되었을 때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 능동적으로 업데이트하기 보다, 자동 연계 방식으로 업데이트 방식 고려 예술인 고용보험 -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참여자 DB 등의 연계형태가 필요 예술인 DB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등록 시스템 정보가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않는다는 의견 존재. 이는 행정의 필요를 대리해서 수행하고 있는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음 결국 예술인 스스로가 구축하는 온라인 포트폴리오와 기관의 필요로 구성된 예술인 DB의 구축 방향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구성 방식을 고민할 필요 있음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명부에 등록되거나 공유되는 것에 크게 부담이 없다는 의견임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인식 높음) 예술인들의 조사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고, 추가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는 등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것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을 직접 찾아다닐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프로젝트로 연결될 계기나 기회가 없다면 지속되기 힘들 수 있음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예술단체 활동 등록은 불가하고 개인이 증명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경기도 예술인의 플랫폼을 제작하는게 올바른 방향임 기초자료로는 예총, 민예총,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수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등을 얻고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가 중요함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표 31] 북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이 너무 많음. 문항별로 질문하는 목적과 이유가 명확해야 함 문항별로 응답해도 될지에 대해서 안심하고 대답할 수 있음 제시된 문항 중 무직, 장애보유여부 등은 심적 거부감이 드는 문항으로 보여지며,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오픈해주면 좋음 예술인 DB에 있어서 행사, 연락처, 강의, 링크는 좋으나, 비공개적으로 주소, 연락처는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함

[표 31] 북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과 겸업의 경계가 애매하고, 대부분 전업으로만 활동하긴 어려움 • 소속단체의 의미와 범위를 확실하게 설명해야 함 •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으므로 심플하게 진행할 필요 있음 • 소득증명 등은 예술인의 가난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불편함이 느껴짐 • 본인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이지만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DB 플랫폼을 구축할 타 기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향후 해당 플랫폼을 실제 사업으로 연관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중요함 •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경기도 예술 생태계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중요 • 실제 참가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장하는 지원사업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표 32] 북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지원이라 함은 활동을 지원하는 것. 활동, 전시, 거점 지원으로 인식 • 다음으로 생활 지원, 대출, 생계자금에 대한 혜택이 필요함 • 거점에 대한 Needs가 높은 편. 예술인들과의 교류장소 등의 물리적 거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점을 구성하여 예술인들간의 교류 활성화 필요 • 경기문화재단과 예술가와의 접점 포인트, 소통 창구가 마련되면 좋음 • 지속적으로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면 이후 진행되는 사업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지원사업에 연령을 고려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청년과 중년 사이의 낫세대의 경우 신진이 아니면 나이에 묶여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함 • 지원사업 후 정산이나 증빙, 지원 서류작업 때문에 까다로워서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부가적으로 예술활동을 증명할만한 혜택이 있는 사업들이 계획되거나, 경기도에만 있는 공간으로 무료버스 운영, 공간 대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기본소득과 경기문화재단의 기 수행 지원사업을 제외한다면, 가장 두드러진 필요 영역은 네트워킹 지원임 • 공간기반의 네트워킹 지원, 예술가 쌀롱, 예술가 라운지 같은 공간지원 Needs 높음 • 작품에 대한 공동구매, 미술은행, 예술은행 같은 공공구매나 예술활동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장치 및 장비에 대한 공유자원 순환센터 등의 지원이 마련될 필요 있음

[표 32] 북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의 경우 보통 지원서를 잘 쓰는 소수가 선정되어 악순환이 반복됨 지원에 대한 규모나 분야 등의 세분화되고, 지원금도 늘어날 필요가 있음 활동경력이 많지 않거나 다소 기획력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야 자생력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단체들이 지원을 받아 활동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청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중년이나 시니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세대 별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 있음 지원경력이나 행정절차에 미숙한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간소화가 필요 경력이 없는 예술인이나 단체들도 초기단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지원의 다양화, 다각화 필요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창작지원, 공간지원(연습실, 레지던스) 뿐만 아니라 다년간 공간에 정착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함 실제 유휴공간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 확장이나 자원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지역에서 교류하고 실제 공간에 체류하면서 인프라 확장하는 방식도 검토

5.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 내용 요약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표 33]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자 + 도내 활동 예술인까지 포함 장르별로 단체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경기도의 연습실, 주거공간이 있다고 해도 극장공간이 서울에 있어 활동을 타지역에서만 하는 현실이 존재 전업 및 겸업 예술인의 경우 현재 상황이 겸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전업과 겸업의 구분보다는 생활예술인과의 구분이 필요함 생활예술인의 경계는 추후 경력, 횟수 등 편향되게 구분되고 있는데 체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 예술활동에 대해 창작자 + 예술기획 + 스태프까지 포용하는게 맞다는 인식 작품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예술강사나 교육자들도 포함되어야 함

[표 33]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의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으로 거주 또는 비거주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 될 수 있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의 정의가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도에서 창작수당지원조례가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에 앞서 현재의 행정적인 틀을 넘어서는 논의와 연구(경기도 예술인 범위에 대한)가 필요함 지금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은 활동 증명이 어려우므로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함 예술가들의 활동 반경을 생각할 때 특정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짐. 지역별 구분은 무의미함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의 범위를 거주지와 활동지로 고르는 것은 상황에 따라 현실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있음 보통 전국을 활동지로 보기 때문에 활동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기준이 필요함 예술인의 범위로는 생계와 관련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예술인이라 할 수 있음 현대적 관점에서면 활동의 기간보다 스스로 예술인이라는 자각과 행동이 있다면 예술인이라 볼 수 있음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의 범위로 거주지 또는 활동지역이든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됨 예술인의 특성상 지역에 한정적일 수 없음 활동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분야나 특이사항 같은 경우 증명이 단기간에 어려울 수 있음 - 코로나로 인한 기회 축소, 육아휴직 등 예술지원 분야에서 기획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자, 강사들의 경우 과거 예술인이었다면 포함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한다면 다 예술인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예술은 공동작업이므로) 예술인 지원차원에서의 범위는 소득으로 구분이 필요할 수 있음 (소득에 대한 허들을 정해서 소득이 높은 경우 제외를 하는 방안)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표 34]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인 공개참여 방식이 적합함 지역 내 일부 빠른 체계 마련을 위해 단체들의 협조를 통한 데이터를 기초 데이터로 마련하는 방안에서는 실제 단체 소속된 예술인 중 형식적인 활동만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체 협조를 받아 구축된 명부활용 시 형식적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거름 장치가 필요 다소 번거롭더라도 자율적으로 예술가들이 DB에 본인들이 공개참여하는 방식이 맞음 관련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중요

[표 34]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확보의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함. 이를 네트워킹 등 실제 활동으로 반드시 연결시켜야 함 • 실제 활동을 연결 시 자연적으로 등록률이 높아질 수 있음 • 예술인 등록 후 예술인 패스 등의 할인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 명부의 갱신은 예술활동의 중단, 타지역 진출 등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증가하는 활동경력에 대한 업데이트 등이 필요함 • 고연령인 분들의 경우 온라인 등록이나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함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DB는 블랙리스트 처럼 활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함 • 데이터베이스화 됐을 때 작품으로써, 참여한 프로젝트를 등록되어야 함 • 명부 내용 중 활동 단체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시 추후 지원사업 참여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배제되는 성격으로 사용되면 안됨 • 예술인 DB와 설문문항에 응답한 뒤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필요함. 향후 적용된 사항에 대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음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DB활용 관점으로 네트워킹에 기대치가 높음 • 명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스노우볼 효과가 있긴하나, 본인과 경쟁상대일 경우는 소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소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많은 명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표 35]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활동이내 작품활동 증명은 경력단절 여성, 코로나 시국 등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음. 기존의 범위 확장 고려 •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활동을 증명하는 갱신시기, 인증의 기준이 너무 정량적으로만 진행되어 현재의 시류에 맞게 개선이 필요함 •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자체가 행정이나 정책을 위한 편의적 목적이 아닌 경기도 예술인생태계 마련에 필요한 정보로 구축되어야 함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 장애보유 여부 등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은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함 • 건강상의 질문은 예술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고려한 것이면 모르겠으나 왜 물어야 하는지 의문 • 예술생태계 형성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단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느낌이 있음 • 경기도 예술 인프라에 대한 질문은 경기도 지역별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세분화 해서 질문해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표 35]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문, 데뷔시기 질문은 애매한 부분이 있음. 개인적 기준이 다르므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함 • 데뷔시기는 신진작가들을 sorting하는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함 • 지출부담에 있어서 생활비에 대한 구체적 예시 필요 • 개인마다 비용차이가 있으므로 생활비 포함 영역이 다를 수 있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음 • 한정된 지원으로 기간 내에 진행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트랙이 필요함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표 36]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사업의 다양화 필요 • 지원사업 선정 기준이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 있음. 기준 확인 후 개편 필요 • 경기도 예술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인증제를 시행하면 경기도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애항심이 생기고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 경기도 내 인프라 이용의 경우 경기도 예술인들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예술인 DB를 활용하여 도내 인력과 인력을 연계한 협업 파트너 매칭이나 네트워킹이 가능한 사업 필요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원이 규모있는 소수 단체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많은 예술가들이 전반적인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필요. • 지금과 같은 경쟁을 심화시키는 구조는 불가 • 예술이 1년 단위로 완성되지 않는 만큼 행정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 아닌 행정이 예술의 흐름에 맞출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 있음 • 예술가들이 하고 싶은 작업을 지원을 받아서 하기보다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 진행할 필요 있음 • 단발적인 지원이다보니 활동의 연속성을 만들기 어려움 • 프로젝트성, 교육 등의 지원이 많고 순수창작예술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지원 과정에서 서류 간소화 필요 • 지원사업을 수행하다보면 행정과 관련된 소모적인 일들이 많은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쓰이지만 모두 무보수로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등의 설계가 필요함 • 경기도 내 기초단체마다 재단의 재원이나 연락, 인프라가 다르므로 이를 타 권역 등과 연계하여 지원해주는 설계도 검토할 필요 있음 • 지역의 경계로 인접해있는 곳을 연결하는 방향 검토 •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문제로 남부와 북부는 너무 멀기 때문에 단위를 작게 조절하여 묶으면 지원단체 및 재단과의 소통이 물리적으로 수월할 수 있음 • 기초에서 소외받는 단체는 광역에서 포용되는 방안이 필요

[표 36] 서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지원금, 복지재단에 대한 연상, 예술인 패스 활용도 낮음 공모사업에서는 지원금 확대의 공통 의견 도출 생애 한번 지원 같은 경우 확대할 필요 있음 지원사업 참여에서는 서류 간소화, 블랙리스트(많이 수혜받는 사람)에 대한 관리, 예외적인 케이스 인정 등이 의견으로 제시 예술에서는 재료비는 적게 들어가므로 인건비 허용 기준을 높일 필요 있음 지원사업 담당자가 잘 모를 경우 진행이 어려우므로 인수인계가 꼼꼼히 진행 심사위원들은 전문가, 필드를 뛰는 분들로 구성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의견 있음 예술인들의 작품의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단계 검토

6. 남부권역 예술인 그룹 내용 요약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표 37] 남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예술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증명한다면이라는 가정에 두드러진 의견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는가?”, “앞으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가”로 정리됨 즉,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 정체성은 직업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하는 ‘지속성’을 통해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향후 경기도 예술인 DB 구축 이후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주어질 때 수혜를 받기 위한 예술인 정보 등록 및 주기적 갱신에 일정한 정도의 수고를 의도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 즉, 다소 불편하더라도 직업으로서의 진지함이 있다면 자기 증명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베리어를 설정해야 애매한 사람의 복지 따먹기를 막을 수 있음 일부 의견으로 ‘전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 예술인인가요?’ 라는 질문에 주저한다는 의견이 있음 사회적 의식이 여전히 전공자 중심으로 예술인을 규정하는 문화인 상황에서 느끼는 압력으로 이해 일정 정도의 활동 경력을 중심으로 직업 예술인을 정의한다고 할 때, 초기 경력 형성을 하지 못하는 청년/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별도의 조치나 인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표 37] 남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지원금이 세금에서 출발하므로 거주지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적합함 • 단, 최근 1~2년 내에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거나 태어난 사람 등의 연결끈이 있다면 경기도 예술인으로 보아도 무방함 • 거주와 활동 둘 중 하나만 적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음 • 오히려 업으로의 예술활동과 취미로의 예술활동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함 단,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으나 겸업의 경우 인정할 필요 있음 • 창작 생산물이 나오는데 참여한 사람들이면 예술인으로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글쓰는 소설가는 예술인이지만, 출판, 인쇄 관련 사람은 예술인으로 보기 어려움 성악의 경우 오페라는 기획과 연출은 별개로 보아야 함 사진은 에디션에 이름이 들어가는 여부로 확인 등 • 제도권 밖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 예술인으로 증빙해야 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웹소설 및 웹툰 작가, 예명으로 음악활동 하는 경우, 네이버 인물검색 여부 등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예술인은 거주나 활동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예술인으로 볼 수 있음 • 단, 활동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 활동 증빙이 간혹 어려울 경우 일정부분 증빙이 안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함 • 겸업과 전업의 구분은 모호하고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본인이 선택하는 것도 방법임 • 생활예술인은 예술인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인들이 예술을 접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생활예술이고, 실제 취미로 하다가 전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이 경우에도 취미활동이 아닌 본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증빙이 역시 필요함 (전시회수, 전시 내용 등) • 지원부서는 창작지원은 포함하나 행정지원은 불가 • 각 지자체별로 예술인의 범위가 제각각이므로 어느 지역에서는 포함되기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와 활동지역을 포함한 예술인 정의가 필요. 협업자도 결국 창작작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에 포함됨 • 경기도 예술인의 범위로 주민등록 상 경기도내 3년 이상 거주, 지속적인 활동 파악해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활동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 예술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 • 지원을 위한 경기도 예술인의 범위는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예술인에 대한 기준을 행정적 측면이 아닌 예술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표 38] 남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DB 활용방안으로 예술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함 • 당장의 메리트나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미래의 이익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필요함 • 예술 활동 수입 정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는 방식은 1차적 수단 혹은 유일한 수단이 되면 안됨 •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검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신고 자료 등은 예술활동에 의한 수입인지 아닌지 내용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함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등록 방식이면 많이 참여가 가능함 • 예술인 DB에는 지원해주는 기관입장에서 볼 수 있는 정보와 일반시민에게 오픈할 수 있는 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현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동을 통해 재단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구성이 필요함 • DB 구축 시 포트폴리오 개념의 디자인을 넣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영역까지 시각적으로 우수한 DB 구축이 필요함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확보의 필요성과 이유, 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전달이 필요함 • 확보된 명부를 바탕으로 효용성, 필요성, 네트워킹 등을 기대함 • 명부확보를 위해 예술인들은 스노우볼 샘플링 방법이 실현가능함 • 부가적으로 극단 등 오픈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하면 명부 확보가 수월할 수 있음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작성에는 대체로 찬성 • 기초의 경우 별도 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취합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임 • 예술인 증명 방식보다 열려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조사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예술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등록에 참여할 수 있음 • 예술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적극성도 필요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표 39] 남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면 오차범위 없이 항목 이해에 도움이 됨 SNS 주소를 포함한 오픈항목 추가 필요 현재 작가들이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같이 기재하면 효과적임 예술활동증명의 경우 신청여부와 함께 비신청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 필요 다른 예술인 및 단체와 협업 콜라보를 할 수 있도록 DB 플랫폼 활용이 필요함 예술인 활동 3년은 짧으므로 기간 확장 필요 공모지원사업 개선점에 대해 선정된 경우 과정의 장단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미선정 대상에게는 불리한 점에 대한 이유 파악 필요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보유의 경우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함 고용보험 가입은 기본적으로 단발성 케이스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전업과 겸업의 정의 필요 수입, 지출의 항목은 심리적으로 불편하며, 필요하다면 범위를 주고 금액대를 선택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예술인 DB의 경우 연락처 공개여부는 본인 선택으로 진행해야 함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상황으로 예술가들의 활동 변화에 대한 질문 필요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표 40] 남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수기를 받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좋음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으며, 큰 금액을 한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꾸준히 지속해주는 방안이 중요함 경기도 차원에서 예술인들이 활동할수 있는 인프라를 공개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 유튜브 채널, 미술관, 박물관, 공모전, 스튜디오 임대 등 인프라를 활용 할 수 있는 자원 공개를 해주고 자원이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까지 만들어 예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표 40] 남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교통비 할인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청년수당처럼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대표자 인건비 지원 확대 필요 공간 지원 필요 (헤이리 처럼) 공공지원 한계로는 정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부담 측정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이 있음 행정적 절차는 전체적으로 간소화 필요함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분야별 구체적인 필요성들이 도출됨 미술가들은 작업실이 절실하므로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젊은 예술가들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레지던시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음. 작업공간들이 마련되고 쉼어할 수 있는 방식, 잠깐 쓸수 있는 공간, 작품 보관 창고 등의 공간적 지원이 필요함 음악 예술가들은 발표 기회가 매우 중요함. 연주 공연장 필요 예술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작업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7.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 내용 요약

1) 경기도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표 41]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다양한 예술인들, 업이나 지역적인 관점을 뛰어넘어 포용적 관점으로 다 아울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예술가가 아니고 기획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예술가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함 가장 우선순위는 경기도 거주자이면서 활동하는 경우가 1순위이고, 거주는 경기도이나 활동지역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이어도 경기도 예술인으로 보아야 함 업의 기준으로는 전업, 겸업 모두 예술인으로 보아야 하며, 협회 기준으로 소속된 사람들도 예술인으로 볼 수 있음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창작 위주로 보아야 하며, 지원하는 분야는 예술인으로 보기 어려우나 일정부분 음악, 작가 등 기획 이후 마무리 단계까지 협업이 된다면 기획도 예술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복지지원 측면에서는 창작자 위주로 우선순위를 보아야 함 단, 창작자 중심이면서 겸업, 전업은 구분되지 않고 복지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시설기반의 지원이 필요하며, 예술인 활동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와 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 및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

[표 41]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정의와 범위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직장(가입단체, 작업실 등)이 경기도에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음 예술가로서 당연히 겸업을 하며 작업할 수 있으므로 겸업과 전업의 구분은 무의미 경기도 예술인이라는 식으로 지역 기반의 구분을 하다보면 오히려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가를 지원하고 예술창작을 진흥하는 것이므로 보다 열린 태도가 필요함 예술가는 창작 작업을 하는 이들로 한정해 정의하는게 맞다는 의견과 협업을 하는 이들도 결국 창작 작업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예술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함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예술인의 범위 규정과 관련하여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접근 뿐만아니라 온라인 활동 등 매체가 바뀌는 시대적 전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심정적으로 전업 예술인과 동호회 활동(혹은 겸업 예술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업 예술인 중 예술업만 전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함께 복지를 위한 정보망 구축이라는 행정의 목적을 생각할 때 기본 요건을 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적 평가를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단, 정책 및 사업 시행에서 수혜 대상이 전업예술가를 위한 것인지 혹은 생활예술인을 위한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하고 쉬운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필요함

2)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표 42]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가들에게 명부 요청시 다양한 지원적 혜택이 필요함 (예, 창작지원금 등 재단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지원 할 때 명부에 동의하는 내용을 같이 진행할 필요 있음) 명부 확보 방안으로 기초문화재단이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홈페이지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방안 필요 지역별 문화단체, 문화원, 예총, 민예총 협업을 통한 참여가 필요 예술가들은 이미 재단이나 시에 공모사업을 참여할 때 자신의 정보를 모두 제공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부 확보를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함. SNS, 홈페이지,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단기 간이 아닌 주기적 홍보가 필요함 각 지역에 예총, 민예총 협회가 있으므로 지역 예술가들이 협회에 가입하고 그 명단을 재단과 공유하는 것도 방법임 예술가 등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되어준다면 예술가들의 등록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갱신도 유도할 수 있음

[표 42]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명부확보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예술인 DB의 공동관리임 • 명부 확보에 홍보가 중요하며, 정기적인 메일링, 미디어를 통한 노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1년 간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업데이트가 가능함 • 협회나 재단을 통한 홍보가 매우 빠르고 효과적임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협업을 위한 동료를 찾는 것은 DB보다는 개별적으로 찾는 노력이 많아 실제 DB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그룹에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구축 해야 하지만, 활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단순한 교류활성화 등의 사적인 이슈 이외 박람회, 축제 등을 개최하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 미팅 등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함 •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 예술가들이 자기의 필요와 관련해서 요청을 올릴 수 있는 유저공간으로 작용해야 함

3)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표 43]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보유여부는 부담스러운 항목이며, 최근 3년간 예술활동 횟수도 짧은 듯 함 (5년 정도의 기간 확장 필요) • 실태조사 문항은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 구성이 필요 예를 들면, 지출부담의 단어가 어렵게 다가오므로 생활비 %, 예술비 % 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필요 • 정서, 스트레스 등은 사람마다 달라서 척도로의 증명이 어려움 • 보조금사업도 기간에 대한 명시와 횟수 추가가 필요 • 예술인 DB 관련하여 강의, 행사 가능여부 등의 항목이 좋은 것 같으며, 주요 작품이나 수상경력들이 비주열하게 보여지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임 • 다른 예술인 검색은 매우 긍정적임

[표 43]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설문안 논의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들의 활동증명이 매우 어렵게 현실이므로 예술활동증명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은 대체할 필요가 있음 • 활동증명을 못한 사람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문항으로 변경 • 추가문항으로 경기도에서 활동한 이력, 경기도 예술인들한테 당면한 문제점 등 • 최근의 예술가들은 SNS를 많이 활용하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예술가들한테 홍보수단으로 SNS가 포함되어야 함 • 예술인 DB 내용으로는 행사, 강의여부 항목이 좋으며 뿐 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다양한 겸업, 추가적인 예술활동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음
소회의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별 특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질문이라 분석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취득될지 의문임 • 설문지 처음에 자신의 분야를 우선 선택하게 하면 분류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고용 및 근로복지에 대한 항목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예술가가 거의 없음 현실과 다른 질문들이 많음 (4대 보험 등) • 각 분야의 활동 상황과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함
소회의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DB 구축 시 강의 가능여부 등의 정보 표기 사례는 좋음 • 단, 출생연도, 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함

4)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표 44]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소회의실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지원, 공간 지원(전시장, 공연장), 기존 시군구에 있는 예술공간에 대해서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창작지원금 + 창작 공간 형태의 지원사업 희망
소회의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지원은 크게 재원마련과 공간마련으로 구분됨 • 창작활동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예술활동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향후 필요 사업으로 예술인 파견사업 확대 검토 요망 • 민간과 콜라보하여 민간의 재원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예술성을 가진 예술인들의 접점 영역을 넓히는 방안 필요 •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공간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하므로 결국 겸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 공간지원이 필요함 •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에는 예술인을 위한 서포터 필요함 • 원로작가들이 소외되지 않게 연초에 집중되는 사업들이 연간에 골고루 분포될 필요가 있음

[표 44] 동부권역 예술인 그룹의견 -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방안

소회의실 구분	내용
<p>소회의실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많고 작은 규모 지원사업이 거의 없음 • 예술가들이 다양한 창작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활동 지원 필요 • 기초소득, 노령연금처럼 예술가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가 기본소득 등이 필요함 • 특히 65세 이상 예술가에 대한 최저생계 지원 필요 • 아트마켓과 같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선보일 수 있고 시민과 만나고 네트워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활동도 가능한 상설적 공간 필요 • 경기도는 문화인프라가 지역별로 편차가 크므로 열악한 지역의 경우 작품 발표 장소를 구하는 것도 힘들 •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 있음
<p>소회의실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예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정부의 구매, 창작준비금 등 업종 자체에 대한 기본 보장이 필요함 • 당초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내용적으로 같을 수 있으나,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 지원, 육아 지원 등 개별 요소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지원 정책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지원의 핵심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는 맥락으로 제시됨

| 2 0 2 1 년 경 기 도 예 술 인 전 수 조 사 |

제3장 경기도 예술인 분석결과

0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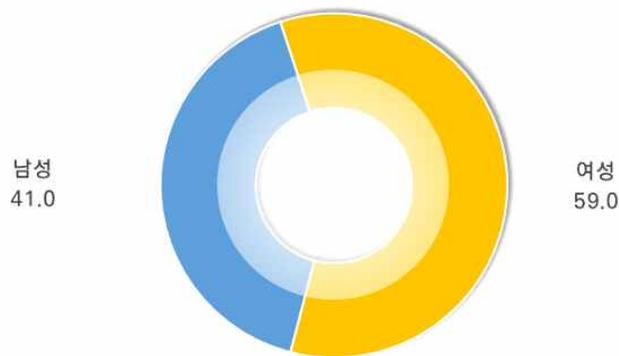
1. 인구통계 특성

1) 성별

- 2021년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에 참여한 예술인은 총 4,196명임
- 예술인들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59.0%, 남성이 41.0%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성별분포

(단위 : %)



2) 연령별

- 참여한 예술인들의 평균 연령은 44.8세로 나타났으며, 연령 분포상으로 30대가 25.0%로 가장 많고, 20대가 20.4%, 40대가 19.7%, 60대 이상이 18.0%, 20대가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연령분포

(단위 : %)



- 이를 성별과 교차하여 분석하면, 여성의 평균연령은 43.7세이고 남성의 평균연령은 46.3세로 여성보다 남성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분포별로도 여성은 30대 > 40대 > 50대 > 20대 > 60대 이상 순의 분포를 보인 반면, 남성은 30대 > 60대 이상 > 50대 > 40대 > 20대 순의 분포로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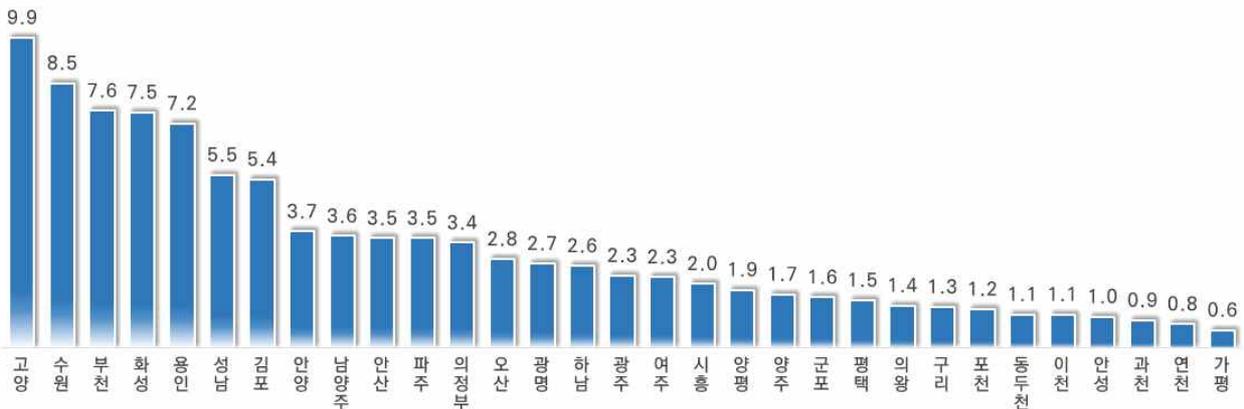
[표 45] 성 X 연령별 응답자 분포 (단위 : %)

구 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연령	
전 체	4,196	16.9	25.0	19.7	20.4	18.0	44.8	
성별	여성	2,477	18.0	25.7	20.6	20.5	15.2	43.7
	남성	1,719	15.2	23.9	18.5	20.2	22.1	46.3

3) 거주지역별

- 이번 전수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고양시가 9.9%로 가장 많고, 다음 수원(8.5%), 부천(7.6%), 화성(7.5%), 용인(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현 거주지역 (단위 : %)



- 거주지역별 참여한 예술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참여자수를 보인 고양시 예술인의 평균 연령은 42.0세이고 분포로는 30대가 28.4%로 가장 많고, 다음 40대가 23.1%, 20대가 20.2%로 나타남 수원시 예술인은 평균 42.4세이고, 30대가 26.2%, 20대가 24.2%, 50대가 20.6%의 분포를 보임
- 부천시 예술인의 평균 연령은 44.8세로 나타났으며, 분포로는 30대가 29.2%, 60대 이상이 20.1%, 50대가 19.2%였으며, 화성시 예술인은 평균연령이 48.3세로 비교적 높은 연령대를 보였으며, 연령 분포에서는 60대 이상이 25.0%, 50대가 24.4% 순으로 50대 이상의 비율이 전체 4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31개 시, 군별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연천군(n=32)로 평균 58.9세로 나타난 반면,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는 군포시(n=68)가 평균 40.8세, 성남시(n=232)가 40.9세로 각각 분석됨

[표 46] 지역별 예술인 연령 분포

(단위 : %, 세)

구 분	사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평균연령(세)	
전 체	4,196	16.9	25.0	19.7	20.4	18.0	44.8	
지역	고양시	416	20.2	28.4	23.1	16.3	12.0	42.0
	수원시	355	24.2	26.2	14.4	20.6	14.6	42.4
	부천시	318	16.0	29.2	15.4	19.2	20.1	44.8
	화성시	316	12.0	19.3	19.3	24.4	25.0	48.3
	용인시	301	17.9	21.9	27.6	19.9	12.6	43.4
	성남시	232	19.4	33.6	22.8	14.7	9.5	40.9
	김포시	226	17.7	16.4	21.2	20.4	24.3	47.1
	안양시	156	19.2	30.1	16.7	15.4	18.6	43.4
	남양주시	150	12.7	27.3	26.7	20.0	13.3	44.3
	안산시	147	23.8	26.5	20.4	15.6	13.6	41.9
	파주시	147	10.2	24.5	29.9	25.9	9.5	44.9
	의정부시	141	15.6	24.1	28.4	22.7	9.2	43.4
	오산시	119	9.2	15.1	16.8	31.9	26.9	51.1
	광명시	113	18.6	31.9	15.0	15.0	19.5	42.9
	하남시	110	13.6	35.5	13.6	16.4	20.9	44.7
	광주시	97	23.7	25.8	20.6	10.3	19.6	42.7
	여주시	95	0.0	7.4	16.8	29.5	46.3	57.4
	시흥시	86	22.1	30.2	15.1	24.4	8.1	41.3
	양평군	78	3.8	11.5	20.5	34.6	29.5	52.3
	양주시	72	11.1	22.2	20.8	25.0	20.8	47.3
	군포시	68	25.0	35.3	14.7	11.8	13.2	40.8
	평택시	64	23.4	29.7	15.6	20.3	10.9	41.5
	의왕시	57	21.1	29.8	12.3	21.1	15.8	43.6
	구리시	55	18.2	20.0	20.0	25.5	16.4	45.6
	포천시	52	9.6	17.3	9.6	23.1	40.4	53.1
	동두천시	45	28.9	8.9	8.9	26.7	26.7	46.5
	이천시	45	2.2	24.4	20.0	17.8	35.6	51.0
	안성시	42	21.4	26.2	14.3	16.7	21.4	43.2
	과천시	37	13.5	35.1	16.2	21.6	13.5	43.4
	연천군	32	3.1	6.3	3.1	34.4	53.1	58.8
가평군	24	8.3	29.2	25.0	29.2	8.3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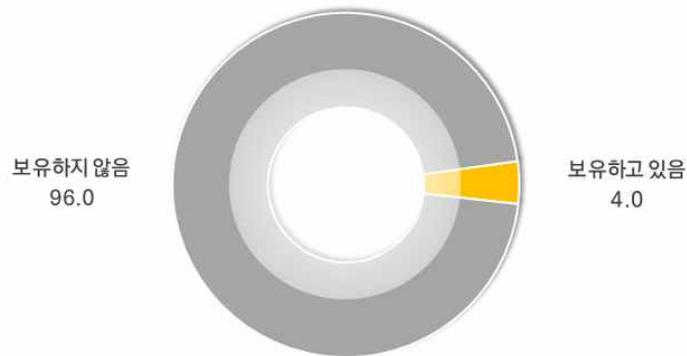
2.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 실태분석

1) 장애인 등록증 보유 현황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 중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은 전체 4.0%(n=167)로 나타남

[그림 6] 장애인 등록증 보유여부

(단위 : %)



-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인(n=167)의 인구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로 여성은 37.1%(62명), 남성인 62.9%(105명)로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분포로는 60대 이상이 41.9%(70명)로 가장 높고, 다음 50대가 24.6%(41명), 40대가 15.6%(26명) 등의 순으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비율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 예술분야별로는 미술(디자인,공예)분야 예술인이 32.3%(54명)로 가장 많았으며, 문학분야가 19.2%(32명), 음악(양악, 클래식) 분야가 16.8%(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7] 응답자 특성별 장애인 등록증 보유율

(단위 : 명, %)

구 분		빈도(명)	비율(%)
전 체		167	100.0
성별	여성	62	37.1
	남성	105	62.9
연령별	20대	12	7.2
	30대	18	10.8
	40대	26	15.6
	50대	41	24.6
	60대 이상	70	41.9

[표 47] 응답자 특성별 장애인 등록증 보유율

(단위 :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167	100.0
예술 분야별	문학	32	19.2
	미술(디자인,공예)	54	32.3
	음악(양악,클래식)	28	16.8
	무용	4	2.4
	연극	6	3.6
	영화	5	3.0
	연예(대중음악,방송)	12	7.2
	국악	6	3.6
	사진	12	7.2
	건축	0	0.0
	만화(웹툰)	1	0.6
	어문	0	0.0
	기타	7	4.2

2)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 연평균 가구 수입 및 개인 총 수입

- 경기도 예술인 중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인들의 2021년 가구 전체 수입은 평균 3,00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의 3,273만원보다 평균 266만원 떨어진 금액이었으며, 2020년 대비 평균 36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예술인의 연평균 가구 전체 수입이 4,031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가구 전체 수입은 평균 1,024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여부별 연평균 가구 수입

(단위 : 만원)



-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인들의 2021년 개인 총 수입은 평균 1,4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의 1,676만원보다 평균 200만원 떨어진 금액이었으며, 2020년 대비 평균 11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예술인의 연평균 개인 총 수입이 1,581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개인 총 수입은 평균 105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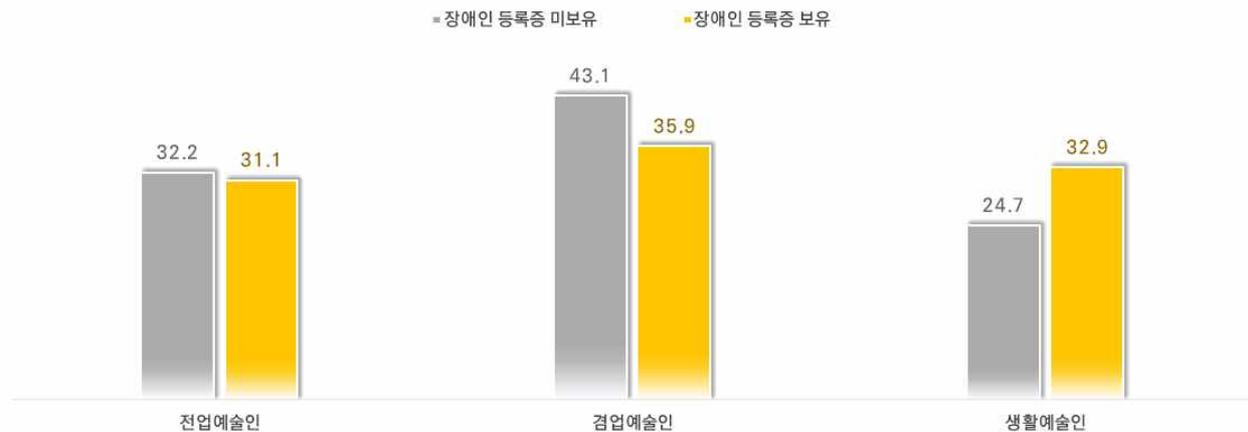
[그림 8]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여부별 연평균 개인 총 소득 (단위 : 만원)



3)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현 예술활동 유형

- 경기도 예술인 중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현 예술활동 유형 분석결과, 겸업예술인이 35.9%, 생활예술인이 32.9%, 전업예술인이 31.1%로 나타남
-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예술인의 활동 유형과 비교하면, 겸업예술인의 비율이 7.2%p 낮았으며, 전업예술인의 비율도 1.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생활예술인의 비율은 8.2%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그림 9]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여부별 예술활동 유형 (단위 : %)



- 겸업 및 생활예술인 중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의견을 제외하고 자영업 운영과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가 20.9%로 가장 많았고,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이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예술인의 응답분포와 비교하면,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근무형태의 응답비율이 13.9%p 낮은 비율을 보여 큰 차이를 나타낸 반면, 자영업 운영의 비율이 7.3%p 높음

[그림 10]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여부별 타 경제활동 유형 (단위 : %)



4)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개인 지출 현황 및 현 수입 수준

-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항목별 개인 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생활비 비중이 6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예술인의 생활비 비중(59.1%)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예술창작활동비는 19.1%로 미보유 예술인의 비중(18.0%)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예술역량 개발비는 1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1]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여부에 따른 항목별 개인 지출 분포 (단위 : %)



-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현재 수입은 생계 및 생활측면에 필요한 금액의 47.5%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예술인(49.8%)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에 필요한 금액 역시 30.3% 수준의 수입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예술인보다 6.5%p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결과적으로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은 미보유 예술인에 비해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용과 예술활동에 필요한 금액 수준 모두 낮아서 전반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2]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여부에 따른 상황별 현 수입 수준 (단위 : %)



5)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예술활동 시 어려움

-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예술인들이 경기도 내 예술활동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술 지원금 부족이 30.8%, 창작을 위한 최저생계비용 부족이 29.4%로 나타나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 등 수입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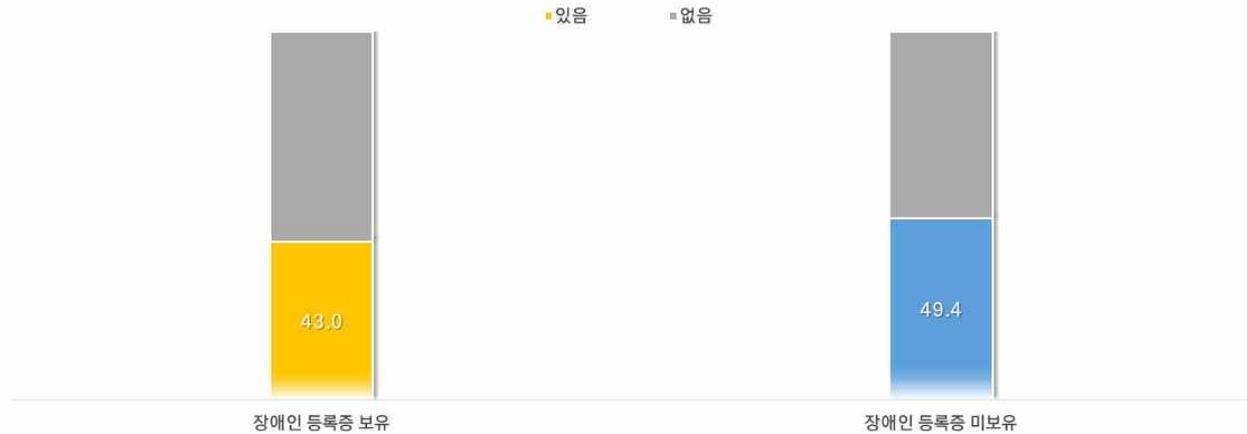
[그림 13]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여부별 경기도 내 예술활동 시 어려움 (단위 : %)



6)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수혜 여부

-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최근 3년간 지원수혜 여부를 살펴보면, 43.0%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그 외 57.0%는 지원받은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예술인의 지원수혜 비율(49.4%)보다도 6.4%p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은 미보유 예술인에 비해 예술활동 지원 수혜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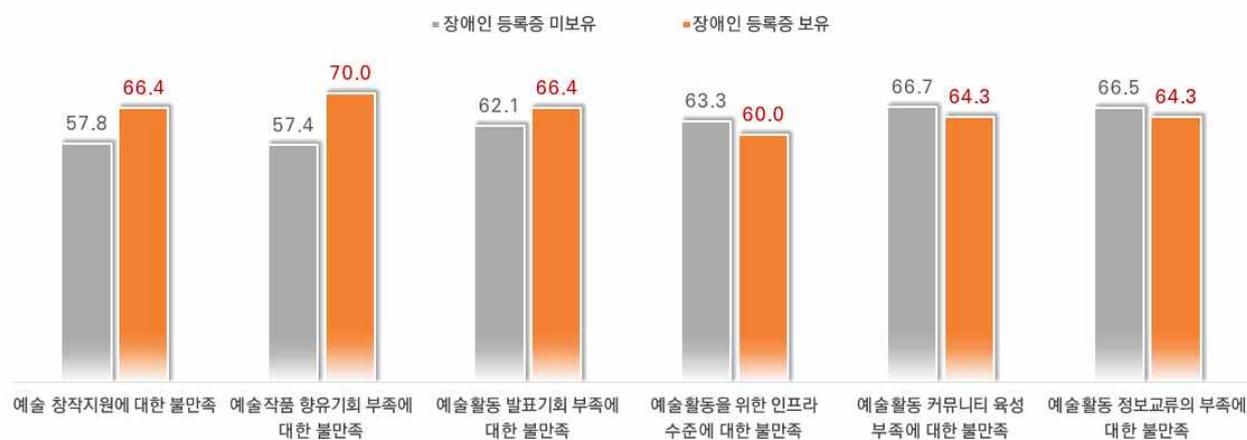
[그림 14]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여부별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지원수혜 여부 (단위 : %)



7)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의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들이 바라보는 경기도 추진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중 비교적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지 않아 불만이 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술 창작지원의 부족과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적다는 불만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장애인 등록증 미보유 예술인들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인식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등록증 보유 예술인들은 커뮤니티나 정보교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예술작품을 나 누고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5]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여부별 경기도 추진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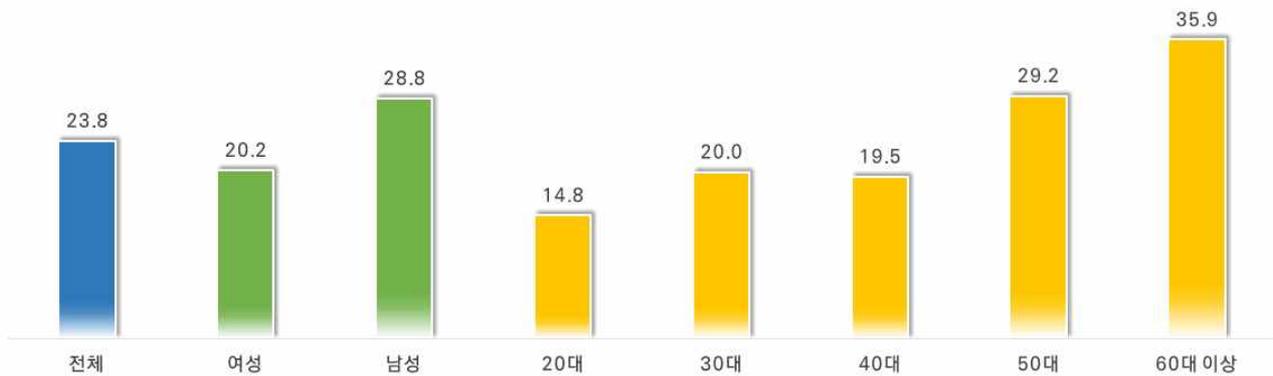


3. 예술작품 발표 및 수상실적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최근 5년간 주 활동 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횟수는 평균 23.8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하면 1년간 평균 4.8회 정도 예술작품을 발표하거나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성별로는 여성(20.2회)보다 남성(28.8회)의 평균 발표 및 참여횟수가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횟수가 늘어나는 형태를 보임
 -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평균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그림 16] 최근 5년간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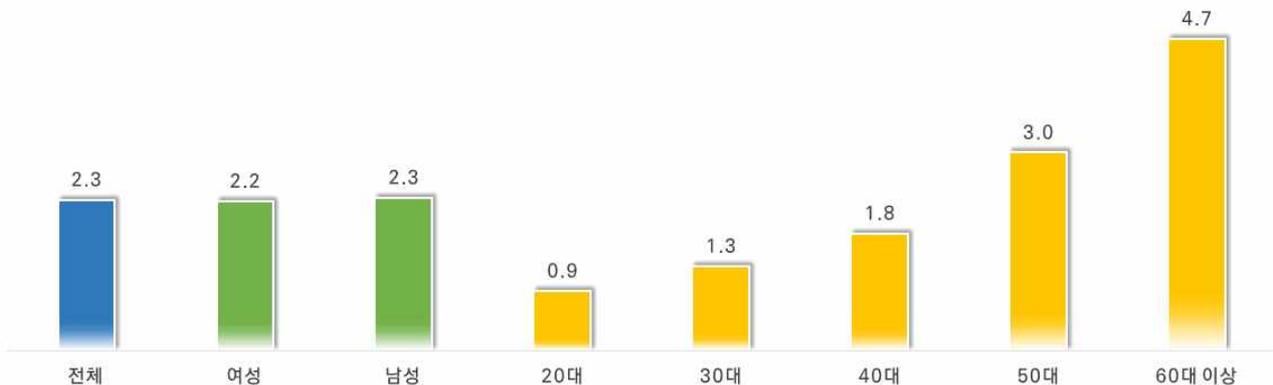
(단위 : 회)



- 같은 기간 수상경험의 경우 평균 2.3회 정도로 나타났고, 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상경험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상경험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최근 5년간 수상횟수

(단위 : 회)



4. 예술인 소득 현황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연평균 가구수입은 2021년 기준 3,989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2019년 평균 4,149만원보다 평균 161만원 정도 감소한 금액이었으나, 2020년 기준(3,952만원)으로는 평균 37만원이 증가된 수입으로 확인됨
- 반면, 연평균 개인 총수입은 2021년 평균 1,5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평균 1,738만원보다 평균 161만원 정도 감소한 금액이며, 2020년 기준(1,566만원)으로는 평균 11만원이 증가된 수입으로 나타남
 - 연평균 가구 전체 수입대비 개인 총수입의 비율은 2019년이 41.9% 수준, 2020년은 39.6%, 2021년은 39.6% 수준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개인 총수입의 감소금액이 가구 전체 수입의 평균 감소금액과 유사하게 나타나 예술인의 수입 저하가 가구 전체 수입 저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예술인 개인의 총 수입중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비율은 2019년 71.0% 수준에서 2021년 68.4% 수준으로 2.6%p 떨어졌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8] 최근 3년간 연평균 가구수입/개인수입/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비율 (단위 : 만원, %)



-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예술인 개인의 연평균 수입으로 분석된 1,738만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같은 기간 연평균 임금총액인 3,768만원의 4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의 수입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KOSIS에 국가승인통계결과로 확인할 수 있음
 - 위 승인통계에서 2019년 월임금총액(명목)은 314만원으로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연평균 임금총액을 계산함 (314만원 × 12개월 = 3,768만원)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예술인들의 생활과 예술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이 예상됨

- 2021년 기준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개인 총 수입 평균 598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의 연평균 개인 총 수입이 1,66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50대가 1,659만원, 30대가 1,637만원, 60대 이상이 1,589만원, 20대가 1,252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 48] 성 X 연령별 연평균 가구수입 및 개인수입

(단위 : 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가구 전체 수입	개인 총 수입	가구 전체 수입	개인 총 수입	가구 전체 수입	개인 총 수입	
전 체	4,149	1,738	3,952	1,566	3,989	1,576	
성별	여성	4,382	1,446	4,204	1,304	4,283	1,321
	남성	3,831	2,129	3,607	1,916	3,587	1,919
연령	20대	4,532	1,166	4,511	1,165	4,665	1,252
	30대	4,019	1,723	3,896	1,593	3,933	1,637
	40대	4,235	1,894	4,044	1,653	4,064	1,665
	50대	4,392	1,983	4,035	1,712	4,045	1,659
	60대 이상	3,623	1,822	3,344	1,625	3,330	1,589

- 또한, 2021년 기준 개인 총 수입 중 예술활동으로 발생한 수입비율에 대해 여성은 약 70.4%, 남성은 65.5%로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61.3%로 가장 낮고, 30대가 7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예술활동 이외 수입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은 60대 이상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9] 성 X 연령별 개인 총수입 대비 예술활동 수입비율

(단위 :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 체	71.0	69.6	68.4	
성별	여성	73.4	71.6	70.4
	남성	67.8	66.9	65.6
연령	20대	68.2	66.3	65.6
	30대	76.8	74.1	73.8
	40대	73.5	73.3	70.8
	50대	68.5	67.3	65.7
	60대 이상	62.8	62.0	61.3

02 예술활동 현황

1. 주 활동지역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으로 경기 이외 지역에서의 활동이 전체 2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 주 활동 지역에 대한 단순한 응답분포는 각 지역별 응답한 예술인의 수가 다르고 많은 예술인이 응답할 수록 높은 비율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본 항목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경기도 예술인의 주 활동지역이 경기 이외 지역인 경우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임

[그림 19] 주 활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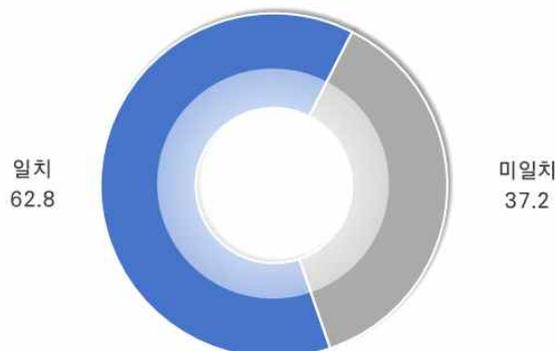
(단위 : %)



- 현재 예술인들의 거주지역과 주 활동지역의 매칭률을 살펴보면, 거주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전체 62.8%이고,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37.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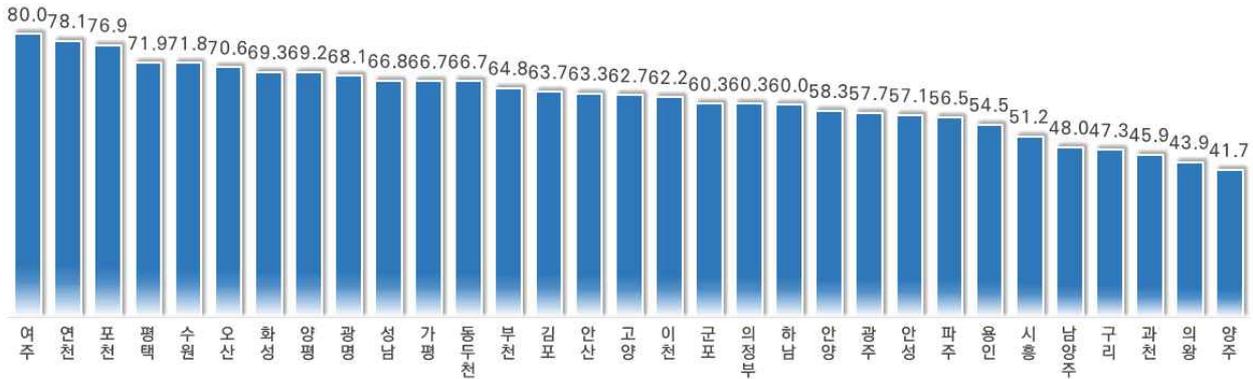
[그림 20] 거주지역과 주 활동지역 매칭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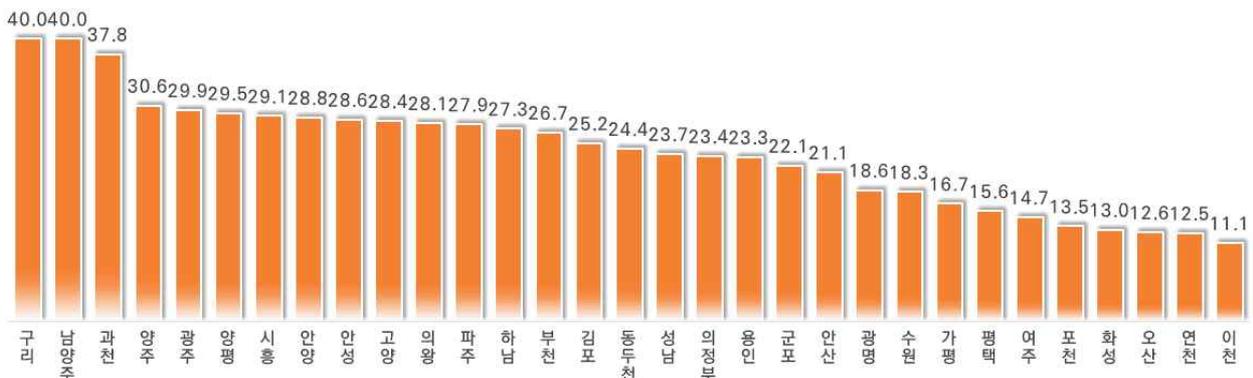
- 이를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거주지역과 주 활동지역 매칭비율(일치율)을 살펴보면, 여주군이 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연천이 78.1%, 포천이 76.9%, 평택이 7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각 시,군별 응답 사례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 반면, 거주지역과 주 활동지역 매칭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41.7%), 의왕(43.9%), 과천(45.9%)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21] 경기도 31개 시,군별 거주지역과 주 활동지역 일치율 (단위 : %)



- 여기에서 경기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을 시, 군별로 살펴보면,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4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과천(37.8%), 양주(30.6%), 광주(2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경기 이외 지역 활동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이천(11.1%)과 연천(12.5%), 오산(12.6%) 등의 순으로 확인됨

[그림 22] 경기도 31개 시,군별 경기 이외 지역 활동률 (단위 : %)



2. 타 지역 예술활동 이유

- 앞서 주 활동지역 중 경기도 외 타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n=937) 그 이유에 대해, 타 지역은 예술소비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50.2%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예술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이 39.4%,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이 잘 되어서가 3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 타 지역 예술활동 이유 (단위 : %)



-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예술소비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예술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에 높은 비율을 보임.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이 잘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다른 연령에 비해 3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50] 연령별 타 지역 예술활동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	다른 예술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서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이 잘 되어서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	일자리가 많아서	데뷔(첫 활동)한 곳이어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	기타	
전체	937	50.2	39.4	34.7	30.6	26.4	22.6	11.3	7.9	
연령	20대	163	49.7	37.4	35.0	34.4	31.9	20.9	12.3	8.6
	30대	308	58.4	41.9	45.1	35.4	38.0	23.7	12.7	7.8
	40대	217	51.2	33.2	31.3	30.9	23.5	16.6	11.5	11.5
	50대	138	47.1	35.5	26.8	25.4	14.5	23.9	8.7	4.3
	60대 이상	111	29.7	52.3	21.6	18.0	6.3	32.4	9.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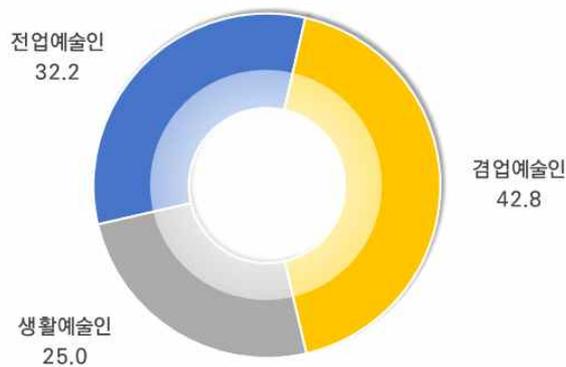
3. 현 예술활동 유형

1) 예술활동 유형

- 경기도 예술인들의 현재 예술활동 유형은 겸업예술인이 전체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전업예술인이 32.2%, 생활예술인이 25.0% 순으로 나타남
 - 전업예술인 : 필요한 소득 전체를 예술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
 - 겸업예술인 : 필요한 소득 일부를 예술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
 - 생활예술인 : 예술활동 목적이 소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림 24] 현 예술활동 유형

(단위 : %)



- 성별로는 여성의 겸업예술인 비율이 43.0%로 남성(42.5%)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전업예술인 비율은 여성이 31.6%, 남성은 33.0%로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겸업예술인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업예술인은 30대가 4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36.5%, 20대가 3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1] 성 X 연령별 현 예술활동 유형

(단위 : %)

구분	사례수	전업예술인	겸업예술인	생활예술인	
전체	4,196	32.2	42.8	25.0	
성별	여성	2,477	31.6	43.0	25.4
	남성	1,719	33.0	42.5	24.5
연령별	20대	709	34.1	46.8	19.0
	30대	1,047	41.6	46.5	11.8
	40대	828	36.5	45.7	17.9
	50대	855	28.3	41.6	30.1
	60대 이상	757	16.9	32.0	51.1

2) 예술활동 이외 다른 경제활동 유형

- 예술활동 유형 중 겸업예술 및 생활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n=2,846) 다른 경제활동 유형에 대해 기타 의견을 제외하고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20.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기간제/계약직/임시직 등이 16.2%, 비예술분야 프리랜서가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는 현재 다른 직장 및 근무를 알아보고 있는 경우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외 개인적인 레슨활동이나 교육활동 등이 내용이 주로 확인됨

[그림 25] 타 경제활동 유형 (단위 : %)



- 앞서 예술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겸업예술인은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근로 비율이 25.5%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 기간제/계약직/임시직과 비예술분야 프리랜서가 각각 17.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 예술인은 기타의 비율이 36.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이 14.5%, 자영업 운영이 14.2%, 정규직 지원이 13.4% 등의 순으로 확인됨

[그림 26] 예술활동별 경제활동 유형 (단위 : %)



3) 예술활동 유형별 개인 수입현황

- 예술활동 유형별로 연평균 개인 총 수입과 예술활동 수입 비율 결과를 분석하면, 전체 개인 연평균 수입은 2021년 기준 생활예술인이 평균 1,92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 전업예술인이 1,634만원, 겸업 예술인이 1,358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개인 총 수입 중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비율은 전업예술인이 87.4%, 겸업예술인이 59.1%, 생활 예술인이 46.8%의 순으로 나타남

[표 52] 예술활동 유형별 개인 수입현황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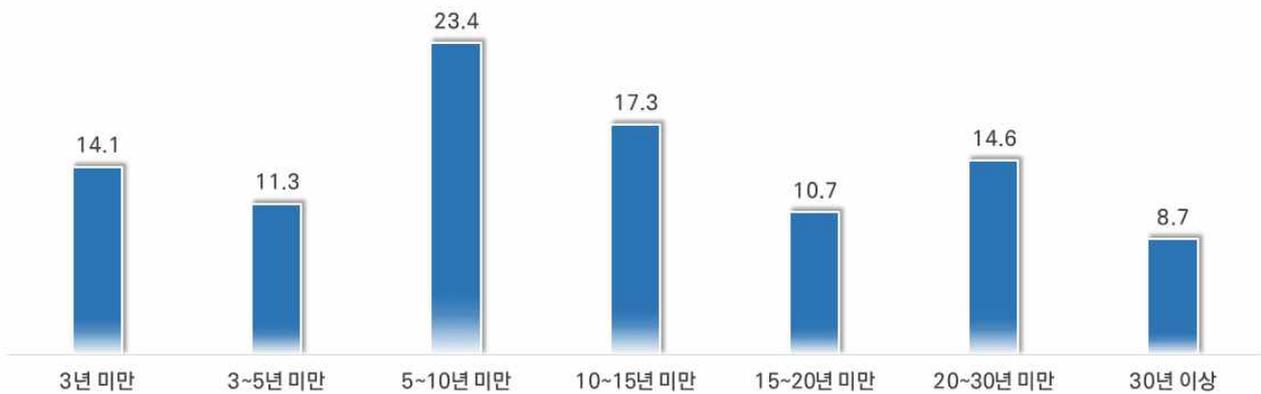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개인 총 수입	예술활동 수입비율	개인 총 수입	예술활동 수입비율	개인 총 수입	예술활동 수입비율	
전 체	1,738	71.0	1,566	69.6	1,576	68.4	
예술 활동 유형	전업예술인	1,877	87.5	1,615	87.1	1,634	87.4
	겸업예술인	1,477	63.2	1,343	61.0	1,358	59.1
	생활예술인	2,050	51.6	1,938	50.3	1,927	46.8

- 이는 생활예술인의 경우 다른 경제활동 유형으로 정규직, 자영업운영 등 비교적 주 수입원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 전체 수입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비율은 가장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예술인에 해당하는 전업/겸업예술인이 생활예술인의 소득보다 낮게 나타난 점은 지금의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수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4. 예술분야 경력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입문(데뷔) 년도에 응답한 대상(n=3,937)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예술인의 평균 예술활동 경력은 12.6년으로 나타남
- 경력 분포별로 살펴보면, 5~10년 미만이 2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15년 미만이 17.3%, 20~30년 미만이 14.6%, 3년 미만이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10년 미만 경력의 예술인이 전체 48.8%로 나타났고, 20년 이상의 오랜 경력을 가진 예술인은 23.2%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27] 예술분야 경력 분포 (단위 : %)



-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경력이 14.8년으로 여성의 평균 경력인 11년보다 약 3.8년 더 오래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의 평균 경력은 3.7년, 30대는 8.0년, 40대는 13.0년, 50대는 17.5년, 60대 이상은 평균 21.0년으로 분석됨

[표 53] 성 X 연령별 예술활동 경력 (단위 : %, 년)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평균 경력	
전체	3,937	14.1	11.3	23.4	17.3	10.7	14.6	8.7	12.6	
성별	여성	2,306	16.1	12.9	24.6	17.8	10.5	13.1	5.0	11.0
	남성	1,631	11.3	9.1	21.7	16.5	11.0	16.6	13.9	14.8
연령별	20대	646	43.3	25.1	25.9	5.0	0.3	0.5	0.0	3.7
	30대	973	12.7	14.5	37.7	24.7	8.7	1.6	0.0	8.0
	40대	785	8.9	7.8	18.2	22.7	19.1	22.5	0.8	13.0
	50대	812	6.3	6.0	16.1	15.4	12.2	27.1	16.9	17.5
	60대 이상	721	4.2	4.6	15.7	14.6	11.7	21.9	27.5	21.0

5. 예술활동 경력 단절 현황

1) 예술활동 경력 단절경험 및 단절 기간

- 예술분야 입문(데뷔) 이후 예술활동의 경력이 단절된 경험은 전체 예술인의 46.2%로 나타났고, 이 때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3.3년으로 조사됨

[그림 28] 예술활동 경력 단절 경험 및 기간 (단위 : %)



- 경력단절 기간은 오히려 여성(평균 3.2년)보다 남성(평균 3.3년)이 조금 더 길었으나, 경력단절 경험률은 남성 44.2%, 여성 47.6%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40대는 50% 이상이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는 40.7%, 60대 이상은 26.9%로 조사됨. 경력단절 기간의 경우 20대가 평균 1.7년으로 가장 짧았으며, 30대는 평균 2.2년, 40대 평균 3.7년, 50대 평균 4.5년, 60대 이상은 평균 5.9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됨

[표 54] 성 X 연령별 경력단절 경험 및 기간 (단위 : %, 년)

구분	사례수	있음 (%)	없음 (%)	평균 경력단절 기간(년)
전체	4,196	46.2	53.8	3.3
성별	여성	2,477 (47.6)	52.4	3.2
	남성	1,719 (44.2)	55.8	3.3
연령별	20대	709 (51.2)	48.8	1.7
	30대	1,047 (55.5)	44.5	2.2
	40대	828 (53.5)	46.5	3.7
	50대	855 (40.7)	59.3	4.5
	60대 이상	757 (26.9)	73.1	5.9

2) 예술활동 경력 단절 이유

- 예술활동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n=1,939) 단절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전체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 기타를 제외하고 출산/육아 13.0%, 건강문제 6.7%, 학업 5.9%, 군입대 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단절, 해외유학 및 이주로 인한 단절, 가족문제, 간병, 단순한 휴식 등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됨
- 아울러, 각 경력단절 이유별로 평균 단절 기간을 함께 분석한 결과, 생계유지로 인해 단절된 기간은 평균 3.4년으로 나타났고, 출산/육아로 단절된 기간은 평균 5년으로 가장 긴 단절기간을 보임. 그 외 이유로 인한 단절기간은 평균 2.2~2.8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예술활동 경력 단절 이유 및 평균 단절 기간 (단위 : %, 년)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생계유지가 54.2%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고, 기타를 제외하고는 군입대가 1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생계유지가 37.1%, 출산/육아가 20.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20대는 상대적으로 학업과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이 높았으며, 30대부터는 생계유지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출산/육아의 비율은 40대가 높은 비중을 보임

[표 55] 성 X 연령별 경력단절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생계유지	출산/육아	건강문제	학업	군입대	기타	
전체	1,939	43.8	13.0	6.7	5.9	4.2	26.4	
성별	여성	1,180	37.1	20.5	7.4	6.1	0.3	28.6
	남성	759	54.2	1.4	5.5	5.7	10.4	22.8
연령별	20대	363	39.4	1.7	6.1	14.3	11.6	27.0
	30대	581	45.6	11.9	6.5	5.0	4.0	27.0
	40대	443	43.8	25.1	5.4	4.1	1.4	20.3
	50대	348	46.0	15.2	6.3	3.4	2.6	26.4
	60대 이상	204	42.6	6.9	11.3	2.0	1.0	36.3

6. 주요 예술활동 분야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인들의 주요 예술활동 분야는 미술(디자인, 공예) 분야가 2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문학 15.5%, 음악(양악, 클래식)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0] 주요 예술활동 분야 (단위 : %)



- 주요 예술활동 분야로 여성은 미술, 문학, 음악, 연극 등이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미술, 음악, 문학, 연예 등의 순으로 나타나 활동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연령별로 20대는 음악(양악, 클래식) 분야의 비율이 높고, 다음 미술, 연예 등의 순이었으며, 30대는 미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악, 연극, 연예 등의 순으로 조사됨
- 40대는 미술, 음악, 문학 분야 순이며 50대는 미술, 문학, 음악 분야 순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의 경우 문학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56] 성 X 연령별 주요 예술활동 분야 (단위 : %)

구분	사레수	미술 (디자인, 공예)	문학	음악 (양악, 클래식)	연극	연예 (대중음악, 방송)	국악	영화	무용	사진	만화 (웹툰)	건축	어문	기타	
전체	4,196	28.7	15.5	14.9	9.2	7.7	5.1	4.5	3.5	3.5	2.0	0.1	0.1	5.4	
성별	여성	2,477	32.7	15.9	14.4	8.8	5.0	5.9	2.4	4.8	2.1	2.3	0.0	0.1	5.6
	남성	1,719	23.0	14.8	15.6	9.8	11.5	3.9	7.4	1.6	5.5	1.4	0.3	0.2	5.0
연령별	20대	709	19.3	5.4	22.6	14.4	14.8	4.1	5.5	6.9	0.8	3.5	0.1	0.0	2.5
	30대	1,047	23.9	8.7	18.2	12.6	10.0	5.5	6.4	3.3	1.7	3.5	0.0	0.0	6.0
	40대	828	34.9	12.9	13.8	9.2	5.7	4.0	6.4	3.4	3.1	1.9	0.2	0.1	4.3
	50대	855	36.4	19.3	11.6	7.4	4.7	4.9	2.1	2.7	4.7	0.5	0.1	0.1	5.6
	60대 이상	757	28.8	32.8	8.1	1.6	3.4	6.9	1.3	1.3	7.3	0.0	0.3	0.4	7.9

- 예술활동 분야별 평균경력을 살펴보면, 경력이 가장 많은 예술분야는 국악으로 평균 15.1년으로 나타났고, 다음 사진과 어문이 평균 14.0년 순으로 조사됨

- 반면, 가장 경력이 낮은 예술분야는 건축이 평균 6.2년, 만화(웹툰)이 평균 7.5년으로 모두 평균 경력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단, 어문, 건축 분야의 경우 응답된 사례수가 매우 적어 다른 분야의 평균 경력과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는 수준으로 보아야 함

[표 57] 주요 예술분야별 평균 경력

(단위 : 명,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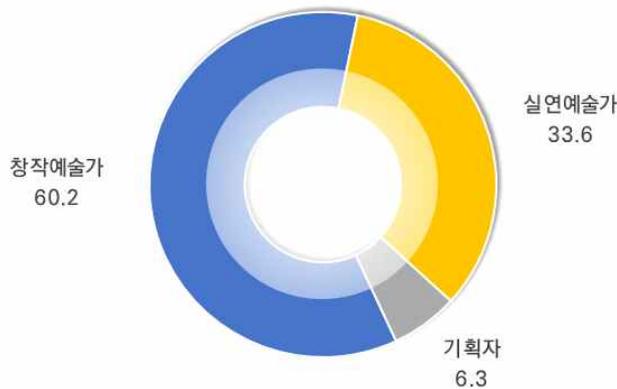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평균 경력(년)
전 체		4,196	12.6
예술 분야별	국악	214	15.1
	사진	145	14.0
	어문	5	14.0
	미술(디자인,공예)	1205	13.5
	문학	649	13.3
	연극	385	12.8
	무용	145	12.4
	음악(양악,클래식)	625	11.2
	영화	187	11.1
	연예(대중음악,방송)	323	10.4
	만화(웹툰)	82	7.5
	건축	6	6.2
	기타	225	12.7

7. 예술분야 활동 직업유형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분야의 활동 직업유형으로 창작예술가가 60.2%로 가장 많고, 다음 실연예술가가 33.6%, 기획자가 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예술분야 활동 직업유형

(단위 : %)



- 여성의 경우 창작예술가가 60.6%, 실연예술가가 33.5%, 기획자가 5.9%의 비율이었으며, 남성은 창작예술가가 59.6%, 실연예술가 33.7%, 기획자가 6.7%로 남성과 여성의 직업유형 분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연령별로 20대는 실연예술가의 비율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기획자 역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30대 이후부터는 창작예술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창작예술가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표 58] 성 X 연령별 예술분야 활동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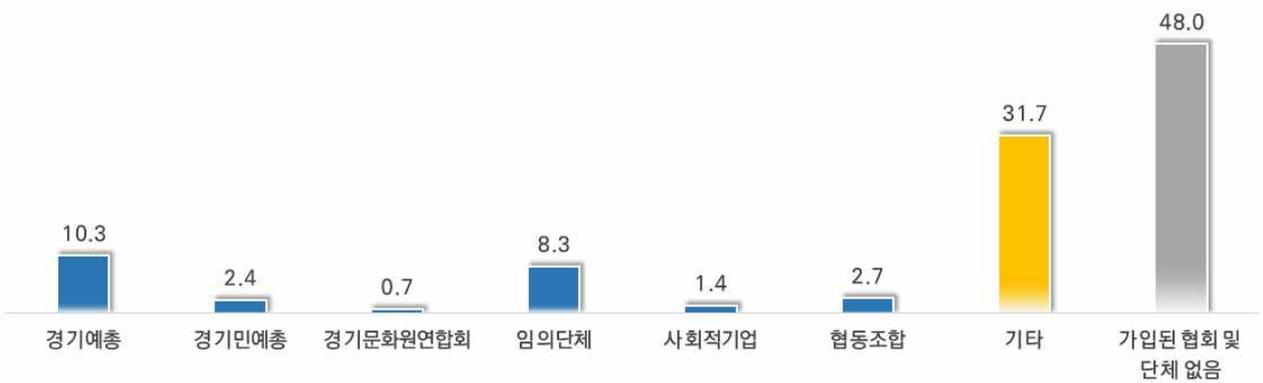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기획자	
전체	4,196	60.2	33.6	6.3	
성별	여성	2,477	60.6	33.5	5.9
	남성	1,719	59.6	33.7	6.7
연령별	20대	709	43.2	49.4	7.5
	30대	1,047	50.8	42.7	6.5
	40대	828	64.5	28.9	6.6
	50대	855	68.7	24.9	6.4
	60대 이상	757	74.8	21.0	4.2

8. 소속 예술인 협회 및 단체 현황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현재 소속된 협회 및 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된 협·단체가 없는 경우가 전체 48.0%로 과반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에 소속된 경우가 31.7%로 높았으며, 이 경우 현재 활동하는 예술분야 관련 협회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됨
 - 예를 들어,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한국어행작가협회, 가야금 병창보존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등이 기타의건으로 나타남

[그림 32] 소속 협회 및 단체 유형 (단위 : %)



- 성별로 협·단체 가입비율은 여성이 52.1%, 남성이 51.7%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그 외 가입 단체별 분포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협·단체 가입비율 = 100% - 가입된 협회 및 단체없음 응답비율
- 연령별 가입비율은 20대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가입비율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대 이상의 가입비율은 70~80%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그 중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경기예총의 가입비율이 각각 18.1%, 23.6%로 타 연령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59] 성 X 연령별 소속 협·단체 가입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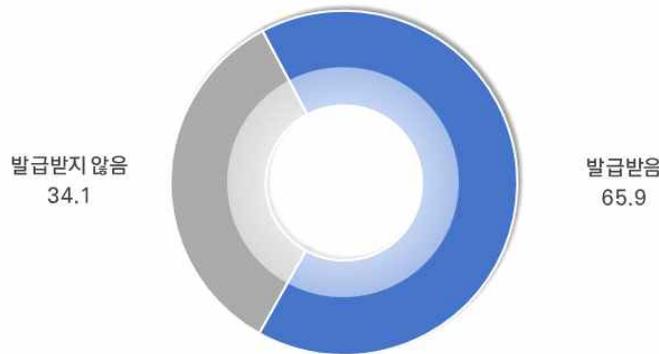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경기예총	경기민예총	경기문화원연합회	임의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가입된 협회 및 단체 없음	
전 체	4,196	10.3	2.4	0.7	8.3	1.4	2.7	31.7	48.0	
성별	여성	2,477	10.1	2.0	0.6	8.6	1.3	2.8	32.2	47.9
	남성	1,719	10.5	2.9	0.9	8.0	1.5	2.5	31.1	48.3
연령별	20대	709	2.1	0.1	0.7	3.8	1.6	0.8	20.7	70.9
	30대	1,047	3.7	0.6	0.3	6.9	1.6	1.8	20.3	67.0
	40대	828	5.2	2.1	0.2	8.2	1.2	4.3	29.3	53.6
	50대	855	18.1	5.7	0.8	11.8	1.4	4.1	42.0	26.8
	60대 이상	757	23.6	3.4	1.7	10.8	1.1	2.1	48.9	18.2

9.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현황

1) 발급여부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는 전체 65.9%로 나타나 경기도 예술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33]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 여부 (단위 : %)



- 성별로는 여성(63.9%)보다 남성(68.8%)의 발급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대의 발급률이 7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40대가 66.1%, 20대가 63.9%, 50대가 60.4%, 60대 이상이 5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60] 성 X 연령별 예술인 활동증명 발급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발급받음	발급받지 않음	
전체	4,196	65.9	34.1	
성별	여성	2,477	63.9	36.1
	남성	1,719	68.8	31.2
연령별	20대	709	63.9	36.1
	30대	1,047	79.5	20.5
	40대	828	66.1	33.9
	50대	855	60.4	39.6
	60대 이상	757	55.1	44.9

- 예술인 활동증명 여부에 대한 사항을 예술활동 유형별로 분석하면, 전업예술인이 활동증명을 받은 경우는 전체 75.9%, 겸업예술인은 71.1%가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예술인은 44.1%만 활동증명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34] 예술활동 유형별 활동증명 발급 여부 (단위 : %)



- 예술분야별 활동증명 발급여부를 살펴보면, 사례수가 적은 건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급받은 분야는 영화가 8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극이 79.7%, 연예(대중음악, 방송)이 7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발급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어문을 제외하고 무용이 55.2%, 기타 분야가 55.6%, 음악(양악, 클래식)이 56.5% 등의 순으로 조사됨

[표 61] 예술분야별 활동증명 발급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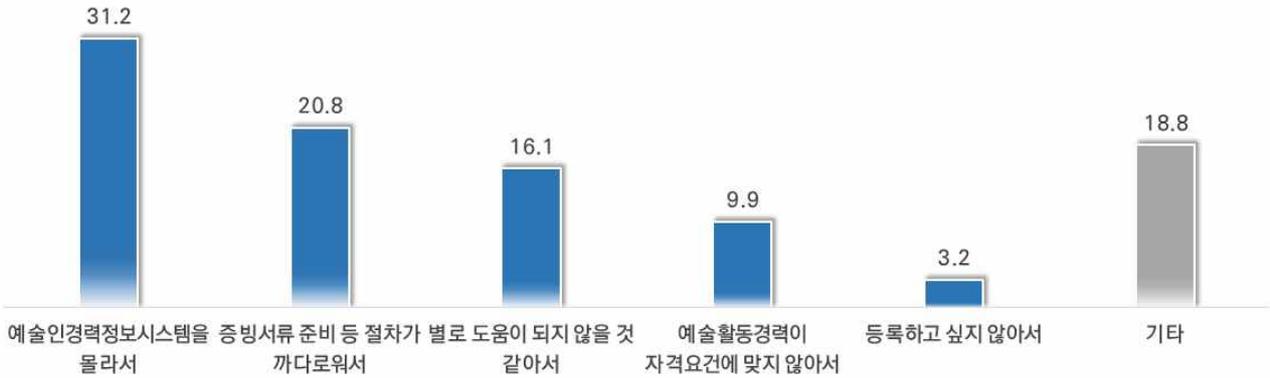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발급받음 (%)	발급받지 않음 (%)	
전체	4,196	65.9	34.1	
예술분야별	문학	649	69.3	30.7
	미술(디자인,공예)	1,205	62.7	37.3
	음악(양악,클래식)	625	56.5	43.5
	무용	145	55.2	44.8
	연극	385	79.7	20.3
	영화	187	81.3	18.7
	연예(대중음악,방송)	323	79.3	20.7
	국악	214	57.9	42.1
	사진	145	64.1	35.9
	건축	6	83.3	16.7
	만화(웹툰)	82	78.0	22.0
	어문	5	20.0	80.0
	기타	225	55.6	44.4

2) 예술인 활동증명 미발급 이유

- 예술인 활동증명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n=1,431) 미발급 이유에 대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고 있지 않아서가 전체 31.2%로 가장 높았으며, 증빙서류 준비 등 절차가 까다로워서가 20.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6.1%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 예술인 활동증명 미발급 이유

(단위 : %)



- 성별에 따른 미발급 이유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준비 절차 등의 까다로움으로 발급받지 않은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미인지로 인한 미발급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예술인들에게는 잘 알려졌지만 고연령의 예술인들에게는 제대로 정보 전달이 도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예술인 활동증명이 별로 도움되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62] 성 X 연령별 예술인 활동증명 미발급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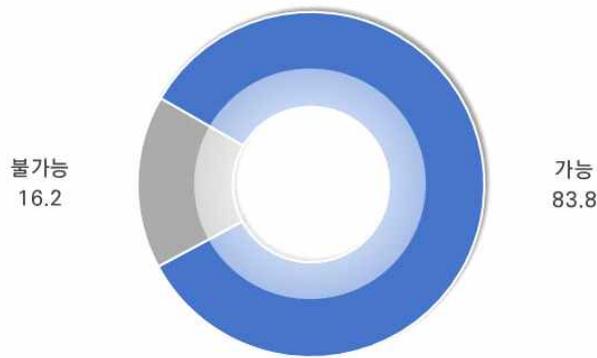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을 몰라서	증빙서류 준비 등 절차가 까다로워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등록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전체	1,431	31.2	20.8	16.1	9.9	3.2	18.8	
성별	여성	895	31.3	23.2	12.1	10.6	2.6	20.2
	남성	536	31.0	16.8	22.8	8.8	4.3	16.4
연령별	20대	256	29.7	21.5	8.6	17.2	2.3	20.7
	30대	215	26.5	20.9	11.6	18.6	2.8	19.5
	40대	281	30.6	19.2	14.9	10.7	3.2	21.4
	50대	339	31.9	23.3	18.0	5.3	3.8	17.7
	60대 이상	340	35.0	19.1	23.5	2.9	3.5	15.9

10. 예술분야 관련 교육 및 강의진행 여부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 중 주 활동 분야와 관련하여 예술교육 및 강의진행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83.8%로 나타나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36] 예술분야 교육 및 강의진행 여부

(단위 : %)



- 예술분야별 교육 및 강의진행 여부 비율은 미술, 연예, 무용, 국악 분야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례수가 적은 건축과 어문분야를 제외하고 만화, 사진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표 63] 성 X 연령별 예술분야 관련 교육 및 강의진행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능	불가능
전 체		4,196	83.8	16.2
성별	여성	2,477	82.7	17.3
	남성	1,719	85.3	14.7
연령별	20대	709	80.1	19.9
	30대	1,047	86.4	13.6
	40대	828	85.3	14.7
	50대	855	84.9	15.1
	60대 이상	757	80.7	19.3
예술 분야별	문학	649	80.6	19.4
	미술(디자인,공예)	1,205	87.6	12.4
	음악(양악,클래식)	625	84.0	16.0
	무용	145	86.9	13.1
	연극	385	82.3	17.7
	영화	187	81.8	18.2
	연예(대중음악,방송)	323	87.3	12.7
	국악	214	86.4	13.6
	사진	145	75.2	24.8
	건축	6	66.7	33.3
	만화(웹툰)	82	68.3	31.7
	어문	5	60.0	40.0
	기타	225	78.7	21.3

03 예술활동 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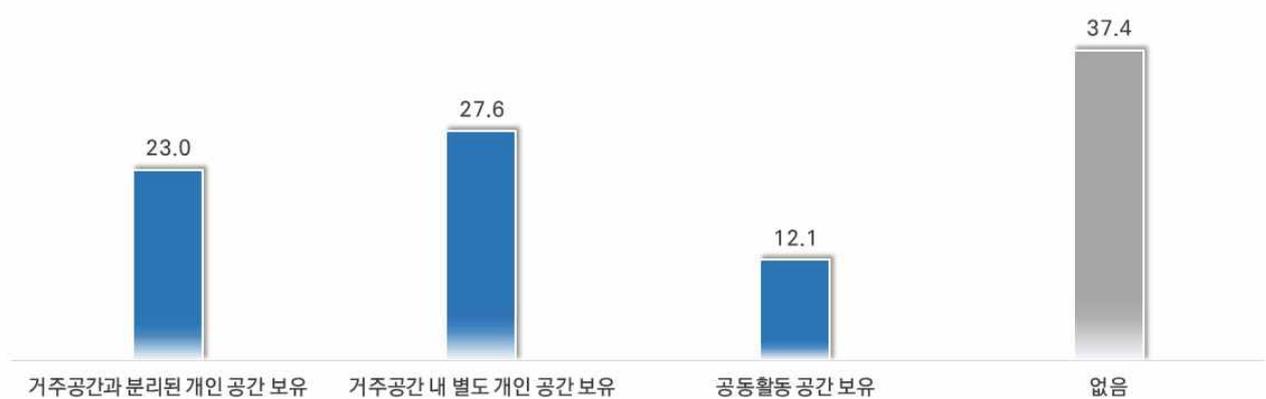
1.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현황

1) 창작공간 보유여부

- 경기도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창작공간(작업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62.6%로 나타났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7.4%로 조사됨
-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 거주공간 내 별도 개인 공간을 보유한 형태가 27.6%로 가장 많고, 다음 거주공간과 분리된 개인 공간 형태가 23.0%, 공동활동 공간 보유가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 예술창작공간 보유 여부

(단위 : %)



- 예술분야별로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예술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과 연예(대중음악, 방송), 만화(웹툰)은 거주공간 내 별도 개인 공간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으며, 미술(디자인, 공예)과 국악 분야는 거주공간과 분리된 개인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공동활동 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무용과 연극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표 64] 예술분야별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거주공간과 분리된 개인 공간 보유	거주공간 내 별도 개인 공간 보유	공동활동 공간 보유	없음	
전체	4,196	23.0	27.6	12.1	37.4	
예술 분야별	문학	649	8.9	40.4	3.7	47.0
	미술(디자인,공예)	1,205	38.2	32.5	10.5	18.8
	음악(양악,클래식)	625	22.2	23.5	15.8	38.4
	무용	145	15.9	7.6	26.2	50.3
	연극	385	12.7	9.6	20.5	57.1
	영화	187	9.1	21.4	11.2	58.3
	연예(대중음악,방송)	323	24.5	36.5	9.3	29.7
	국악	214	25.2	12.1	18.7	43.9
	사진	145	18.6	22.8	5.5	53.1
	건축	6	0.0	16.7	50.0	33.3
	만화(웹툰)	82	13.4	39.0	12.2	35.4
	어문	5	20.0	0.0	0.0	80.0
	기타	225	20.0	26.2	12.4	41.3

2) 창작공간 소유형태

- 보유중인 예술활동 창작공간에서 거주공간과 분리된 개인 공간 또는 공동활동 공간으로 보유한 경우 (n=1,470) 창작공간에 대한 소유형태 조사결과, 월세 임대형태가 전체 5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자가소유가 17.7%, 무상임대가 9.4%, 전세임대가 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8] 예술창작공간 소유 형태 (단위 : %)



-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임대 형태인 경우 평균 공간의 크기는 21.9평 정도이며, 보증금은 평균 1,829만원, 월임대료가 있는 경우는 평균 53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인 월세 임대의 경우 평균 공간크기는 21.8평, 보증금은 평균 1,121만원, 월임대료는 평균 53.4만원으로 조사됨

[표 65] 임대형태별 공간크기 및 임대료 수준 (단위 : 평, 만원)

구 분	사례수	평균 공간크기(평)	평균 보증금(만원)	평균 월임대료(만원)
전 체	1470	21.9	1,829	53.0
임대 유형	전세	99	22.2	6,727
	반전세	18	21.2	3,628
	월세	832	21.8	1,121

3) 공동활동 공간 유형

○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이 공동활동 공간인 경우(n=507) 단체 공용 창작공간 유형이 전체 40.4%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 임대 공간이 3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9] 공동활동 공간 유형 (단위 : %)



○ 공동활동 공간 활용률이 높은 연극은 단체 공용 창작공간 유형이 전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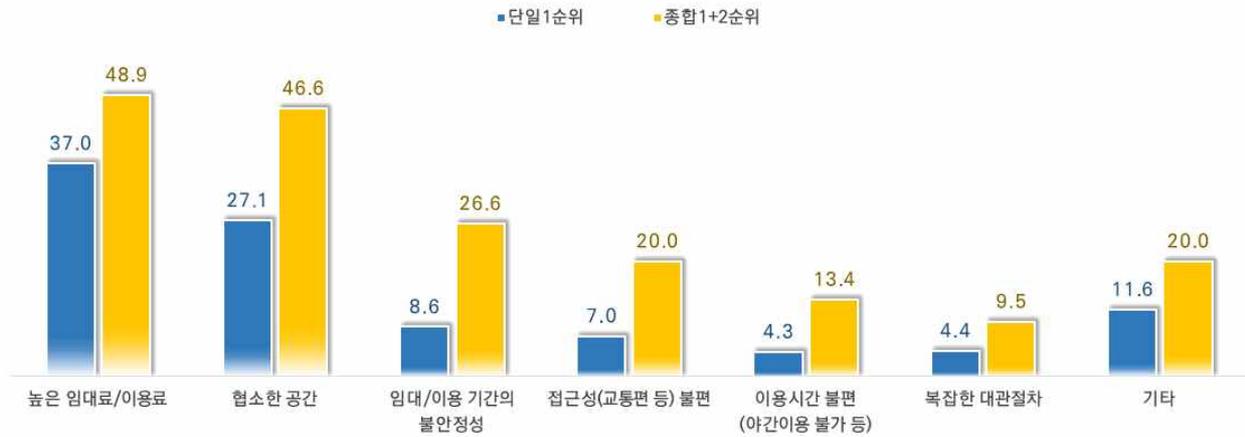
[표 66] 예술분야별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단체 공용 창작공간	공유 오피스	민간 임대 공간	공공임대공간	기타	
전 체	507	40.4	5.7	30.8	9.9	13.2	
예술 분야별	문학	24	29.2	12.5	25.0	8.3	25.0
	미술(디자인,공예)	127	37.0	7.1	37.0	6.3	12.6
	음악(양악,클래식)	99	41.4	3.0	30.3	14.1	11.1
	무용	38	36.8	2.6	28.9	7.9	23.7
	연극	79	50.6	3.8	27.8	7.6	10.1
	영화	21	33.3	14.3	23.8	9.5	19.0
	연예(대중음악,방송)	30	40.0	6.7	36.7	3.3	13.3
	국악	40	37.5	7.5	30.0	12.5	12.5
	사진	8	12.5	0.0	12.5	75.0	0.0
	건축	3	66.7	0.0	0.0	0.0	33.3
	만화(웹툰)	10	60.0	0.0	20.0	20.0	0.0
기타	28	46.4	7.1	32.1	3.6	10.7	

2. 현 예술활동 공간의 문제점

- 현재 이용하는 예술활동 공간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순위로 조사한 결과, 단일 1순위 응답과 종합 1+2 순위 응답 모두 높은 임대료/이용료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종합순위 기준 협소한 공간이 46.6%, 임대/이용 기간의 불안정성이 2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0] 현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단위 : %)



- 예술분야별 종합순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높은 임대료/이용료 문제에 대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무용(58.3%), 연예(56.4%), 연극(54.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협소한 공간이 문제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분야는 연예(53.3%), 문학(50.6%), 미술(49.9%), 만화(웹툰)(4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임대/이용 기간의 불안정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은 분야는 건축을 제외하고, 만화(웹툰)(39.6%), 연극(38.2%), 영화(35.9%), 사진(30.9%) 등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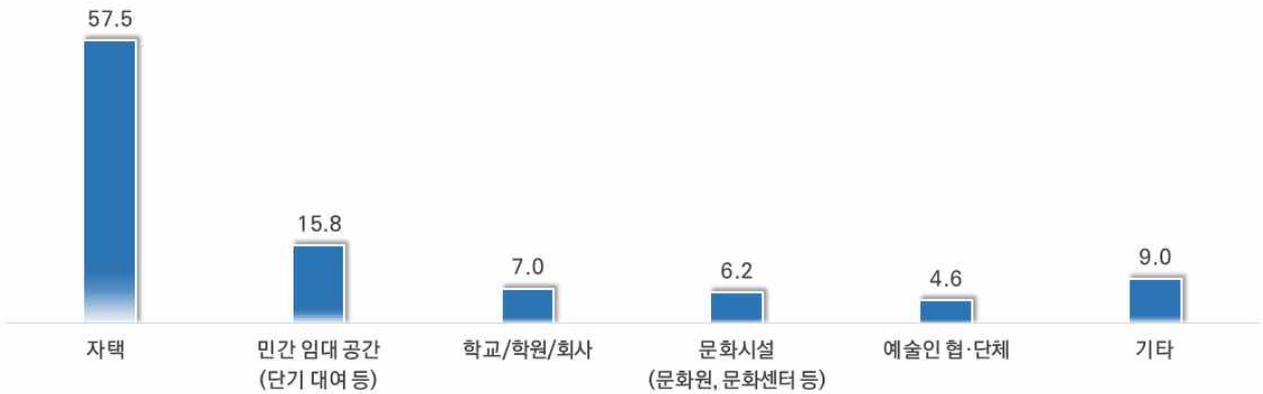
[표 67] 예술분야별 예술활동 공간의 문제점 (종합 1+2순위 분포) (단위 : %)

구분	사례수	높은 임대료/이용료	협소한 공간	임대/이용 기간의 불안정성	접근성 (교통편 등) 불편	이용시간 불편 (야간이용 불가 등)	복잡한 대관절차	기타	
전체	2,628	48.9	46.6	26.6	20.0	13.4	9.5	20.0	
예술 분야별	문학	344	34.0	50.6	16.3	21.8	16.0	10.8	32.0
	미술(디자인,공예)	979	52.6	49.9	29.1	20.9	8.3	8.7	16.9
	음악(양악,클래식)	385	49.4	43.6	21.0	17.1	21.3	11.2	17.9
	무용	72	58.3	33.3	23.6	18.1	15.3	6.9	22.2
	연극	165	54.5	37.0	38.2	21.8	9.7	9.1	18.8
	영화	78	39.7	39.7	35.9	32.1	14.1	14.1	11.5
	연예(대중음악,방송)	227	56.4	53.3	22.0	15.0	20.3	6.2	14.5
	국악	120	50.8	41.7	29.2	15.0	20.0	8.3	22.5
	사진	68	44.1	44.1	30.9	23.5	13.2	14.7	20.6
	건축	4	25.0	0.0	75.0	0.0	25.0	0.0	50.0
	만화(웹툰)	53	43.4	47.2	39.6	20.8	1.9	9.4	22.6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3. 주 창작활동 장소

○ 현재 창작공간이 없는 경우(n=1,568) 주 창작활동 장소로는 자택(생활공간에서 창작)이 전체 5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간 임대 공간(단기 대여 등)이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 주 창작활동 장소 (단위 : %)



○ 예술분야별로 대부분 자택의 비율이 높았으나, 특히 만화(웹툰)(96.6%), 사진(83.1%), 문학(82.6%) 분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연극과 무용 분야는 민간 임대 공간(단기 대여 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8] 예술분야별 예술활동 창작공간 보유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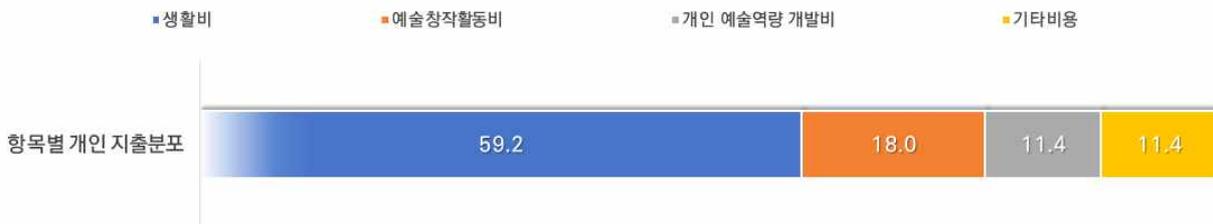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자택	민간 임대 공간 (단기대여등)	학교/학원/회사	문화시설 (문화원, 문화센터 등)	예술인 협·단체	기타	
전체	1,568	57.5	15.8	7.0	6.2	4.6	9.0	
예술 분야별	문학	305	82.6	3.3	1.6	2.3	2.0	8.2
	미술(디자인,공예)	226	73.0	6.2	6.2	6.6	0.9	7.1
	음악(양악,클래식)	240	44.2	17.1	9.2	11.7	6.7	11.3
	무용	73	11.0	37.0	23.3	9.6	8.2	11.0
	연극	220	32.7	44.5	5.5	5.0	7.7	4.5
	영화	109	65.1	11.0	11.0	1.8	0.9	10.1
	연예(대중음악,방송)	96	67.7	11.5	8.3	1.0	6.3	5.2
	국악	94	30.9	20.2	16.0	6.4	13.8	12.8
	사진	77	83.1	3.9	0.0	1.3	3.9	7.8
	건축	2	50.0	0.0	0.0	0.0	0.0	50.0
	만화(웹툰)	29	96.6	0.0	0.0	0.0	0.0	3.4
기타	4	50.0	0.0	0.0	25.0	0.0	25.0	

04 생활 및 근로복지

1. 개인 지출항목 비율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개인 지출비용의 합을 100%로 볼 때 지출 항목별 비율에 대한 평균분석 결과, 생활비가 전체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술창작활동비가 18.0%, 개인 예술역량 개발비가 11.4%, 기타비용이 11.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2] 항목별 개인 지출비율 (단위 : %)



- 성별로 생활비 비중은 남성(61.1%)이 여성(57.7%)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창작활동비는 비슷한 수준이나 개인 예술역량 개발비는 남성(10.5%)보다 여성(12.1%)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생활비 비중은 40대(6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는 61.5%, 60대 이상은 58.3%, 50대가 5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예술창작활동비와 개인 예술역량 개발비는 20대가 20.1%, 14.4%로 다른 연령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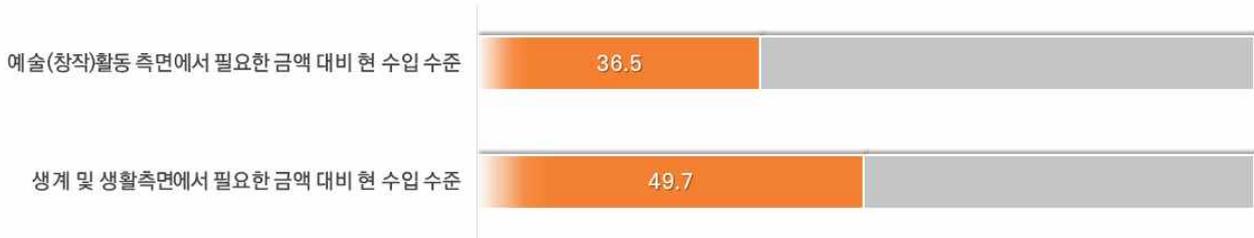
[표 69] 성 X 연령별 항목별 개인 지출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생활비	예술창작활동비	개인 예술역량 개발비	기타비용	
전체	3581	59.1	18.0	11.4	11.4	
성별	여성	2089	57.7	18.1	12.1	12.2
	남성	1492	61.1	18.0	10.5	10.3
연령별	20대	603	54.8	20.1	14.4	10.7
	30대	919	61.5	18.5	11.6	8.4
	40대	737	62.5	17.8	10.5	9.2
	50대	726	56.9	17.8	11.0	14.3
	60대 이상	596	58.3	15.9	9.9	15.9

2. 필요금액 대비 개인 수입수준

- 예술인 연평균 개인 수입을 기준으로 다음의 항목별 필요금액을 100이라 할 때 현재 수준에 대해 예술 창작 활동 측면에서 필요한 금액 대비 현재 수입 수준은 36.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생계 및 생활측면에서는 필요한 금액 대비 49.7%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43] 항목별 필요금액 대비 개인 수입수준 (단위 : %)



- 생계 및 생활측면의 필요금액 대비 현 수입수준에서는 남성(52.0%)보다 여성(48.1%)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필요금액 대비 현 수입수준(45.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50대(46.4%), 20대와 60대 이상(50.0%), 30대(55.3%) 순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에 필요한 금액 대비 현 수입수준에서도 남성(38.0%)보다 여성(35.4%)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필요금액 대비 현 수입수준(31.9%)이 가장 낮았으며 50대(34.3%), 40대(34.6%), 20대(38.5%), 30대(4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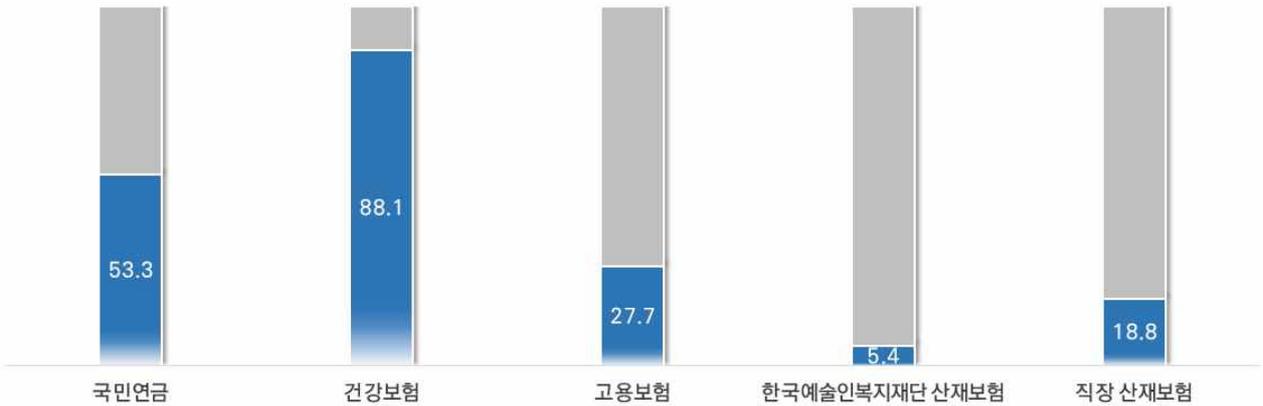
[표 70] 성 X 연령별 필요금액 대비 개인 수입수준 (단위 : %)

구분	사례수	생계 및 생활측면 필요금액 대비 현 수입수준	예술활동 필요금액 대비 현 수입수준
전체	3428	49.7	36.5
성별	여성	48.1	35.4
	남성	52.0	38.0
연령별	20대	50.0	38.5
	30대	55.3	41.2
	40대	45.5	34.6
	50대	46.4	34.3
	60대 이상	50.0	31.9

3. 4대 보험 가입현황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4대 보험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률은 88.1%로 가장 높았고, 다음 국민연금 가입률이 53.3%, 고용보험 가입률은 27.7%로 나타남
- 산재보험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산재보험과 직장 산재보험으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먼저 직장 산재보험 가입률은 18.8%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가입률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4] 4대 보험 가입여부 (단위 : %)



- 성별로 대부분 가입률이 높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여성(51.9%)보다 남성(55.3%)이 높고, 고용보험 역시 남성(29.5%)이 여성(2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직장 산재보험에서도 남성은 21.3%, 여성은 17.0%의 가입률을 보임
- 연령별로 건강보험은 40대의 가입률(93.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90.9%), 30대(88.3%), 60대 이상(85.6%), 20대(7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률은 50대가 6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57.0%), 60대 이상(51.9%), 30대(51.3%), 20대(40.3%) 순이었으며, 고용보험은 30대,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조사됨

[표 71] 성 X 연령별 4대 보험 가입률 (단위 : %)

구분	사례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직장 산재보험	
전체	3,559	53.3	88.1	27.7	5.4	18.8	
성별	여성	2,077	51.9	88.4	26.4	5.1	17.0
	남성	1,482	55.3	87.6	29.5	5.9	21.3
연령별	20대	601	40.3	79.2	31.8	10.1	20.6
	30대	911	51.3	88.8	32.6	8.1	19.6
	40대	733	57.0	93.7	30.8	4.1	19.0
	50대	722	64.3	90.9	25.2	2.5	20.9
	60대 이상	592	51.9	85.6	15.0	1.7	13.0

- 이를 예술분야별로 다시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진(63.6%), 문학(57.9%), 국악(57.7%) 등이었으며, 가장 낮은 가입률은 연극분야(44.8%)인 것으로 조사됨
- 건강보험 가입률은 영화(92.5%), 문학(92.1%), 사진(91.8%)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은 분야는 국악(40.0%), 무용(37.1%), 연극(36.5%) 등의 순이었고, 가입률이 낮은 분야는 사례수가 적은 건축을 제외하고 문학(21.1%), 미술(23.0%)분야 등인 것으로 조사됨
- 직장 산재보험을 기준으로 가입률이 높은 분야는 국악(28.6%), 사진(24.5%) 등이었으며, 가입률이 낮은 분야는 건축을 제외하고 만화(웹툰)(11.1%), 미술(14.8%), 영화(16.1%)분야 등으로 조사됨

[표 72] 예술분야별 4대 보험 가입률

(단위 : %)

구 분	사례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직장 산재보험	
전 체	3,559	53.3	88.1	27.7	5.4	18.8	
예술 분야별	문학	558	57.9	92.1	21.1	2.0	18.3
	미술(디자인,공예)	1,053	53.9	89.6	23.0	2.6	14.8
	음악(양악,클래식)	464	56.0	88.1	32.8	8.8	23.9
	무용	116	51.7	77.6	37.1	1.7	22.4
	연극	315	44.8	85.1	36.5	8.9	21.9
	영화	174	47.7	92.5	27.6	5.7	16.1
	연예(대중음악,방송)	305	47.5	88.5	28.2	8.5	18.0
	국악	175	57.7	82.3	40.0	13.7	28.6
	사진	110	63.6	91.8	31.8	5.5	24.5
	건축	6	50.0	66.7	16.7	0.0	0.0
만화(웹툰)	81	56.8	88.9	28.4	2.5	11.1	

4. 예술활동 고용형태

- 최근 1년간 예술활동 관련 고용 형태에 대해 프리랜서가 전체 4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기간제/계약직/임시직 형태가 16.0%,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가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5] 최근 1년간 예술인 고용형태 (단위 : %)



- 성별로 프리랜서의 비율은 남성(43.4%)보다 여성(49.1%)의 비율이 높았으며,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 형태는 여성(13.4%)보다 남성(17.1%)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프리랜서 비율은 20대가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51.4%, 40대가 47.0%, 60대 이상이 40.4%, 50대가 3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트타임/시간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5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73] 성 X 연령별 최근 1년간 예술인 고용형태 (단위 : %)

구분	사례수	프리랜서	기간제/계약직/임시직 등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	파트타임/시간제	정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기타	
전체	3,449	46.7	16.0	15.0	6.0	3.7	3.0	2.6	7.0	
성별	여성	2,002	49.1	15.9	13.4	7.1	2.8	1.9	2.7	7.0
	남성	1,447	43.4	16.2	17.1	4.4	5.0	4.4	2.5	7.0
연령별	20대	586	53.8	17.2	6.5	11.9	2.6	2.9	1.4	3.8
	30대	904	51.4	19.1	12.2	4.5	4.8	3.9	1.9	2.2
	40대	719	47.0	16.1	16.6	4.7	4.2	2.8	3.6	5.0
	50대	691	39.1	14.6	22.3	4.5	4.5	2.5	3.6	9.0
	60대 이상	549	40.4	11.1	17.5	5.5	1.6	2.6	2.7	18.6

5.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자격증 보유현황

-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보유율은 31.2%로 나타났고 이 때 평균 보유 갯수는 7.2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예술활동 관련 자격증 보유율은 25.8%로 저작권 보유율보다 낮았으며, 이 때 평균 보유 갯수는 약 1.7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자격증 보유현황 (단위 : %)



- 성별로 저작권 보유율은 남성이 33.8%, 여성이 29.3%로 여성보다 남성의 보유율이 높았으며, 평균 저작권 보유갯수도 남성이 8.5개 여성이 6.1개로 남성의 보유갯수가 더 많았음. 반면 자격증 보유율은 남성이 18.8%이고 여성이 30.8%로 여성의 보유율이 높았으며, 자격증 보유갯수도 여성은 1.8개 남성은 1.5개로 각각 조사됨
- 연령별로 저작권 보유율은 30대(35.5%)가 가장 높고, 50대(29.8%)가 가장 낮았으며, 평균 저작권 보유 갯수는 40대가 8.9개, 30대가 7.1개, 50대가 7.0개, 20대가 6.5개, 60대 이상이 6.0개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자격증 보유율은 50대(29.9%)가 가장 높고, 30대(19.2%)가 가장 낮았으며, 평균 자격증 보유 갯수는 40대와 50대가 각각 1.9개, 60대 이상이 1.7개, 30대가 1.6개, 20대가 1.3개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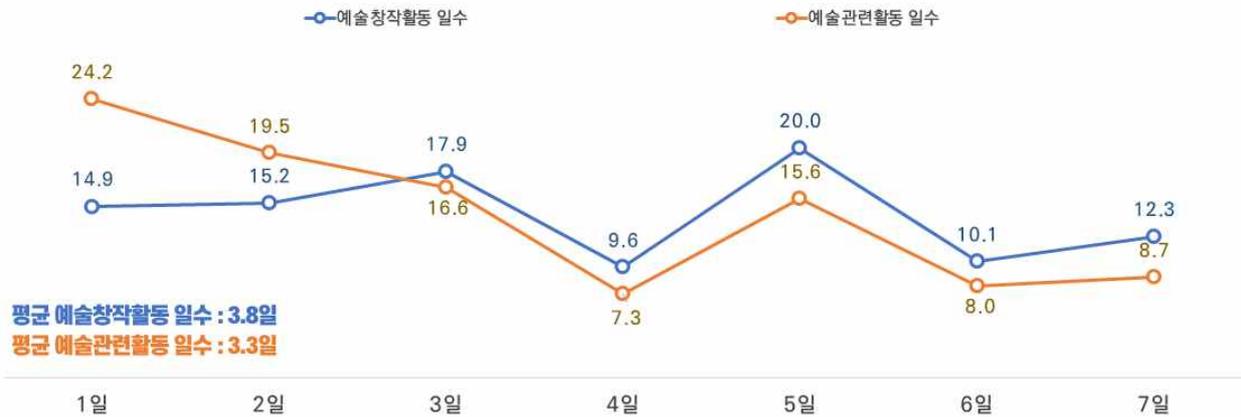
[표 74] 성 X 연령별 저작권 및 자격증 보유율과 평균 보유갯수 (단위 : %, 개)

구분	사례수	저작권		자격증		
		보유율(%)	보유갯수(개)	보유율(%)	보유갯수(개)	
전체	3,363	31.2	7.2	25.8	1.7	
성별	여성	1,956	29.3	6.1	30.8	1.8
	남성	1,407	33.8	8.5	18.8	1.5
연령별	20대	574	33.3	6.5	21.1	1.3
	30대	884	35.5	7.1	19.2	1.6
	40대	698	29.8	8.9	29.7	1.9
	50대	672	26.0	7.0	29.9	1.9
	60대 이상	535	30.1	6.0	31.6	1.7

6. 예술창작활동 및 예술관련활동 투입일수

- 조사에 참여에 경기도 예술인들이 일주일 기준 예술창작활동에 투입되는 일수는 평균 3.8일이고 예술관련활동에 투입되는 일수는 평균 3.3일인 것으로 나타남
- 투입일수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예술창작활동은 일주일에 평균 5일 투입되는 경우가 20.0%로 가장 많았으며, 3일 투입이 17.9%, 2일 투입이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예술관련활동은 일주일에 1일 투입되는 경우가 24.2%로 가장 많고, 2일 투입이 19.5%, 3일 투입이 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7] 예술창작활동 및 관련활동 주평균 투입일수 (단위 : %)



- 성별 일주일 기준 평균 예술창작활동 일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3.8일 정도를 투입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평균 4.1일, 40대가 평균 3.8일, 50대가 평균 3.7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5] 성 X 연령별 예술창작활동 투입일수 (단위 : %, 일)

구분	사례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평균 투입일수	
전체	3,199	14.9	15.2	17.9	9.6	20.0	10.1	12.3	3.8	
성별	여성	1,850	14.0	15.5	18.6	9.6	19.9	10.5	11.8	3.8
	남성	1,349	16.2	14.8	17.0	9.6	20.0	9.5	12.9	3.8
연령별	20대	528	12.3	13.4	20.3	8.0	18.4	10.8	16.9	4.1
	30대	851	13.5	11.9	16.0	11.9	21.4	11.4	14.0	4.1
	40대	659	17.0	15.5	15.5	9.9	20.8	10.6	10.8	3.8
	50대	648	15.0	18.5	18.4	8.0	20.2	9.7	10.2	3.7
	60대 이상	513	17.2	17.9	21.4	9.2	17.9	7.0	9.4	3.5

- 일주일 기준 평균 예술관련활동 일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3.3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 20대가 3.6일, 30대가 3.5일, 40대가 3.2일, 50대가 3.1일, 60대 이상이 평균 2.8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입일수가 적어지는 형태를 보임

[표 76] 성 X 연령별 예술관련활동 투입일수

(단위 : %, 일)

구 분	사례수	투입안함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평균 투입일수	
전 체	2,680	0.1	24.2	19.5	16.6	7.3	15.6	8.0	8.7	3.3	
성별	여성	1,569	0.1	23.3	20.3	16.2	7.8	15.8	8.5	8.0	3.3
	남성	1,111	0.2	25.5	18.5	17.1	6.5	15.2	7.3	9.8	3.3
연령별	20대	446	0.2	20.4	15.9	17.7	7.2	15.7	8.3	14.6	3.6
	30대	716	0.1	20.7	18.3	16.2	7.4	17.5	9.6	10.2	3.5
	40대	578	0.0	26.8	16.6	15.6	9.7	15.6	9.3	6.4	3.2
	50대	538	0.2	24.7	23.2	16.2	6.1	15.4	6.7	7.4	3.1
	60대 이상	402	0.0	30.3	24.9	17.9	5.2	12.2	4.7	4.7	2.8

- 여기에서 예술분야별 예술창작활동 평균 투입일수를 분석한 결과, 사례수가 적은 어문을 제외하고 가장 투입일수가 많은 분야는 만화(웹툰)로 평균 5.4일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술과 영화 분야가 4.0일, 연극과 문학이 3.9일, 연예가 3.8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7] 예술분야별 예술창작활동 투입일수

(단위 : %, 일)

구 분	사례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평균 투입일수	
전 체	3,199	14.9	15.2	17.9	9.6	20.0	10.1	12.3	3.8	
예술 분야별	문학	524	16.0	13.7	17.7	8.2	19.7	8.0	16.6	3.9
	미술(디자인,공예)	1,000	11.1	13.0	19.2	11.7	22.1	11.7	11.2	4.0
	음악(양악,클래식)	384	19.0	19.3	16.9	6.8	16.4	7.3	14.3	3.6
	무용	93	14.0	19.4	30.1	9.7	17.2	3.2	6.5	3.3
	연극	281	13.2	15.3	17.4	10.7	21.4	13.5	8.5	3.9
	영화	153	13.7	11.1	21.6	5.9	24.8	8.5	14.4	4.0
	연예(대중음악,방송)	274	17.5	17.2	15.3	9.1	17.5	9.9	13.5	3.8
	국악	146	22.6	20.5	19.9	8.9	19.9	2.7	5.5	3.1
	사진	101	37.6	20.8	11.9	7.9	15.8	3.0	3.0	2.6
	건축	4	0.0	50.0	0.0	25.0	0.0	25.0	0.0	3.5
만화(웹툰)	81	2.5	3.7	9.9	4.9	18.5	33.3	27.2	5.4	

7.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예술활동 시 표준계약서 활용여부에 대해 비교적 표준계약서로 체결한다는 응답이 전체 37.8%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5%,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체결한다는 응답은 20.4%, 표준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로 체결한다는 응답이 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체 58.2%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 성별로 여성과 남성의 응답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31.0%)에 비해 남성(34.6%)의 경우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비율은 30대가 가장 많고, 다음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남.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53.6%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표 78] 성 X 연령별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교적 표준계약서로 체결하는 편	계약서 체결하지 않음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체결	표준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로 체결	
전체	3,425	37.8	32.5	20.4	9.4	
성별	여성	1,990	37.6	31.0	22.1	9.3
	남성	1,435	37.9	34.6	18.0	9.5
연령별	20대	582	40.7	28.5	22.5	8.2
	30대	898	46.5	22.7	19.9	10.8
	40대	716	40.9	26.8	21.8	10.5
	50대	690	32.9	37.8	20.1	9.1
	60대 이상	539	21.9	53.6	17.4	7.1

- 예술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살펴보면, 비교적 표준계약서로 체결하거나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체결한다는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연극분야가 76.1%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국악이 73.1%, 영화가 68.2%, 무용이 58.5%, 미술이 5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진(59.8%), 연예(40.9%), 음악(36.5%), 문학(35.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79] 예술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교적 표준계약서로 체결하는 편	계약서 체결하지 않음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체결	표준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로 체결
전 체		3,425	37.8	32.5	20.4	9.4
예술 분야별	문학	542	28.8	35.8	27.1	8.3
	미술(디자인,공예)	1,022	39.5	33.6	17.3	9.6
	음악(양악,클래식)	445	36.4	36.6	18.9	8.1
	무용	106	37.7	30.2	20.8	11.3
	연극	310	49.4	17.1	26.8	6.8
	영화	173	45.7	17.9	22.5	13.9
	연예(대중음악,방송)	301	35.2	40.9	16.3	7.6
	국악	160	50.6	25.0	22.5	1.9
	사진	107	24.3	59.8	7.5	8.4
	건축	4	0.0	0.0	25.0	75.0
만화(웹툰)	81	42.0	12.3	14.8	30.9	

8.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현황

1) 불공정 거래 및 계약피해 경험 및 횟수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12.8%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때 평균 피해경험은 2.2회 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49]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현황 (단위 : %)



- 성별로는 남성(12.5%)보다 여성(13.1%)의 피해경험이 조금 더 많았으나, 피해 횟수는 남성이 평균 2.3회, 여성이 2.1회로 남성의 피해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피해경험률은 30대가 18.7%로 가장 많고, 다음 40대가 13.7%, 20대가 15.6%, 50대가 8.3%, 60대 이상이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피해횟수는 30대가 2.4회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2.3회, 40대가 2.2회, 20대가 2.1회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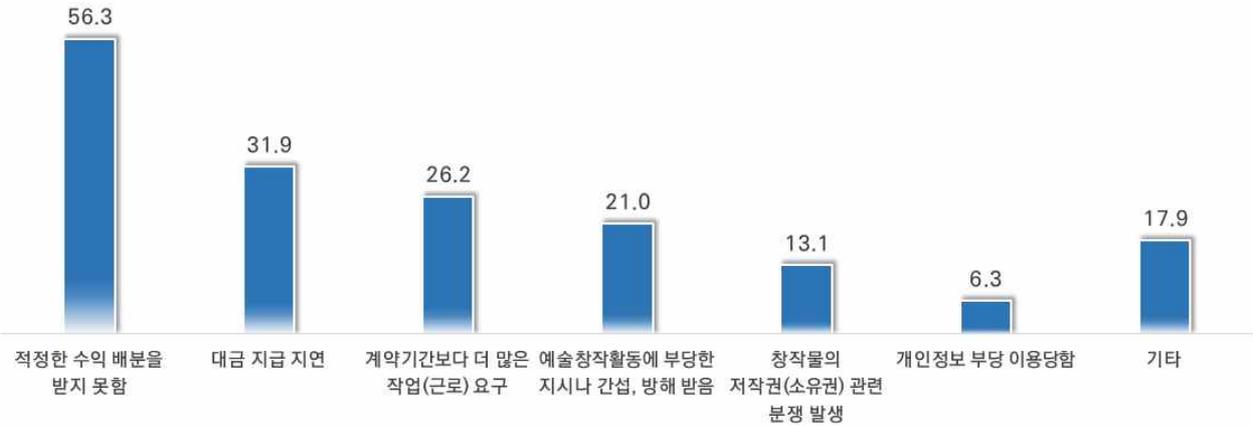
[표 80] 성 X 연령별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경험 및 횟수 (단위 : %, 회)

구분	사례수	있음 (%)	없음 (%)	평균 피해경험 횟수(회)	
전체	3,441	12.8	87.2	2.2	
성별	여성	1,998	13.1	86.9	2.1
	남성	1,443	12.5	87.5	2.3
연령별	20대	585	15.6	84.4	2.1
	30대	897	18.7	81.3	2.4
	40대	717	13.7	86.3	2.2
	50대	695	8.3	91.7	1.8
	60대 이상	547	4.9	95.1	2.3

2) 불공정 거래 및 계약피해 유형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n=442) 피해 유형으로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한 피해가 전체 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금 지급 지연이 31.9%, 계약기간보다 더 많은 작업(근로) 요구가 2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0]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유형 (단위 : %)



- 성별로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한 비해서는 여성(55.3%)보다 남성(57.8%)의 경우가 더 많았으며, 대금 지급 지연 역시 여성(30.5%)보다 남성(33.9%)의 비율이 높았음. 이러한 금전적 피해보다 추가 작업 요구나 부당한 지시 및 방해 등과 같은 비금전적 피해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한 피해는 20대가 63.7%로 가장 많고, 30대가 60.1%, 60대 이상이 51.9%, 50대가 5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금 지급 지연 피해는 30대가 36.9%, 20대가 34.1%, 40대가 31.6%로 금전적 피해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81] 성 X 연령별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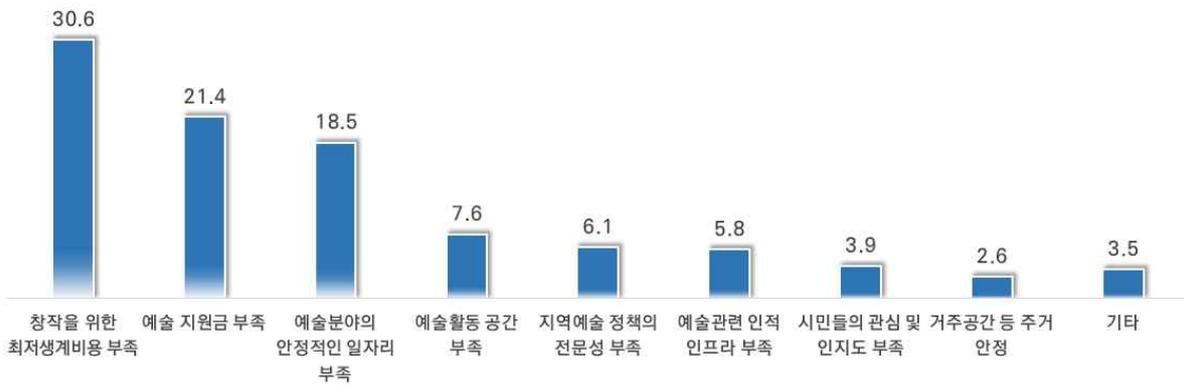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함	대금 지급 지연	계약기간보다 더 많은 작업(근로) 요구	예술창작활동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방해 받음	창작물의 저작권(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개인정보 부당 이용당함	기타	
전체	442	56.3	31.9	26.2	21.0	13.1	6.3	17.9	
성별	여성	262	55.3	30.5	27.5	22.9	11.1	6.9	19.5
	남성	180	57.8	33.9	24.4	18.3	16.1	5.6	15.6
연령별	20대	91	63.7	34.1	33.0	14.3	15.4	6.6	9.9
	30대	168	60.1	36.9	31.0	25.0	10.1	7.1	19.0
	40대	98	48.0	31.6	22.4	23.5	12.2	4.1	21.4
	50대	58	50.0	20.7	13.8	20.7	22.4	8.6	17.2
	60대 이상	27	51.9	18.5	14.8	11.1	7.4	3.7	25.9

05 경기도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1. 경기도 예술활동 시 어려움

- 예술활동 시 어려움으로 창작을 위한 최저생계비용 부족이 전체 3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술 지원금 부족이 21.4%, 예술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이 18.5%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51] 경기도 내 예술활동 시 어려움 (단위 : %)



- 성별로 창작을 위한 최저 생계비용 부족의 어려움은 여성(27.9%)보다 남성(34.3%)의 응답비율이 높았던 반면, 예술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은 남성(14.3%)보다 여성(21.4%)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창작을 위한 최저 생계비용 부족에 대한 응답비율은 20대가 32.6%로 가장 높고, 다음 40대, 50대, 3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예술 지원금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60대 이상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조사됨

[표 82] 성 X 연령별 경기도 내 예술활동 시 어려움 (단위 : %)

구분	사례수	창작을 위한 최저생계비용 부족	예술 지원금 부족	예술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예술활동 공간 부족	지역예술 정책의 전문성 부족	예술관련 인적 인프라 부족	시민들의 관심 및 인지도 부족	거주공간 등 주거 안정	기타	
전체	3,447	30.6	21.4	18.5	7.6	6.1	5.8	3.9	2.6	3.5	
성별	여성	2,005	27.9	19.7	21.4	9.1	5.9	6.1	3.7	2.2	3.9
	남성	1,442	34.3	23.9	14.3	5.6	6.4	5.5	4.1	3.1	2.9
연령별	20대	589	32.6	17.5	20.9	8.3	2.4	8.8	3.9	1.9	3.7
	30대	896	29.0	19.6	19.4	6.5	5.9	7.8	3.8	3.0	4.9
	40대	716	31.8	19.6	18.9	6.6	7.5	5.6	2.8	3.8	3.5
	50대	699	31.0	21.6	18.6	9.6	8.3	3.0	4.0	2.4	1.4
	60대 이상	547	28.7	30.9	13.5	7.7	5.7	3.3	5.3	1.5	3.5

2. 경기도 예술활동 공간 수준

1) 예술 창작공간 보유 수준

- 경기도 내 예술 창작공간 보유 수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는 의견이 전체 70.6%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31.5%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충분하다는 비율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52] 경기도 내 창작공간 보유수준 (단위 : %)



2) 예술 발표공간 보유 수준

- 경기도 내 예술 발표공간 보유 수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는 의견이 전체 67.9%로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28.0%로 나타남
- 반면, 충분하다는 비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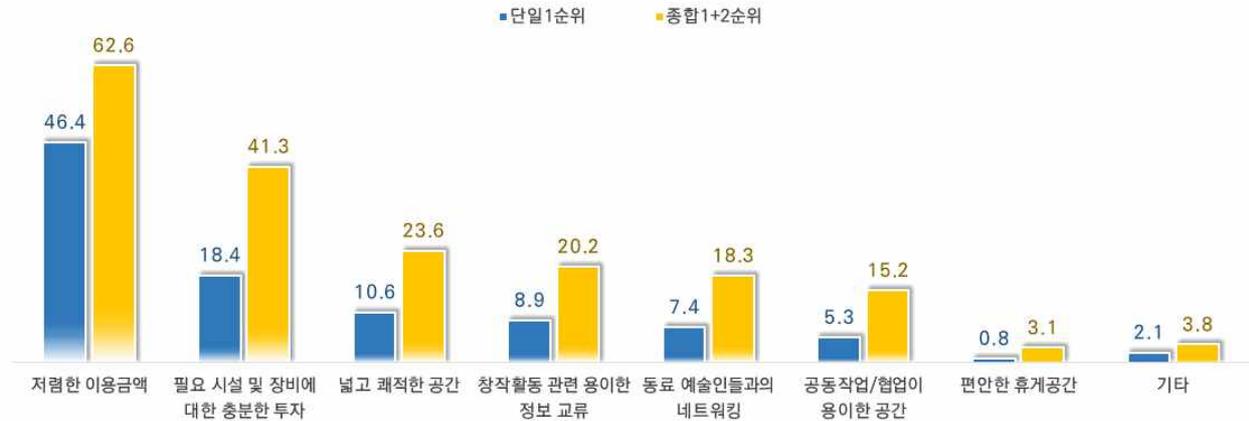
[그림 53] 경기도 내 발표공간 보유수준 (단위 : %)



3. 경기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 시 고려사항

-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단일 1순위와 종합순위(1+2) 모두 저렴한 이용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순위 분석 기준으로 저렴한 이용금액이 62.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41.3%, 넓고 쾌적한 공간이 2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4] 경기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 시 우선 고려사항 (단위 : %)



- 종합순위를 기준으로 저렴한 이용금액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는 여성보다 남성의 응답비율이 높고, 넓고 쾌적한 공간과 창작활동 관련 정보교류 등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저렴한 이용금액에 대한 응답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졌으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는 20대와 40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83] 성 X 연령별 경기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 시 우선 고려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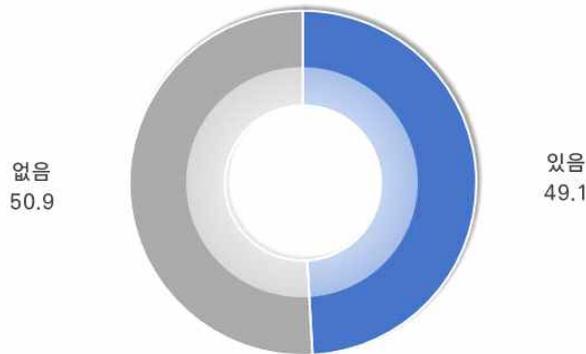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저렴한 이용금액	필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	넓고 쾌적한 공간	창작활동 관련 용이한 정보 교류	동료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킹	공동작업/협업이 용이한 공간	편안한 휴게공간	기타	
전체	3,438	62.6	41.3	23.6	20.2	18.3	15.2	3.1	3.8	
성별	여성	1,994	62.0	40.1	24.2	21.9	17.7	16.5	2.5	3.9
	남성	1,444	63.4	42.9	22.7	17.9	19.1	13.4	3.9	3.6
연령별	20대	590	66.6	44.4	26.3	15.9	18.8	15.9	2.5	2.9
	30대	896	66.5	41.2	27.2	16.9	19.5	15.6	1.6	5.4
	40대	714	63.9	44.1	25.5	20.0	15.5	14.8	2.7	4.2
	50대	692	62.3	40.9	18.4	22.1	15.3	15.2	3.3	2.5
	60대 이상	546	50.5	35.0	18.7	28.2	23.1	14.1	6.4	3.3

4.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지원수혜 현황

1) 예술활동 지원수혜 경험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인 중 49.1%는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략 절반 정도의 예술인이 지원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됨

[그림 55]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지원수혜 경험 (단위 : %)



- 성별로는 남성의 지원수혜율이 51.0%로 여성(4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61.0%로 가장 수혜경험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가 50.1, 40대가 47.8%, 50대가 42.9%, 60대 이상이 3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84] 성 X 연령별 예술활동 지원수혜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437	49.1	50.9	
성별	여성	1,991	47.8	52.2
	남성	1,446	51.0	49.0
연령별	20대	587	50.1	49.9
	30대	896	61.0	39.0
	40대	715	47.8	52.2
	50대	693	42.9	57.1
	60대 이상	546	38.1	61.9

2) 예술활동 지원수혜 횟수 및 지원금 수준

- 예술활동 지원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n=1,591) 3년간 지원받은 횟수는 평균 2.0회 정도로 이를 연단위로 계산하면 1년에 1회 미만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풀이됨
- 또한 1회 평균 지원금은 약 432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지원 횟수는 1.9회, 여성은 2.1회로 여성의 지원횟수는 더 많았으나, 1회 평균 지원금은 남성이 441만원 여성이 426만원으로 남성의 지원금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6]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수혜 횟수 (단위 : 회)



- 연령별로 지원 횟수는 50대가 평균 2.3회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2회, 30대가 2.0회, 20대가 1.5회로 나타남.

- 연령별 1회 평균 지원금의 경우 50대가 평균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462만원, 30대가 440만원, 60대 이상이 418만원 20대가 327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57] 최근 3년간 평균 지원금 수준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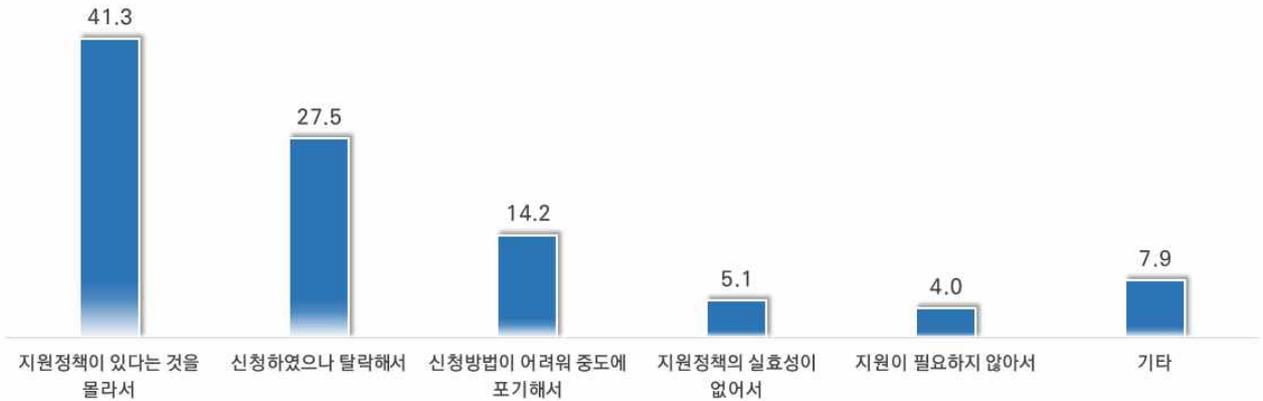
[표 85] 성 X 연령별 지원횟수 및 지원금 수준 (단위 : 회, 만원)

구분	사례수	3년간 평균 지원받은 횟수 (회)	1회 평균 지원금 (만원)
전체	1,591	2.0	432
성별	여성	897	2.1
	남성	694	1.9
연령별	20대	279	1.5
	30대	523	2.0
	40대	321	2.2
	50대	274	2.3
	60대 이상	194	2.2

3) 예술활동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 앞서 예술활동 지원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n=1,749) 가장 큰 이유로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41.3%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청하였으나 탈락해서가 27.5%, 신청방법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해서가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8] 예술활동 지원수혜를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



- 성별로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의 응답인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더 높아 여성 예술인들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의 응답비율은 20대가 49.5%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이 42.9%, 50대가 41.2%로 나타나 젊은 예술인과 고연령 예술인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표 86] 성 X 연령별 예술활동 지원수혜를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

구분	사례수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하였으나 탈락해서	신청방법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해서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타	
전체	1749	41.3	27.5	14.2	5.1	4.0	7.9	
성별	여성	1040	43.9	26.4	14.2	3.8	3.5	8.1
	남성	709	37.5	29.1	14.1	6.9	4.8	7.6
연령별	20대	293	49.5	26.6	7.8	3.8	3.8	8.5
	30대	349	37.2	35.8	10.3	4.0	4.3	8.3
	40대	373	37.5	29.8	14.2	5.6	4.3	8.6
	50대	396	41.2	24.2	17.9	6.1	4.0	6.6
	60대 이상	338	42.9	21.0	19.2	5.6	3.6	7.7

5. 경기도 추진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총 6가지 내용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모두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과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서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술활동 인프라 수준과 예술활동 발표 기회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59] 경기도 추진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 %)



[표 87] 예술 창작지원이 많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적(1+2)	보통(3)	긍정적(4+5)	
전체	3,485	58.2	33.8	8.0	
성별	여성	2,021	58.2	33.1	8.8
	남성	1,464	58.2	34.9	6.9
연령별	20대	594	56.9	32.5	10.6
	30대	898	58.4	31.2	10.5
	40대	720	58.1	35.0	6.9
	50대	699	55.5	37.6	6.9
	60대 이상	574	62.7	33.3	4.0

[표 88]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적(1+2)	보통(3)	긍정적(4+5)	
전체	3,485	57.9	35.3	6.7	
성별	여성	2,021	57.7	34.6	7.7
	남성	1,464	58.3	36.3	5.5
연령별	20대	594	54.7	34.3	10.9
	30대	898	62.4	30.5	7.1
	40대	720	61.8	33.1	5.1
	50대	699	51.8	42.5	5.7
	60대 이상	574	57.0	38.0	5.1

[표 89]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적(1+2)	보통(3)	긍정적(4+5)	
전체	3,485	62.3	33.1	4.6	
성별	여성	2,021	62.1	33.2	4.7
	남성	1,464	62.6	32.9	4.6
연령별	20대	594	60.1	32.0	7.9
	30대	898	66.7	29.2	4.1
	40대	720	65.0	31.3	3.8
	50대	699	57.9	37.6	4.4
	60대 이상	574	59.6	36.9	3.5

[표 90] 예술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짐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적(1+2)	보통(3)	긍정적(4+5)	
전체	3,485	63.2	31.0	5.8	
성별	여성	2,021	64.2	29.9	5.9
	남성	1,464	61.7	32.6	5.7
연령별	20대	594	63.8	28.6	7.6
	30대	898	67.3	27.2	5.6
	40대	720	67.9	27.1	5.0
	50대	699	57.1	36.9	6.0
	60대 이상	574	57.5	37.3	5.2

[표 91]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이 좋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적(1+2)	보통(3)	긍정적(4+5)	
전체	3,485	66.6	28.7	4.8	
성별	여성	2,021	67.3	27.7	5.0
	남성	1,464	65.6	30.0	4.4
연령별	20대	594	69.7	23.2	7.1
	30대	898	74.8	21.7	3.5
	40대	720	69.6	26.0	4.4
	50대	699	56.9	38.2	4.9
	60대 이상	574	58.4	36.9	4.7

[표 92] 예술활동 정보교류가 활발함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적(1+2)	보통(3)	긍정적(4+5)	
전체	3,485	66.4	29.3	4.3	
성별	여성	2,021	66.4	29.0	4.6
	남성	1,464	66.4	29.6	4.0
연령별	20대	594	69.0	25.3	5.7
	30대	898	73.4	23.5	3.1
	40대	720	70.0	25.4	4.6
	50대	699	56.1	39.2	4.7
	60대 이상	574	60.8	35.2	4.0

06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변화

1. 코로나19의 예술활동 영향도

1) 예술활동 유형별 영향수준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인들이 느끼는 코로나19가 예술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예술관련 활동의 축소비율이 80.9%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술활동 수입의 축소비율이 77.4%, 예술창작 활동 축소비율이 76.9% 등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예출창작활동, 관련활동, 예술활동 수입 모든 면에서 축소시키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0]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영향수준 (단위 : %)



- 예술창작활동의 경우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여성(75.2%)보다 남성(79.4%)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 별로는 40대가 8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80.4%, 60대 이상이 76.8%, 30대가 76.4%, 20대가 6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93]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영향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축소(1+2)	변화없음(3)	증가(4+5)	
전 체	3,483	76.9	16.9	6.1	
성별	여성	2,020	75.2	18.0	6.8
	남성	1,463	79.4	15.4	5.2
연령별	20대	594	66.3	19.9	13.8
	30대	898	76.4	17.3	6.3
	40대	720	83.2	13.2	3.6
	50대	698	80.4	14.8	4.9
	60대 이상	573	76.8	20.8	2.4

[표 94]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관련활동 영향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축소(1+2)	변화없음(3)	증가(4+5)	
전 체	3,483	80.9	15.1	4.0	
성별	여성	2,020	80.3	14.9	4.8
	남성	1,463	81.6	15.4	2.9
연령별	20대	594	70.2	20.7	9.1
	30대	898	81.3	14.7	4.0
	40대	720	84.4	12.4	3.2
	50대	698	85.0	12.2	2.9
	60대 이상	573	81.8	16.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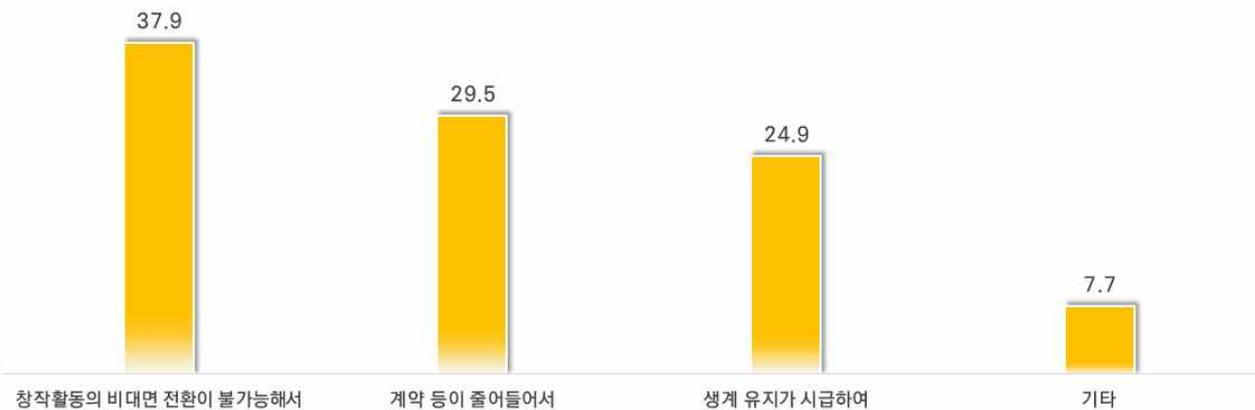
[표 95]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수입 영향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축소(1+2)	변화없음(3)	증가(4+5)	
전 체	3,483	77.4	17.9	4.7	
성별	여성	2,020	75.6	18.9	5.5
	남성	1,463	80.0	16.6	3.4
연령별	20대	594	67.0	23.1	9.9
	30대	898	77.4	16.9	5.7
	40대	720	81.4	15.6	3.1
	50대	698	82.5	14.5	3.0
	60대 이상	573	77.1	21.3	1.6

2) 예술창작활동 축소 및 증가 이유

-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 활동 영향수준에서 축소되었다고 응답한 경우(n=2,680) 그 이유에 대해 창작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해서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계약 등이 줄어서가 29.5%, 생계 유지가 시급해서가 2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1]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축소 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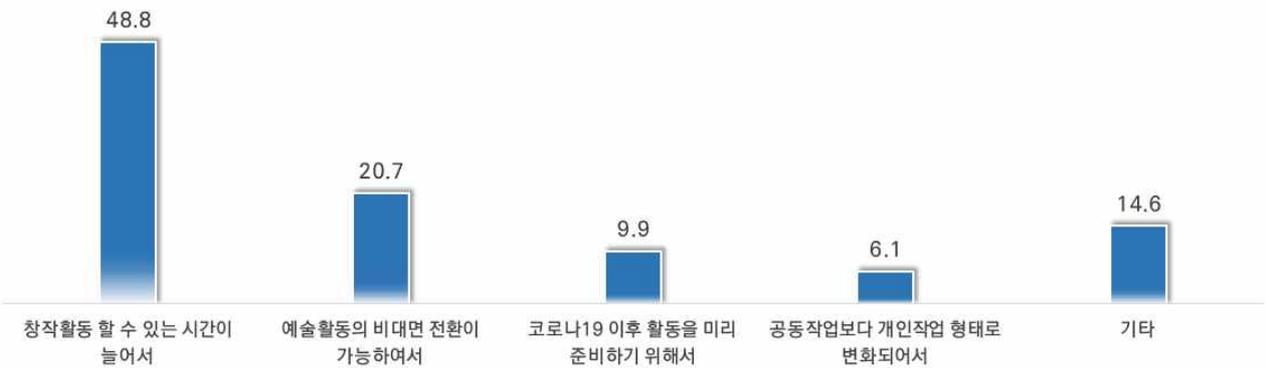


[표 96] 성 X 연령별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축소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창작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해서	계약 등이 줄어들어서	생계 유지가 시급하여	기타	
전 체	2,680	37.9	29.5	24.9	7.7	
성별	여성	1,519	37.7	30.2	23.2	8.9
	남성	1,161	38.1	28.7	27.0	6.2
연령별	20대	394	35.5	26.9	29.9	7.6
	30대	686	26.7	38.0	27.4	7.9
	40대	599	33.1	34.4	24.0	8.5
	50대	561	46.0	25.1	23.0	5.9
	60대 이상	440	53.6	17.5	20.0	8.9

○ 반면, 일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 활동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n=213) 그 이유에 대해 창작 활동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가능해서가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증가 시 이유 (단위 : %)



[표 97] 성 X 연령별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증가 이유 (단위 : %)

구 분	사례수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예술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가능하여서	코로나19 이후 활동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공동작업보다 개인작업 형태로 변화되어서	기타	
전 체	213	48.8	20.7	9.9	6.1	14.6	
성별	여성	137	47.4	21.9	10.2	5.1	15.3
	남성	76	51.3	18.4	9.2	7.9	13.2
연령별	20대	82	40.2	34.1	7.3	8.5	9.8
	30대	57	56.1	14.0	12.3	1.8	15.8
	40대	26	46.2	15.4	15.4	15.4	7.7
	50대	34	52.9	8.8	8.8	0.0	29.4
	60대 이상	14	64.3	7.1	7.1	7.1	14.3

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환경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환경의 달라진 점에 대해 비대면 예술활동의 증가가 전체 6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협업 활동 축소, 개인 예술작업 증가가 17.8%, 기술 융합 예술활동 확대가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3]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예술창작 환경 변화 (단위 : %)



- 성별에 따른 예술창작 환경 변화 응답분포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비대면 예술활동 증가의 응답비율이 30대가 7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예술작업 증가에 대한 의견은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 98] 성 X 연령별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환경 변화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대면 예술활동 증가	협업 활동 축소, 개인 예술작업 증가	기술 융합 예술활동의 확대	과정 중심의 예술작업	기타	
전체	3,367	67.4	17.8	7.8	2.8	4.2	
성별	여성	1,952	67.9	16.4	8.6	2.7	4.4
	남성	1,415	66.6	19.8	6.6	2.9	4.1
연령별	20대	580	66.4	19.5	7.1	3.6	3.4
	30대	890	71.6	14.0	8.0	2.2	4.2
	40대	702	66.8	14.8	10.8	2.7	4.8
	50대	666	65.2	21.5	7.4	2.6	3.5
	60대 이상	529	65.0	21.7	4.5	3.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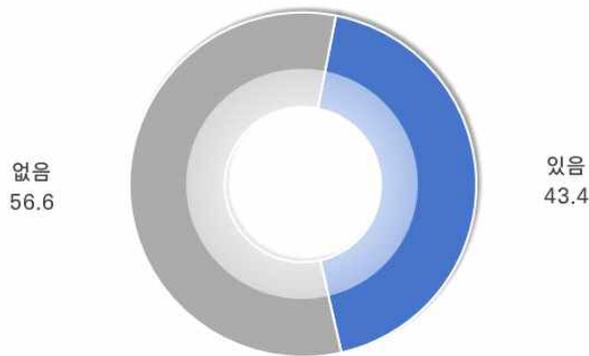
07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및 정책

1.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현황

1)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43.4%로 나타났고 신청 경험이 없는 경우가 56.6%로 조사됨

[그림 64]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단위 : %)



- 성별 신청 경험은 남성(44.3%)이 여성(42.7%)보다 조금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신청경험이 48.5%로 가장 많고, 다음 50대가 45.7%, 40대가 44.6%, 60대 이상이 38.7%, 20대가 3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99] 성 X 연령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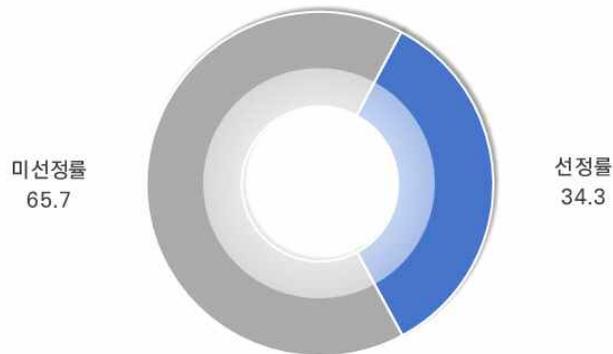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380	43.4	56.6
성별	여성	42.7	57.3
	남성	44.3	55.7
연령별	20대	35.5	64.5
	30대	48.5	51.5
	40대	44.6	55.4
	50대	45.7	54.3
	60대 이상	38.7	61.3

2) 공모지원사업 신청횟수 및 선정횟수

-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n=1,466) 평균 신청횟수는 3.3회 정도이고, 이중 선정된 횟수는 평균 1.0회로 조사됨.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평균 선정률은 약 34.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65]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선정률

(단위 : %)



- 성별로는 남성(30.9%)보다 여성(36.9%)의 평균 선정률이 높았으며, 여성은 3.1회 신청에서 평균 1회 선정되었고 남성은 평균 3.6회 신청에 1회 정도 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선정률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40.7%)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대(37.8%), 50대(30.8%), 40대(30.4%), 60대 이상(28.9%) 등의 순으로 조사됨. 평균 신청횟수가 가장 많은 연령은 40대로 4회 정도이고 다음 50대가 3.7회, 60대 이상이 3.4회 순이었으며, 평균 선정횟수는 40대가 1.2회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표 100] 성 X 연령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횟수 및 선정횟수, 선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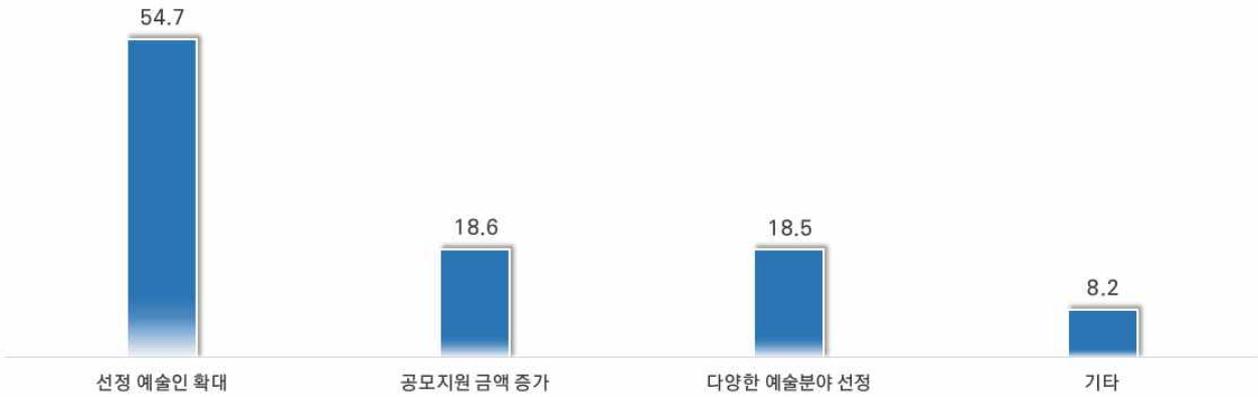
(단위 : 회, %)

구분	사례수	평균 신청횟수(회)	평균 선정횟수(회)	평균 선정률(%)	
전체	1,466	3.3	1.0	34.3	
성별	여성	834	3.1	1.0	36.9
	남성	632	3.6	1.0	30.9
연령별	20대	206	2.1	0.7	37.8
	30대	432	3.0	1.0	40.7
	40대	315	4.0	1.2	30.4
	50대	307	3.7	1.0	30.8
	60대 이상	206	3.4	1.0	28.9

2.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선정 예술인의 확대가 전체 5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공모지원 금액 증가가 18.6%, 다양한 예술분야 선정이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6]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제도적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 %)



- 성별로 선정 예술인 확대는 남성과 여성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성의 응답비율이 조금 더 많았으며, 공모지원 금액 증가에 대한 응답비율은 여성(16.8%)보다 남성(21.1%)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선정 예술인 확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였으며, 공모지원 금액 증가는 30대(21.8%)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양한 예술분야 선정에 대한 응답비율은 20대(20.8%)와 40대(20.0%)가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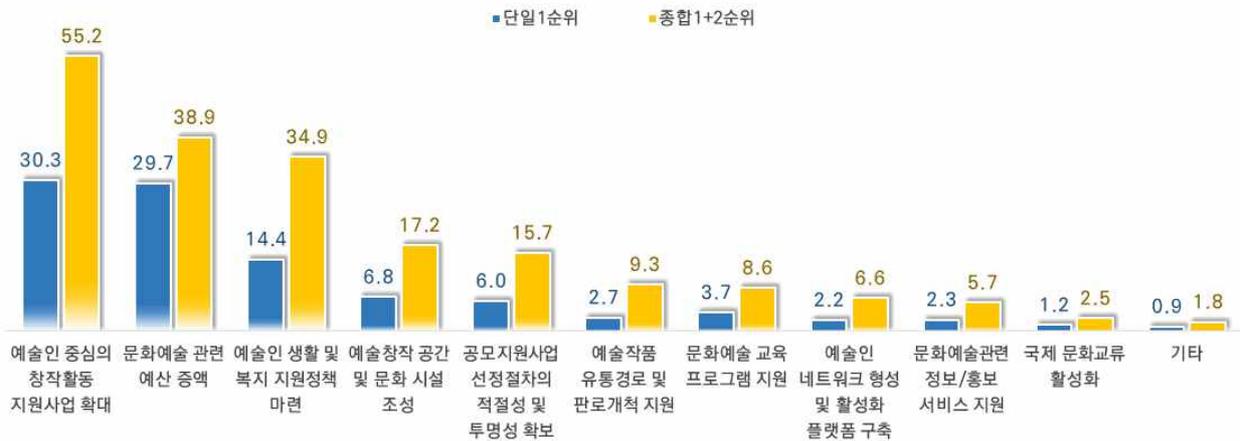
[표 101] 성 X 연령별 공모지원사업 제도적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 %)

구분	사례수	선정 예술인 확대	공모지원 금액 증가	다양한 예술분야 선정	기타	
전체	3,367	54.7	18.6	18.5	8.2	
성별	여성	1,947	55.5	16.8	19.9	7.8
	남성	1,420	53.7	21.1	16.5	8.7
연령별	20대	581	54.6	17.7	20.8	6.9
	30대	889	52.3	21.8	17.2	8.7
	40대	704	53.8	17.6	20.0	8.5
	50대	666	56.8	17.3	19.1	6.9
	60대 이상	527	57.5	17.3	15.2	10.1

3. 경기문화재단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결과 단일 1순위와 종합 1+2순위 결과 모두 예술인 중심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확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종합1+2순위 결과를 기준으로 예술인 중심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는 전체 55.2%로 나타났고, 문화예술관련 예산 증액은 38.9%, 예술인 생활 및 복지 지원정책 마련은 3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7] 경기문화재단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단위 : %)



- 가장 많은 응답분포를 보인 예술인 중심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 의견을 제외하고 성별로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의 응답비율이 10%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102] 성 X 연령별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술인 중심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	예술인 생활 및 복지 지원정책 마련	예술창작 공간 및 문화 시설 조성	공모지원 사업 선정절차의 적절성 및 투명성 확보	예술작품 유통경로 및 판로개척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 관련 정보/홍보 서비스 지원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기타	
전체	3,373	55.2	38.9	34.9	17.2	15.7	9.3	8.6	6.6	5.7	2.5	1.8	
성별	여성	1,947	54.5	34.9	34.7	18.8	16.5	10.0	10.3	7.4	6.4	2.4	1.4
	남성	1,426	56.2	44.3	35.2	15.0	14.5	8.4	6.4	5.5	4.7	2.7	2.4
연령별	20대	577	52.7	42.3	37.8	20.1	8.7	7.3	10.4	8.5	6.8	2.8	2.1
	30대	890	59.9	41.3	37.4	16.1	12.2	7.5	6.0	7.1	6.1	2.6	1.7
	40대	705	55.5	36.5	34.2	18.7	18.3	8.7	8.8	7.4	4.7	2.6	1.7
	50대	671	51.1	38.5	32.2	18.3	18.9	10.3	9.5	4.8	5.5	2.7	1.5
	60대 이상	530	54.9	34.7	32.1	12.5	21.5	14.2	9.8	4.9	5.3	1.9	2.3

| 2 0 2 1 년 경 기 도 예 술 인 전 수 조 사 |

제4장 경기도 예술단체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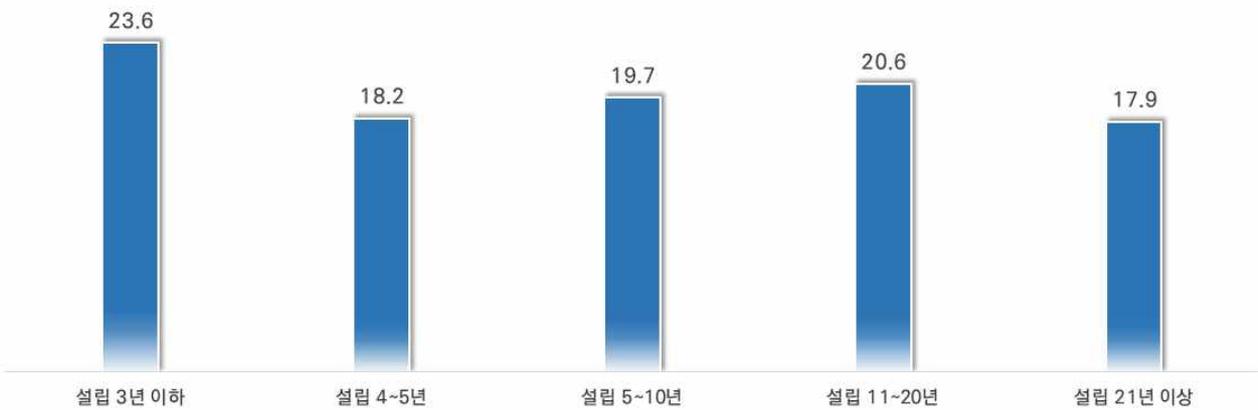
01 일반현황

1. 기초 현황

1) 설립년도

- 2021년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에 참여한 예술단체는 총 407개임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단체들의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3년 이하 설립이 23.6%로 가장 많았고, 다음 설립 11~20년 이하가 20.6%, 설립 5~10년 이하가 19.7%, 설립 4~5년 이하가 18.2% 등으로 나타남. 반면 설립 21년 이상된 예술단체는 17.9%로 조사됨

[그림 68] 예술단체 설립년도 분포 (단위 : %)



2) 소재지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단체 소재지는 부천시 9.8%, 수원시가 9.6%, 고양시가 7.6% 등의 순임

[그림 69] 단체 소재지 (단위 : %)



3) 단체유형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단체들의 형태는 비법인 사설단체가 전체 5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법인이체가 12.8%, 전문예술법인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는 비영리단체, 일반협동조합, 개인사업자 등의 유형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70] 단체 유형

(단위 : %)



4)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보유 여부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단체들 중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42.3%로 가장 많고, 사업자등록증 보유가 37.6%로 나타남 그 외 비법인 사설단체가 6.6%, 법인체가 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1]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보유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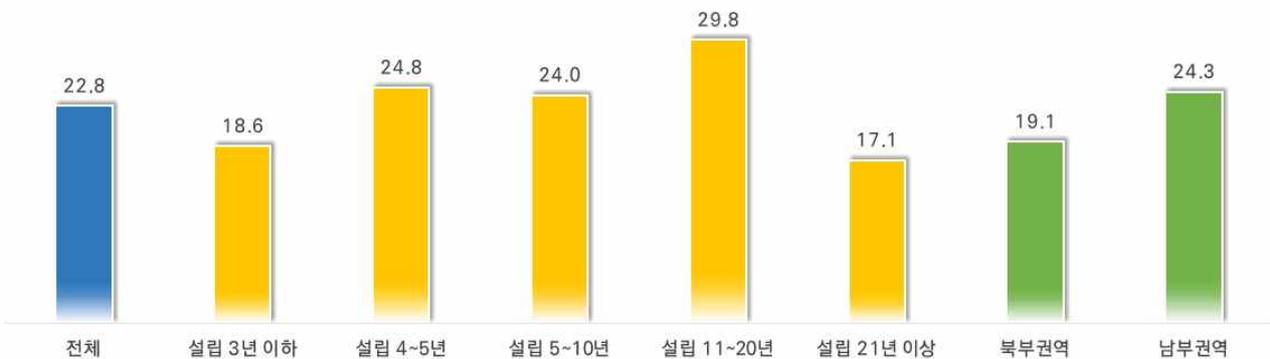
2. 예술활동 실적 및 수상내역

1) 예술활동 횟수

- 예술단체들의 활동 횟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22.8회 정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남
- 설립연도별로는 설립 11~20년 이하 단체의 활동횟수가 평균 29.8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설립 4~5년 이하 단체가 24.8회, 설립 5~10년 이하 단체가 24.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단체의 소재지역을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부권역 예술단체의 평균 활동횟수가 24.3회로 북부권역 예술단체 19.1회 보다 평균 5.2회 많은 것으로 나타나 더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됨
 - 북부권역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 남부권역 : 과천,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그림 72] 예술활동 횟수

(단위 : 회)



2) 예술활동 기간

- 예술단체들의 활동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84.8일 정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남
- 설립연도별로는 설립 5~10년 이하 단체의 활동 기간이 평균 109.5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설립 3년 이하 단체가 89.1일, 설립 21년 이상 단체가 86.1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단체의 소재지역을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부권역 예술단체의 평균 활동기간이 87.0일로 북부권역 예술단체의 79.4일 보다 평균 7.6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3] 예술활동 기간

(단위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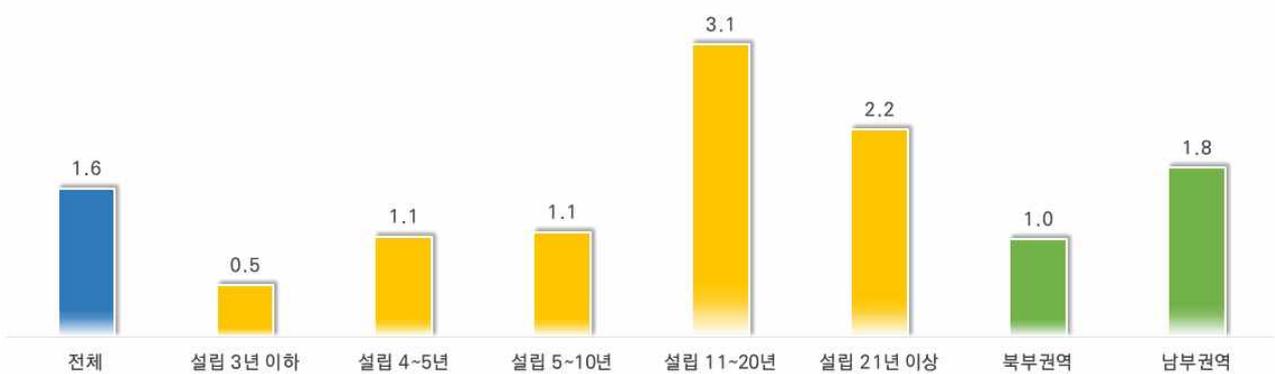


3) 수상경험

- 조사에 참여한 예술단체들의 수상횟수는 평균 1.6회 정도로 나타났고, 설립년도 기준으로는 설립 11~20년 이하 단체의 수상횟수가 3.1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립 21년 이상인 단체가 2.2회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남부권역 예술단체의 수상횟수가 1.8회 북부권역 예술단체의 수상횟수가 1.0회로 각각 조사됨

[그림 74]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수상횟수

(단위 : 회)



3. 주요 예술활동 분야

- 조사에 참여한 예술단체들의 주 활동 분야는 음악(양악, 클래식)이 36.6%로 가장 많고, 연극분야가 21.9%, 미술(디자인, 공예)분야가 18.7%, 국악 분야가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5] 주요 예술활동 분야 (단위 : %)



- 설립년도 기준으로 음악은 11~20년 이하 단체(44.0%)와 3년 이하 단체(42.7%)가 가장 많았으며, 연극은 21년 이상 단체(30.1%)와 4~5년 이하 단체(28.4%)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술분야의 경우 5~10년 이하 단체(26.3%)의 비율이 높았으며, 국악분야는 4~5년 이하 단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권역별로 북부권역은 음악, 연극, 국악, 미술, 무용 분야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부권역은 음악, 연극, 미술, 국악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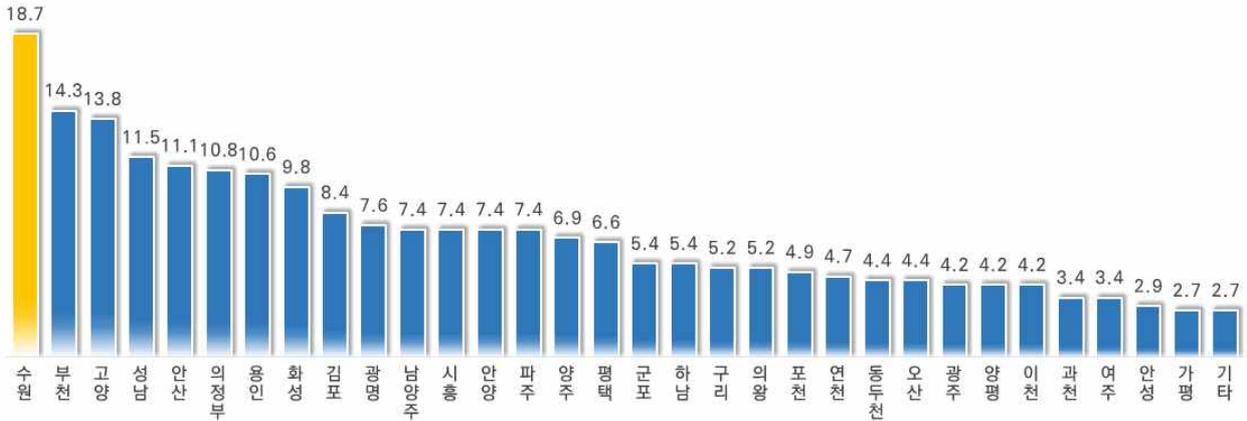
[표 103] 설립년도 X 권역별 주요 예술활동 분야 (단위 : %)

구분	사례수	음악 (양악, 클래식)	연극	미술 (디자인, 공예)	국악	무용	연예 (대중음악, 방송)	문학	영화	사진	만화 (웹툰)	어문 (語文)	건축	기타	
전체	407	36.6	21.9	18.7	16.0	10.6	9.8	8.4	6.6	3.4	1.5	1.0	0.5	8.1	
설립년도	3년 이하	96	42.7	21.9	19.8	8.3	10.4	12.5	8.3	10.4	0.0	1.0	1.0	0.0	10.4
	4~5년	74	23.0	28.4	16.2	20.3	13.5	14.9	5.4	10.8	1.4	1.4	1.4	0.0	9.5
	6~10년	80	38.8	16.3	26.3	20.0	8.8	8.8	10.0	5.0	5.0	3.8	2.5	1.3	7.5
	11~20년	84	44.0	14.3	6.0	16.7	9.5	4.8	4.8	1.2	2.4	0.0	0.0	0.0	6.0
	21년 이상	73	31.5	30.1	26.0	16.4	11.0	8.2	13.7	5.5	9.6	1.4	0.0	1.4	6.8
권역	북부권역	117	39.3	27.4	17.1	20.5	14.5	13.7	9.4	10.3	5.1	2.6	0.9	0.9	9.4
	남부권역	290	35.5	19.7	19.3	14.1	9.0	8.3	7.9	5.2	2.8	1.0	1.0	0.3	7.6

4. 주 활동지역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수원시가 18.7%로 가장 많고, 다음 부천시가 14.3%, 고양시가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단체의 주 활동지역은 복수응답 형태로 진행되었으므로 예술인 설문처럼 현재 소재 지역과 활동 지역을 정확히 매칭하여 매칭률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예술단체의 활동지역 매칭률 분석은 제외하였음

[그림 76] 주 활동지역 (단위 : %)



- 권역별로 북부권역의 경우 주 활동지역은 의정부시가 3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양시 29.1%, 양주시가 20.5%, 파주시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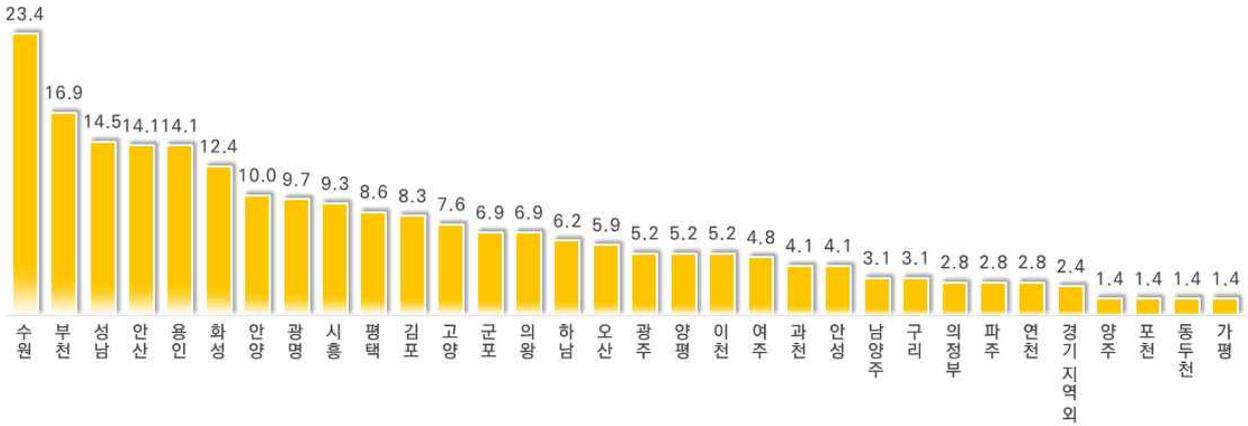
[그림 77] 북부권역 주 활동지역 (단위 : %)



- 남부권역의 경우 주 활동지역은 수원시가 23.4%, 부천시가 16.9%, 성남시가 14.5%, 안산시와 용인시가 각각 14.1%, 화성시가 12.4%, 안양시가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8] 남부권역 주 활동지역

(단위 : %)



[표 104] 설립년도별 주요 활동지역 -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광명시	남양주시	
전 체	407	18.7	14.3	13.8	11.5	11.1	10.8	10.6	9.8	8.4	7.6	7.4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19.8	11.5	6.3	12.5	13.5	10.4	14.6	9.4	9.4	6.3	9.4
	4~5년	74	17.6	12.2	21.6	14.9	13.5	10.8	13.5	6.8	6.8	6.8	9.5
	6~10년	80	17.5	21.3	10.0	5.0	11.3	8.8	10.0	13.8	7.5	6.3	6.3
	11~20년	84	14.3	11.9	11.9	11.9	7.1	15.5	9.5	13.1	7.1	8.3	7.1
	21년 이상	73	24.7	15.1	21.9	13.7	9.6	8.2	4.1	5.5	11.0	11.0	4.1

[표 105] 설립년도별 주요 활동지역 - 2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양주시	평택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연천군	
전 체	407	7.4	7.4	7.4	6.9	6.6	5.4	5.4	5.2	5.2	4.9	4.7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12.5	8.3	6.3	7.3	8.3	9.4	6.3	4.2	7.3	4.2	3.1
	4~5년	74	13.5	8.1	8.1	5.4	5.4	2.7	8.1	6.8	5.4	5.4	2.7
	6~10년	80	2.5	6.3	10.0	6.3	8.8	5.0	3.8	5.0	5.0	5.0	5.0
	11~20년	84	3.6	7.1	3.6	7.1	6.0	2.4	4.8	6.0	4.8	4.8	6.0
	21년 이상	73	4.1	6.8	9.6	8.2	4.1	6.8	4.1	4.1	2.7	5.5	6.8

[표 106] 설립년도별 주요 활동지역 - 3

(단위 : %)

구 분	사례수	동두천시	오산시	광주시	양평군	이천시	과천시	여주시	안성시	가평군	경기 지외 지역 활동	
전 체	407	4.4	4.4	4.2	4.2	4.2	3.4	3.4	2.9	2.7	2.7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7.3	2.1	4.2	4.2	3.1	4.2	2.1	3.1	2.1	3.1
	4~5년	74	2.7	1.4	2.7	2.7	2.7	4.1	0.0	4.1	1.4	4.1
	6~10년	80	5.0	7.5	3.8	6.3	3.8	1.3	3.8	1.3	2.5	1.3
	11~20년	84	2.4	7.1	6.0	6.0	7.1	3.6	9.5	2.4	7.1	3.6
	21년 이상	73	4.1	4.1	4.1	1.4	4.1	4.1	1.4	4.1	0.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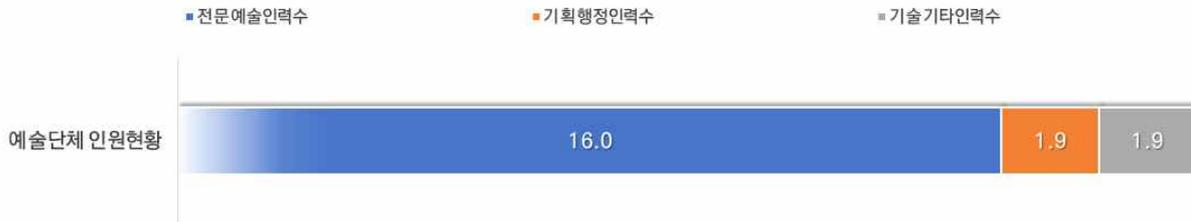
02 예술단체 운영현황

1. 예술단체 인력현황

1) 인원현황

- 조사에 참여한 예술단체의 평균 인원은 19.7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전문예술인력은 평균 16명, 기획행정인력과 기술기타인력은 평균 1.9명으로 각각 조사됨

[그림 79] 단체 인원현황 (단위 : 명)



- 설립년도별로 총원이 가장 많은 경우는 21년 이상 단체로 평균 37.5명으로 나타났고, 설립연도가 짧을 수록 평균 총원인력수도 감소하는 형태를 보임
- 권역별로는 북부권역 예술단체는 평균 22.8명, 남부권역 예술단체는 평균 18.5명으로 북부권역 예술단체의 평균 총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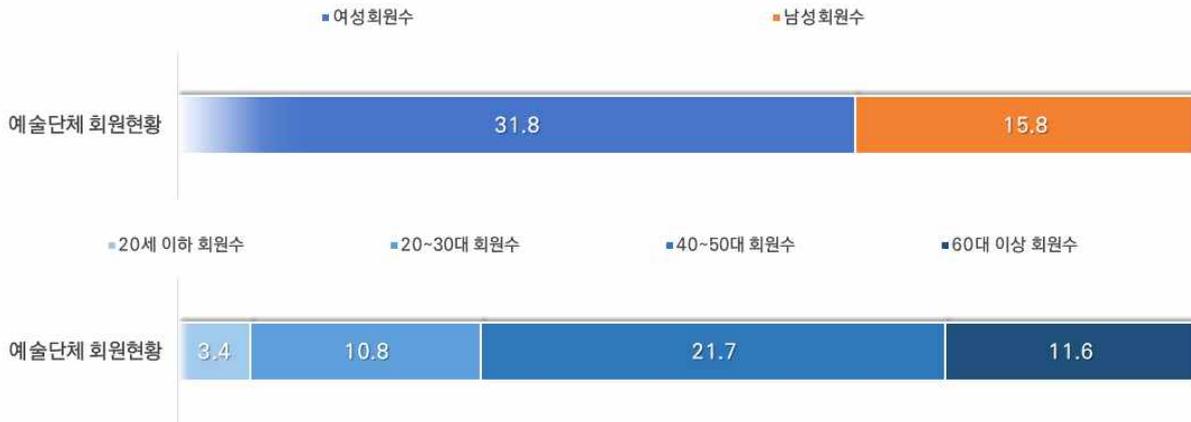
[표 107] 비교집단별 단체 인원현황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총원	전문예술인력	기획행정인력	기술기타인력	
전체	407	19.7	16.0	1.9	1.9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9.9	7.1	1.4	1.4
	4~5년	74	17.0	13.5	1.7	1.8
	6~10년	80	17.9	14.2	1.5	2.2
	11~20년	84	19.8	16.3	2.1	1.3
	21년 이상	73	37.5	31.8	2.9	2.8
단체 유형	국공립	5	32.2	28.6	3.6	0.0
	전문예술법인	49	19.6	15.8	1.6	2.1
	법인체	52	55.7	48.9	3.5	3.4
	비법인	234	14.2	10.9	1.7	1.6
	사회적기업	18	12.1	8.6	1.9	1.6
	기타	49	9.8	6.8	1.4	1.6
권역	북부권역	117	22.8	19.2	1.8	1.8
	남부권역	290	18.5	14.7	1.9	1.9

2) 회원현황

- 조사에 참여한 예술단체의 회원 현황결과 총 회원수는 평균 47.6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여성회원수는 평균 31.8명으로 여성회원의 비율은 61.5%로 나타남
- 연령별 회원수를 살펴보면, 40~50대 회원이 평균 2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60대 이상 회원이 11.6명, 20~30대 회원이 10.8명, 20세 이하 회원이 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0] 단체 회원현황 (단위 : 명)



- 설립년도별 총회원수 분석결과, 21년 이상 단체의 회원수가 평균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1~20년 이하 단체의 회원수는 54.3명으로 단체 인원현황과 마찬가지로 설립년도가 짧을 수록 회원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권역별로 북부권역 예술단체 회원수는 평균 52.6명, 남부권역 예술단체는 평균 45.8명으로 북부권역 예술단체의 평균 회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회원의 비율은 남부권역이 62.3%로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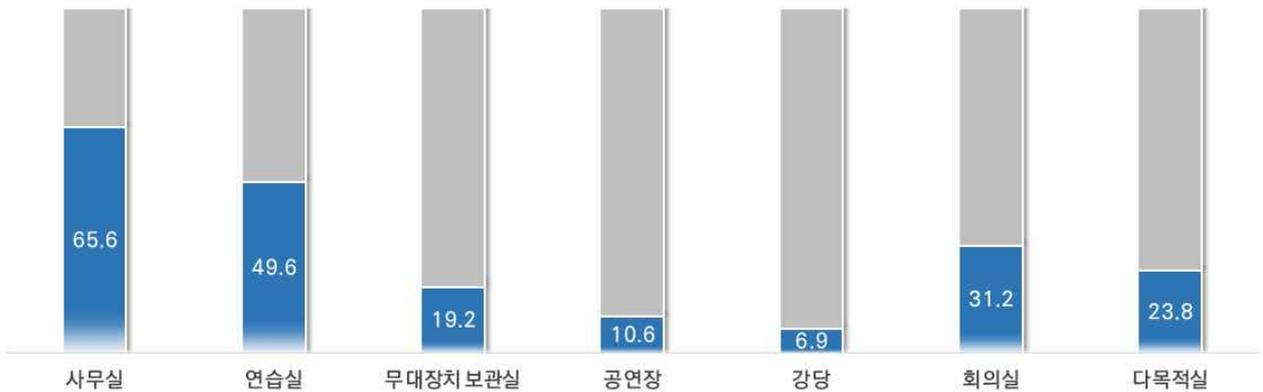
[표 108] 비교집단별 단체 회원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총회원수	여성회원수	여성회원비율 (%)	20세 이하 회원수	20~30대 회원수	40~50대 회원수	60대 이상 회원수	
전체	407	47.6	31.8	61.5	3.4	10.8	21.7	11.6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25.1	11.2	51.7	1.1	9.2	10.0	4.7
	4~5년	74	39.6	25.6	61.4	2.2	7.9	20.4	9.1
	6~10년	80	48.1	30.7	64.8	3.8	15.1	17.5	11.8
	11~20년	84	54.3	44.0	65.8	4.9	8.4	26.7	14.3
	21년 이상	73	74.0	49.6	64.4	5.2	13.7	36.0	19.2
단체 유형	국공립	5	39.0	25.8	59.2	10.5	7.5	19.8	1.3
	전문예술법인	49	64.6	42.1	59.1	4.7	12.6	29.1	18.2
	법인체	52	95.3	64.5	62.9	2.3	15.6	48.7	28.6
	비법인	234	34.9	24.2	63.5	2.9	9.6	14.7	7.6
	사회적기업	18	60.6	36.9	53.8	3.3	13.2	33.4	10.8
	기타	49	23.5	9.2	49.2	6.3	7.4	6.9	2.9
권역	북부권역	117	52.6	35.6	59.4	4.4	10.1	25.5	12.5
	남부권역	290	45.8	30.3	62.3	3.0	11.1	20.4	11.3

2. 보유 공간 현황

- 조사에 참여한 예술단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간 현황에 대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65.6%로 나타났고, 연습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49.6%,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1.2%, 다목적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 중 공연장이나 강당의 보유율은 각각 10.6%, 6.9% 수준으로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81] 단체 보유 공간 현황 (단위 : %)



- 단체유형별로 비법인 사설단체는 사무실 보유율도 56.0%로 가장 낮았으며, 비교적 보유 공간이 고르게 잘 갖추어진 유형은 사회적 협동조합/기업 유형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연습실 보유율은 북부와 남부권역이 유사하였으나, 무대장치 보관실이나 공연장 보유율은 남부보다 북부권역 예술단체가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9] 비교집단별 보유 공간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사무실	연습실	무대장치 보관실	공연장	강당	회의실	다목적실	
전체	407	65.6	49.6	19.2	10.6	6.9	31.2	23.8	
설립년도	3년 이하	96	65.6	45.8	15.6	8.3	4.2	36.5	29.2
	4~5년	74	59.5	40.5	18.9	10.8	2.7	28.4	20.3
	6~10년	80	65.0	53.8	20.0	10.0	7.5	35.0	25.0
	11~20년	84	66.7	56.0	13.1	10.7	7.1	25.0	20.2
	21년 이상	73	71.2	52.1	30.1	13.7	13.7	30.1	23.3
단체유형	국공립	5	100.0	80.0	40.0	40.0	40.0	60.0	40.0
	전문예술법인	49	73.5	63.3	16.3	6.1	2.0	30.6	26.5
	법인체	52	84.6	50.0	25.0	19.2	11.5	40.4	30.8
	비법인	234	56.0	48.3	17.9	9.4	6.8	24.8	20.5
	사회적기업	18	94.4	44.4	22.2	5.6	5.6	61.1	27.8
기타	49	69.4	40.8	18.4	10.2	4.1	38.8	26.5	
권역	북부권역	117	70.1	50.4	21.4	11.1	9.4	35.0	25.6
	남부권역	290	63.8	49.3	18.3	10.3	5.9	29.7	23.1

3. 운영예산 조달방법

- 2020년 기준 예술단체의 운영예산 조달방법별 비중에 대한 분석결과, 지원예산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수익을 통한 조달비율이 31.5%, 정기회비를 통한 조달이 24.1% 등으로 나타남

[그림 82] 2020년 예술단체 운영예산 조달방법별 비율 (단위 : %)



- 설립년도별로 지원예산 비율은 11~20년 이하 단체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4~5년 이하 단체가 34.3%, 21년 이상 단체가 31.2%로 나타남. 반면 자체수익비율은 3년 이하 단체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6~10년 이하 단체가 32.7% 순으로 나타남
- 단체유형별로는 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고 자체수익비율은 사회적 협동조합/기업이 50.7%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예산 비율은 전문예술법인이 4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북부권역 예술단체는 지원예산 비율이 34.6%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남부권역 예술단체는 자체수익 비율이 34.2%로 나타나 권역별 차이를 보임

[표 110] 비교집단별 운영예산 조달방법별 비율 (단위 : %)

구분	사례수	자체수익비율	정기회비비율	지원예산비율	기부/후원금비율	기타비율	
전체	407	31.5	24.1	32.8	5.2	6.4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37.1	16.3	31.4	5.0	10.2
	4~5년	74	31.4	20.9	34.3	6.1	7.3
	6~10년	80	32.7	27.2	29.2	5.0	5.9
	11~20년	84	25.2	26.9	37.7	5.5	4.6
	21년 이상	73	30.2	30.9	31.2	4.6	3.0
단체 유형	국공립	5	63.0	2.0	33.0	2.0	0.0
	전문예술법인	49	27.1	13.8	42.4	10.5	6.2
	법인체	52	28.9	21.7	34.9	8.2	6.4
	비법인	234	29.6	28.2	32.1	4.0	6.1
	사회적기업	18	50.7	9.7	30.9	6.4	2.2
	기타	49	37.7	24.8	24.7	2.8	10.1
권역	북부권역	117	24.8	23.9	34.6	5.4	11.3
	남부권역	290	34.2	24.2	32.0	5.2	4.4

4. 항목별 지출예산 비율

- 2020년 기준 예술단체의 항목별 지출예산 비율 분석결과, 예술활동 사업비가 전체 지출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건비는 32.3%, 경상운영비는 13.0%, 예술활동 이외 사업비는 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3] 2020년 예술단체 지출예산 항목별 비율 (단위 : %)



- 설립년도별로 예술활동 사업비 비중은 21년 이상 단체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년 이하 단체가 47.0%, 4~5년 이하와 11~20년 이하 단체가 4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체유형별로는 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고 예술활동 사업비 비중은 비법인 사설단체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사회적 협동조합기업이 46.7%, 법단체가 4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 예술활동 사업비 비중은 북부권역 예술단체가 47.1%, 남부권역 예술단체가 45.3%로 각각 나타남. 반면, 인건비 비중은 남부권역이 32.9%로 북부권역 30.7%보다 2.2%p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111] 비교집단별 항목별 지출예산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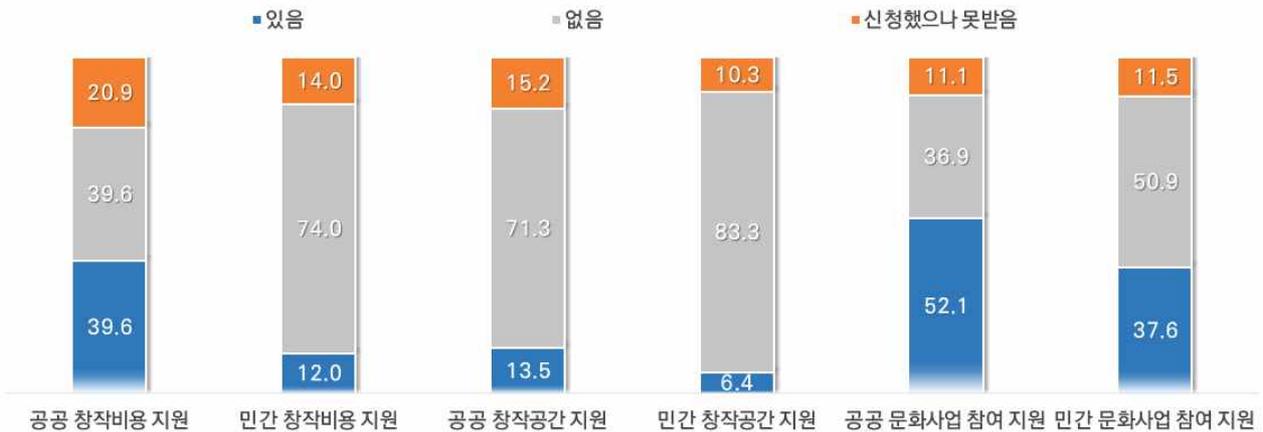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술활동사업비율	예술활동 이외 사업비율	경상운영비율	인건비율	
전체	407	45.8	8.9	13.0	32.3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47.0	9.8	11.8	31.4
	4~5년	74	46.7	8.6	13.5	31.1
	6~10년	80	39.8	10.4	16.1	33.7
	11~20년	84	46.7	7.2	11.7	34.4
	21년 이상	73	48.8	8.5	11.9	30.8
단체 유형	국공립	5	74.0	12.6	7.4	6.0
	전문예술법인	49	41.0	8.0	16.3	34.7
	법인체	52	45.9	9.8	12.4	31.9
	비법인	234	48.8	8.2	11.9	31.1
	사회적기업	18	46.7	11.7	10.0	31.7
	기타	49	33.0	11.2	17.0	38.8
권역	북부권역	117	47.1	8.9	13.3	30.7
	남부권역	290	45.3	8.9	12.9	32.9

03 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 현황

1. 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

- 2020년 기준 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공공 문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공공 창작비용 지원 참여경험이 39.6%, 민간 문화사업 참여 경험이 3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신청은 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한 경우는 공공 창작비용 지원의 경우가 20.9%로 가장 높았고, 다음 공공 창작공간 지원이 15.2%, 민간 창작비용 지원이 14.0%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84] 2020년 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실적 (단위 : %)



- 각 비교집단별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참여현황에 대한 분석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함

[표 112] 비교집단별 -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신청했으나 못받음	
전체	407	39.6	39.6	20.9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30.2	42.7	27.1
	4~5년	74	44.6	32.4	23.0
	6~10년	80	43.8	38.8	17.5
	11~20년	84	45.2	34.5	20.2
	21년 이상	73	35.6	49.3	15.1
단체 유형	국공립	5	20.0	80.0	0.0
	전문예술법인	49	44.9	30.6	24.5
	법인체	52	40.4	36.5	23.1
	비법인	234	43.2	39.3	17.5
	사회적기업	18	27.8	50.0	22.2
	기타	49	22.4	44.9	32.7
권역	북부권역	117	32.5	41.0	26.5
	남부권역	290	42.4	39.0	18.6

[표 113] 비교집단별 -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신청했으나 못받음	
전 체	407	12.0	74.0	14.0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13.5	68.8	17.7
	4~5년	74	9.5	74.3	16.2
	6~10년	80	11.3	75.0	13.8
	11~20년	84	16.7	75.0	8.3
	21년 이상	73	8.2	78.1	13.7
단체 유형	국공립	5	0.0	100.0	0.0
	전문예술법인	49	12.2	71.4	16.3
	법인체	52	13.5	73.1	13.5
	비법인	234	11.5	75.2	13.2
	사회적기업	18	11.1	72.2	16.7
	기타	49	14.3	69.4	16.3
권역	북부권역	117	12.0	74.4	13.7
	남부권역	290	12.1	73.8	14.1

[표 114] 비교집단별 -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 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신청했으나 못받음	
전 체	407	13.5	71.3	15.2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12.5	64.6	22.9
	4~5년	74	12.2	74.3	13.5
	6~10년	80	13.8	76.3	10.0
	11~20년	84	15.5	69.0	15.5
	21년 이상	73	13.7	74.0	12.3
단체 유형	국공립	5	20.0	80.0	0.0
	전문예술법인	49	10.2	69.4	20.4
	법인체	52	15.4	67.3	17.3
	비법인	234	12.8	72.6	14.5
	사회적기업	18	0.0	77.8	22.2
	기타	49	22.4	67.3	10.2
권역	북부권역	117	13.7	78.6	7.7
	남부권역	290	14.0	65.3	20.7

[표 115] 비교집단별 -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 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신청했으나 못받음	
전 체	407	6.4	83.3	10.3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5.2	82.3	12.5
	4~5년	74	4.1	81.1	14.9
	6~10년	80	10.0	81.3	8.8
	11~20년	84	7.1	85.7	7.1
	21년 이상	73	5.5	86.3	8.2
단체 유형	국공립	5	0.0	100.0	0.0
	전문예술법인	49	10.2	77.6	12.2
	법인체	52	11.5	73.1	15.4
	비법인	234	5.6	84.6	9.8
	사회적기업	18	0.0	88.9	11.1
	기타	49	4.1	89.8	6.1
권역	북부권역	117	6.8	87.2	6.0
	남부권역	290	5.8	80.2	14.0

[표 116] 비교집단별 - 공공의 문화사업 참여 경험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신청했으나 못받음	
전 체	407	52.1	36.9	11.1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45.8	40.6	13.5
	4~5년	74	58.1	29.7	12.2
	6~10년	80	52.5	32.5	15.0
	11~20년	84	56.0	35.7	8.3
	21년 이상	73	49.3	45.2	5.5
단체 유형	국공립	5	80.0	20.0	0.0
	전문예술법인	49	67.3	24.5	8.2
	법인체	52	46.2	40.4	13.5
	비법인	234	50.4	37.6	12.0
	사회적기업	18	55.6	38.9	5.6
	기타	49	46.9	42.9	10.2
권역	북부권역	117	53.0	36.8	10.3
	남부권역	290	52.9	33.9	13.2

[표 117] 비교집단별 - 민간의 문화사업 참여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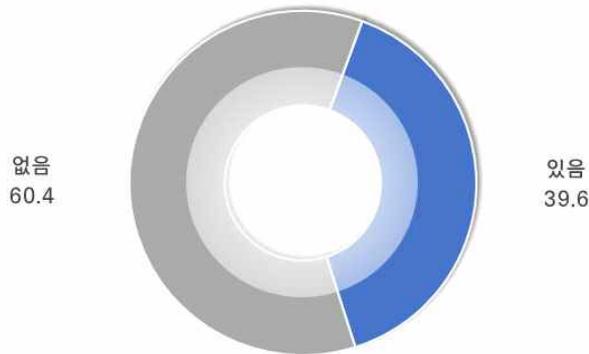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신청했으나 못받음	
전 체	407	37.6	50.9	11.5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34.4	54.2	11.5
	4~5년	74	39.2	47.3	13.5
	6~10년	80	42.5	45.0	12.5
	11~20년	84	39.3	48.8	11.9
	21년 이상	73	32.9	58.9	8.2
단체 유형	국공립	5	0.0	100.0	0.0
	전문예술법인	49	51.0	34.7	14.3
	법인체	52	40.4	50.0	9.6
	비법인	234	34.6	52.6	12.8
	사회적기업	18	33.3	61.1	5.6
	기타	49	40.8	51.0	8.2
권역	북부권역	117	29.9	59.0	11.1
	남부권역	290	42.1	45.5	12.4

2. 자금지원 수혜현황

1) 지원수혜 경험

- 2020년 기준으로 금전적 지원(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전체 예술단체의 39.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경기도 예술단체 10곳 중 4곳은 지난해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85] 2020년 금전적 지원 수혜 유무 (단위 : %)



- 설립년도별 자금지원 경험은 6~10년 미만 단체가 50.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 21년 이상 단체가 42.5%, 4~5년 이하 단체가 39.2%, 11~20년 이하 단체가 3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체유형별로는 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고 지원받은 비율은 전문예술법인이 51.0%, 사회적 협동조합/기업이 50.0%, 비법인 사설단체 4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지원받은 비율은 남부권역 예술단체가 40.7%, 북부권역 예술단체가 36.8%로 나타남

[표 118] 비교집단별 금전적 지원 수혜 유무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407	39.6	60.4	
설립 년도	3년 이하	96	32.3	67.7
	4~5년	74	39.2	60.8
	6~10년	80	50.0	50.0
	11~20년	84	35.7	64.3
	21년 이상	73	42.5	57.5
단체 유형	국공립	5	40.0	60.0
	전문예술법인	49	51.0	49.0
	법인체	52	38.5	61.5
	비법인	234	41.5	58.5
	사회적기업	18	50.0	50.0
	기타	49	16.3	83.7
권역	북부권역	117	36.8	63.2
	남부권역	290	40.7	59.3

2) 지원횟수, 지원금 규모

- 2020년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n=161) 전체 지원횟수는 평균 2.3회를 지원받았으며, 지원받은 총 지원금은 평균 2,7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 경우 평균 1회 지원금은 1,458만원 수준임
- 설립년도별 지원횟수는 6~10년 이하 단체가 평균 2.5회로 가장 많고, 3년 이하 단체와 21년 이상 단체는 평균 2.1회로 가장 낮은 회수를 보임. 지원받은 총 지원금 규모로는 5~10년 이하 단체가 평균 4,54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하 단체와 11~20년 이하 단체의 총 지원금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단체유형별로 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고 지원횟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전문예술법인으로 평균 3.3회 지원받았으며, 사회적 협동조합/기업은 평균 1.8회로 가장 낮은 지원횟수를 보임. 총 지원금은 법인이 평균 4,17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법인 사설단체는 평균 2,065만원으로 가장 적은 평균 지원금을 보임
- 권역별로 북부권역 예술단체의 지원횟수는 평균 2.6회 남부권역 예술단체는 평균 2.1회로 나타났으나, 총 지원금은 남부권역 예술단체가 평균 3,000만원으로 북부권역 예술단체 평균 지원금액이 2,123만원보다 약 9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119] 비교집단별 금전적 지원횟수, 지원금 규모

(단위 : 회,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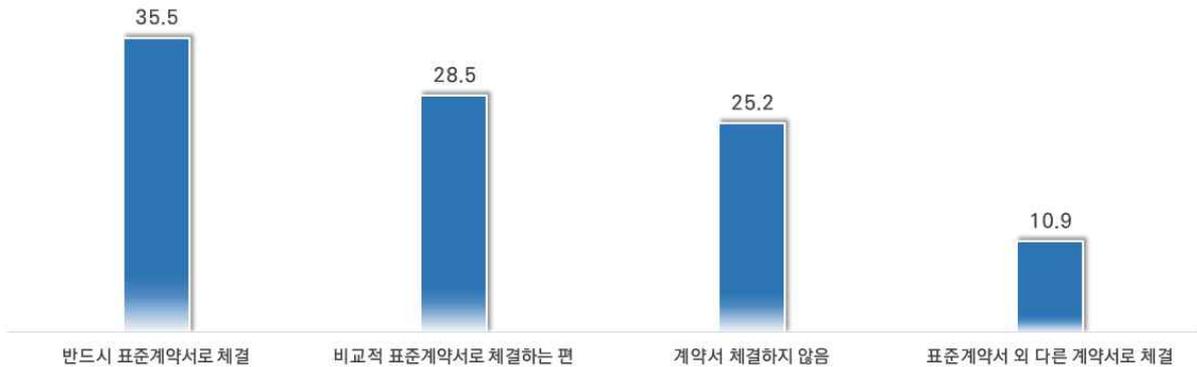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체 지원횟수(평균)	지원받은 총 지원금(평균)	1회 지원금 평균
전 체	161	2.3	2,766	1,458
설립 년도	3년 이하	31	2.1	1,373
	4~5년	29	2.2	2,273
	6~10년	40	2.5	4,548
	11~20년	30	2.4	1,276
	21년 이상	31	2.1	3,762
단체 유형	국공립	2	1.0	8,035
	전문예술법인	25	3.3	3,962
	법인체	20	2.1	4,176
	비법인	97	2.1	2,065
	사회적기업	9	1.8	3,074
	기타	8	2.9	2,334
권역	북부권역	43	2.6	2,123
	남부권역	118	2.1	3,000

04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거래 경험

1.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소속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시 표준계약서 활용여부에 대해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체결한다는 응답이 전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비교적 표준계약서로 체결한다는 응답은 28.5%,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2%, 표준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로 체결한다는 응답이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체 63.9%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86] 소속 예술인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 설립년도별로 3년 이하 단체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73.0%로 가장 높았으며, 단체 유형별로는 전문예술법인의 활용률이 80.0%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임

[표 120] 비교집단별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체결	비교적 표준계약서로 체결하는 편	계약서 체결하지 않음	표준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로 체결	
전체	330	35.5	28.5	25.2	10.9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44.6	28.4	13.5	13.5
	4~5년	64	39.1	23.4	29.7	7.8
	6~10년	67	31.3	29.9	29.9	9.0
	11~20년	69	24.6	31.9	33.3	10.1
	21년 이상	56	37.5	28.6	19.6	14.3
단체 유형	국공립	4	50.0	0.0	25.0	25.0
	전문예술법인	45	42.2	37.8	15.6	4.4
	법인체	38	39.5	34.2	21.1	5.3
	비법인	202	33.7	26.2	27.2	12.9
	사회적기업	16	50.0	18.8	18.8	12.5
기타	25	20.0	32.0	36.0	12.0	
권역	북부권역	98	35.7	26.5	20.4	17.3
	남부권역	232	35.3	29.3	27.2	8.2

2.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현황

1) 불공정 거래 및 계약피해 경험 및 횟수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7.0%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때 평균 피해경험은 1.7회 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87] 최근 3년 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 현황 (단위 : %)



- 설립년도별로 11~20년 이하 단체가 피해경험이 11.6%, 피해횟수도 평균 2.1회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유형별로 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기업의 피해경험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횟수는 비법인 사설단체가 평균 1.9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 권역별로는 북부권역 예술단체 피해경험은 4.1%, 남부권역 예술단체 피해경험은 8.2%로 나타난 반면, 피해횟수는 북부권역 예술단체가 평균 2회로 남부권역 예술단체 평균 1.6회보다 0.4회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121] 비교집단별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 현황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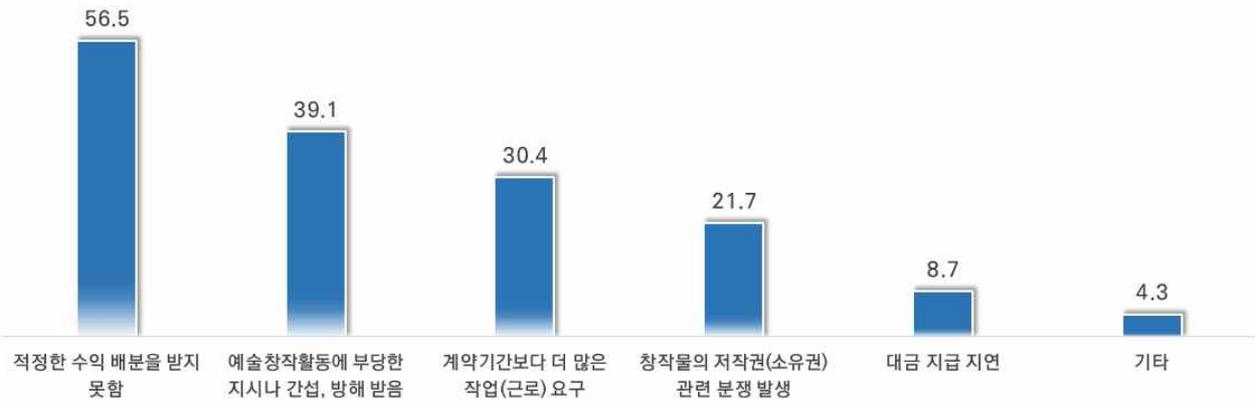
구분	사레수	있음 (%)	없음 (%)	평균 피해횟수	
전체	330	7.0	93.0	1.7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5.4	94.6	1.8
	4~5년	64	4.7	95.3	1.0
	6~10년	67	7.5	92.5	1.6
	11~20년	69	11.6	88.4	2.1
	21년 이상	56	5.4	94.6	1.3
단체 유형	국공립	4	25.0	75.0	1.0
	전문예술법인	45	2.2	97.8	1.0
	법인체	38	7.9	92.1	1.7
	비법인	202	6.9	93.1	1.9
	사회적기업	16	12.5	87.5	1.5
기타	25	8.0	92.0	1.5	
권역	북부권역	98	4.1	95.9	2.0
	남부권역	232	8.2	91.8	1.6

2) 불공정 거래 및 계약피해 유형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n=23) 피해 유형으로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한 피해가 전체 5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술창작활동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방해받음 피해가 39.1%, 계약기간보다 더 많은 작업(근로) 요구가 3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 불공정 거래 및 계약피해 유형 사례가 23건으로 많지 않아 응답분포 비율 결과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그림 88] 최근 3년 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 유형 (단위 : %)



○ 비교집단별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피해 유형에 대한 응답비율은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음

[표 122] 비교집단별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 유형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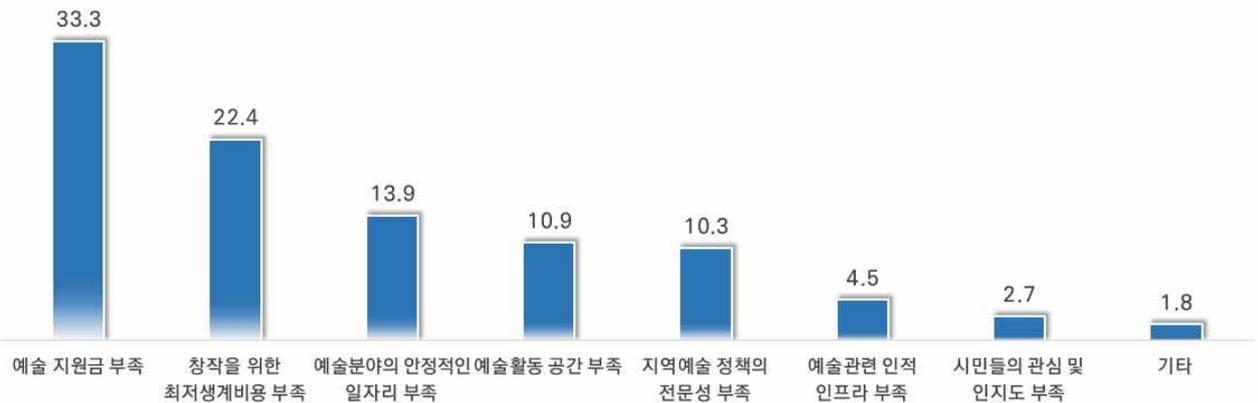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적정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함	예술창작활동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방해 받음	계약기간보다 더 많은 작업(근로) 요구	창작물의 저작권(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대금 지급 지연	기타	
전체	23	56.5	39.1	30.4	21.7	8.7	4.3	
설립 년도	3년 이하	4	75.0	25.0	25.0	25.0	0.0	0.0
	4~5년	3	33.3	33.3	33.3	33.3	0.0	0.0
	6~10년	5	40.0	40.0	20.0	20.0	0.0	0.0
	11~20년	8	87.5	37.5	37.5	12.5	25.0	0.0
	21년 이상	3	0.0	66.7	33.3	33.3	0.0	33.3
단체 유형	국공립	1	100.0	0.0	0.0	0.0	0.0	0.0
	전문예술법인	1	100.0	0.0	0.0	0.0	0.0	0.0
	법인체	3	33.3	66.7	33.3	33.3	0.0	0.0
	비법인	14	57.1	28.6	28.6	28.6	14.3	7.1
	사회적기업	2	50.0	50.0	50.0	0.0	0.0	0.0
	기타	2	50.0	100.0	50.0	0.0	0.0	0.0
권역	북부권역	4	100.0	25.0	50.0	25.0	0.0	0.0
	남부권역	19	47.4	42.1	26.3	21.1	10.5	5.3

05 경기도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1. 경기도 예술활동 시 어려움

- 예술단체로서 경기도 내 예술활동 시 어려움으로 예술 지원금 부족이 전체 3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창작을 위한 최저생계비용 부족이 22.4%, 예술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이 13.9%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89] 경기도 내 예술활동 시 어려움 (단위 : %)



- 예술 지원금 부족에 대한 응답비율은 설립년도 기준으로 4~5년 이하 단체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생계비용 부족은 3년 이하 단체의 응답비율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23] 비교집단별 경기도 내 예술활동 시 어려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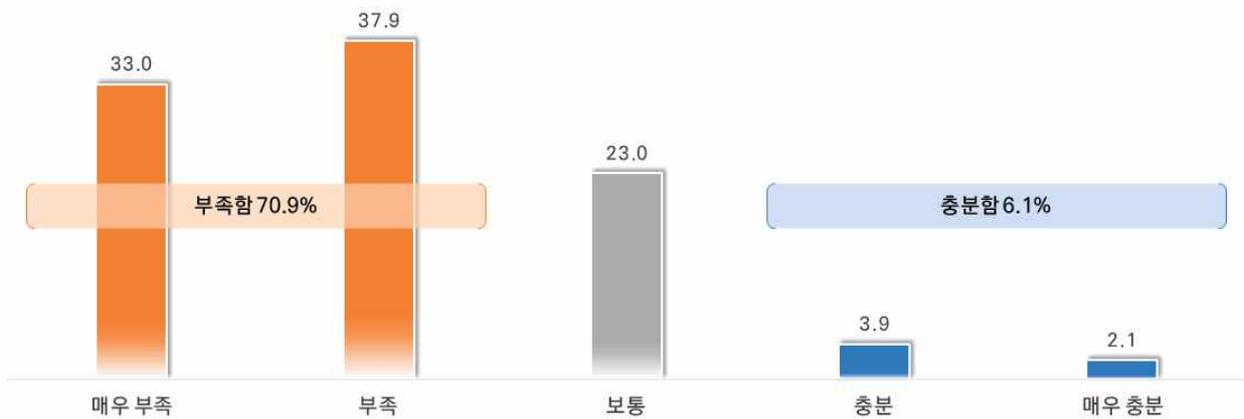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술 지원금 부족	창작을 위한 최저생계비용 부족	예술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예술활동 공간 부족	지역예술 정책의 전문성 부족	예술관련 인적 인프라 부족	시민들의 관심 및 인지도 부족	기타	
전체	330	33.3	22.4	13.9	10.9	10.3	4.5	2.7	1.8	
설립년도	3년 이하	74	24.3	25.7	12.2	9.5	13.5	9.5	4.1	1.4
	4~5년	64	40.6	18.8	14.1	9.4	12.5	1.6	1.6	1.6
	6~10년	67	34.3	25.4	14.9	9.0	6.0	4.5	4.5	1.5
	11~20년	69	36.2	21.7	10.1	14.5	10.1	2.9	1.4	2.9
	21년 이상	56	32.1	19.6	19.6	12.5	8.9	3.6	1.8	1.8
단체유형	국공립	4	0.0	25.0	0.0	75.0	0.0	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37.8	31.1	6.7	4.4	17.8	2.2	0.0	0.0
	법인체	38	36.8	23.7	18.4	5.3	5.3	7.9	0.0	2.6
	비법인	202	32.7	21.8	14.4	12.9	9.4	3.5	3.5	2.0
	사회적기업	16	18.8	6.3	31.3	12.5	12.5	12.5	6.3	0.0
기타	25	40.0	20.0	8.0	4.0	12.0	8.0	4.0	4.0	
권역	북부권역	98	31.6	21.4	13.3	10.2	12.2	4.1	5.1	2.0
	남부권역	232	34.1	22.8	14.2	11.2	9.5	4.7	1.7	1.7

2. 경기도 예술활동 공간 수준

1) 예술 창작공간 보유 수준

- 경기도 내 예술 창작공간 보유 수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는 의견이 전체 70.9%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33.0%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충분하다는 비율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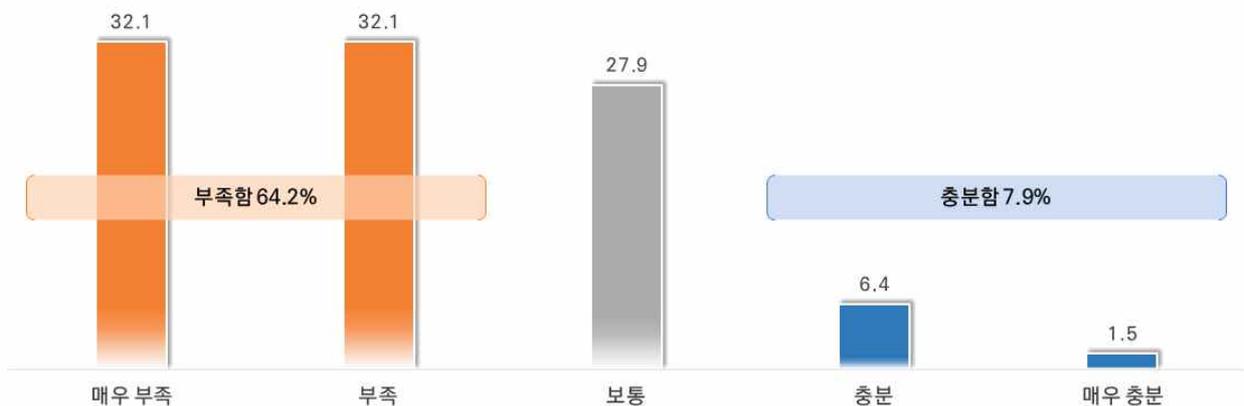
[그림 90] 경기도 내 창작공간 보유 수준 (단위 : %)



2) 예술 발표공간 보유 수준

- 경기도 내 예술 발표공간 보유 수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는 의견이 전체 64.2%로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32.1%로 나타남
- 반면, 충분하다는 비율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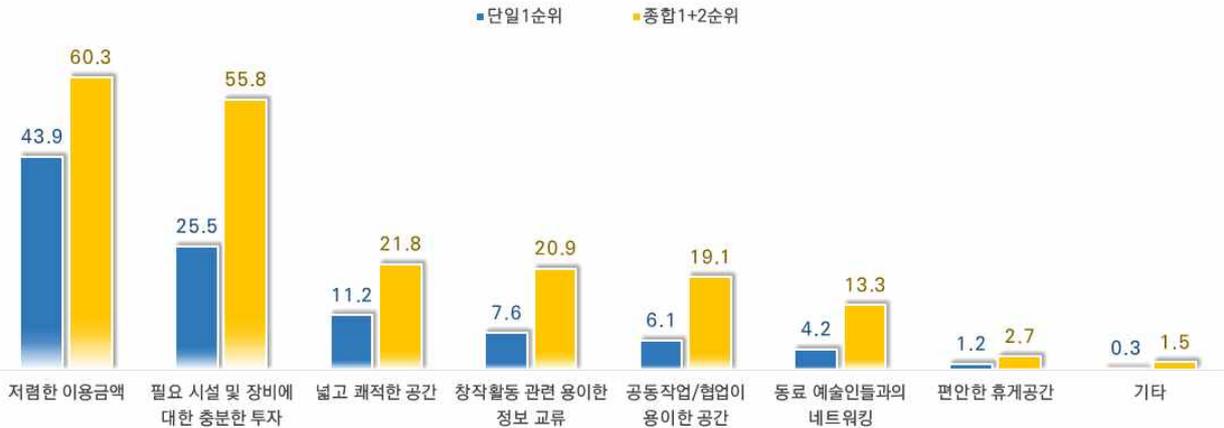
[그림 91] 경기도 내 발표공간 보유 수준 (단위 : %)



3. 경기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 시 고려사항

-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단일 1순위와 종합순위(1+2) 모두 저렴한 이용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순위 분석 기준으로 저렴한 이용금액이 60.3%,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55.8%, 넓고 쾌적한 공간이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2] 경기도 공동 예술공간 마련 시 필요사항 (단위 : %)



- 종합순위를 기준으로 저렴한 이용금액에 대한 응답비율은 설립년도 4~5년 이내 단체(67.2%)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6~10년 이내 단체와 21년 이상 단체에서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체유형별로 전문예술법인과 비법인 사설단체는 저렴한 이용금액의 비율이 높았으나, 법인체와 사회적 협동조합/기업은 시설 및 장비에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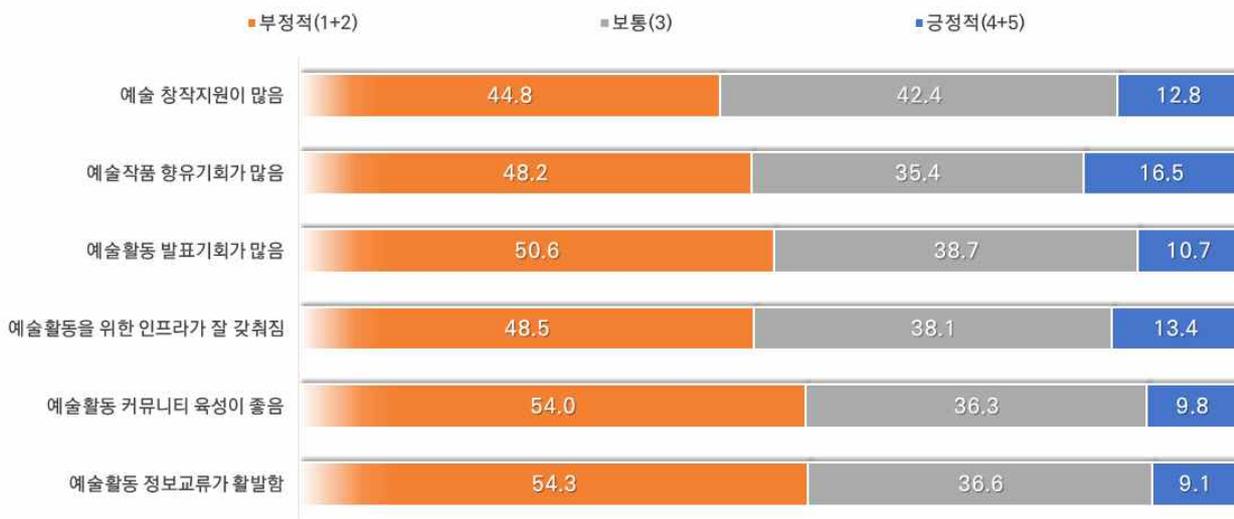
[표 124] 비교집단별 경기도 공동 예술공간 마련 시 필요사항 (단위 : %)

구분	사례수	저렴한 이용금액	필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	넓고 쾌적한 공간	창작활동 관련 용이한 정보 교류	공동작업/협업이 용이한 공간	동료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킹	편안한 휴게공간	기타	
전체	330	60.3	55.8	21.8	20.9	19.1	13.3	2.7	1.5	
설립년도	3년 이하	74	60.8	59.5	16.2	18.9	20.3	17.6	4.1	1.4
	4~5년	64	67.2	48.4	25.0	23.4	12.5	12.5	3.1	1.6
	6~10년	67	55.2	61.2	17.9	23.9	23.9	14.9	1.5	0.0
	11~20년	69	65.2	46.4	23.2	24.6	14.5	11.6	2.9	2.9
	21년 이상	56	51.8	64.3	28.6	12.5	25.0	8.9	1.8	1.8
단체유형	국공립	4	0.0	100.0	25.0	0.0	25.0	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68.9	66.7	13.3	15.6	20.0	4.4	2.2	4.4
	법인체	38	47.4	60.5	15.8	21.1	31.6	15.8	2.6	0.0
	비법인	202	63.9	54.0	24.8	20.3	15.3	14.4	3.0	1.5
	사회적기업	16	37.5	43.8	31.3	37.5	31.3	12.5	0.0	0.0
	기타	25	60.0	44.0	16.0	28.0	20.0	20.0	4.0	0.0
권역	북부권역	98	55.1	63.3	20.4	19.4	19.4	13.3	5.1	1.0
	남부권역	232	62.5	52.6	22.4	21.6	19.0	13.4	1.7	1.7

4. 경기도 추진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으로 총 6가지 내용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모두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과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서 부정응답 비율 54% 수준으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 응답을 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는 인식도 50.6%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조사됨

[그림 93] 경기도 예술정책 및 예술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표 125] 예술 창작지원이 많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응답(1+2)	보통(3)	긍정응답(4+5)	
전체	328	44.8	42.4	12.8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41.9	47.3	10.8
	4~5년	64	48.4	39.1	12.5
	6~10년	67	41.8	44.8	13.4
	11~20년	69	44.9	39.1	15.9
	21년 이상	54	48.1	40.7	11.1
단체 유형	국공립	4	25.0	75.0	0.0
	전문예술법인	45	35.6	46.7	17.8
	법인체	37	48.6	32.4	18.9
	비법인	201	45.3	43.8	10.9
	사회적기업	16	43.8	43.8	12.5
	기타	25	56.0	32.0	12.0
권역	북부권역	96	42.7	43.8	13.5
	남부권역	232	45.7	41.8	12.5

[표 126]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응답(1+2)	보통(3)	긍정응답(4+5)	
전체	328	48.2	35.4	16.5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48.6	37.8	13.5
	4~5년	64	57.8	23.4	18.8
	6~10년	67	44.8	38.8	16.4
	11~20년	69	44.9	39.1	15.9
	21년 이상	54	44.4	37.0	18.5
단체 유형	국공립	4	50.0	50.0	0.0
	전문예술법인	45	42.2	42.2	15.6
	법인체	37	48.6	21.6	29.7
	비법인	201	47.8	36.8	15.4
	사회적기업	16	50.0	37.5	12.5
기타	25	60.0	28.0	12.0	
권역	북부권역	96	45.2	34.4	20.4
	남부권역	232	46.9	36.5	16.7

[표 127]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응답(1+2)	보통(3)	긍정응답(4+5)	
전체	328	50.6	38.7	10.7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52.7	40.5	6.8
	4~5년	64	51.6	35.9	12.5
	6~10년	67	46.3	46.3	7.5
	11~20년	69	49.3	39.1	11.6
	21년 이상	54	53.7	29.6	16.7
단체 유형	국공립	4	10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35.6	55.6	8.9
	법인체	37	54.1	21.6	24.3
	비법인	201	51.2	39.3	9.5
	사회적기업	16	50.0	43.8	6.3
기타	25	60.0	32.0	8.0	
권역	북부권역	96	39.8	49.5	10.8
	남부권역	232	53.1	37.5	9.4

[표 128]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짐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응답(1+2)	보통(3)	긍정응답(4+5)	
전체	328	48.5	38.1	13.4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56.8	29.7	13.5
	4~5년	64	43.8	43.8	12.5
	6~10년	67	44.8	44.8	10.4
	11~20년	69	56.5	30.4	13.0
	21년 이상	54	37.0	44.4	18.5
단체 유형	국공립	4	10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40.0	42.2	17.8
	법인체	37	43.2	37.8	18.9
	비법인	201	49.8	37.3	12.9
	사회적기업	16	43.8	43.8	12.5
기타	25	56.0	40.0	4.0	
권역	북부권역	96	47.3	36.6	16.1
	남부권역	232	40.6	41.7	17.7

[표 129]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이 좋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응답(1+2)	보통(3)	긍정응답(4+5)	
전체	328	54.0	36.3	9.8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58.1	35.1	6.8
	4~5년	64	54.7	34.4	10.9
	6~10년	67	47.8	46.3	6.0
	11~20년	69	60.9	29.0	10.1
	21년 이상	54	46.3	37.0	16.7
단체 유형	국공립	4	10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53.3	44.4	2.2
	법인체	37	45.9	29.7	24.3
	비법인	201	55.7	34.8	9.5
	사회적기업	16	43.8	50.0	6.3
기타	25	52.0	40.0	8.0	
권역	북부권역	96	50.5	36.6	12.9
	남부권역	232	51.0	41.7	7.3

[표 130] 예술활동 정보교류가 활발함 (단위 : %)

구분	사례수	부정응답(1+2)	보통(3)	긍정응답(4+5)	
전체	328	54.3	36.6	9.1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54.1	37.8	8.1
	4~5년	64	54.7	39.1	6.3
	6~10년	67	50.7	41.8	7.5
	11~20년	69	58.0	33.3	8.7
	21년 이상	54	53.7	29.6	16.7
단체 유형	국공립	4	10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55.6	40.0	4.4
	법인체	37	45.9	29.7	24.3
	비법인	201	54.7	36.8	8.5
	사회적기업	16	50.0	43.8	6.3
기타	25	56.0	40.0	4.0	
권역	북부권역	96	53.8	35.5	10.8
	남부권역	232	54.2	36.5	9.4

06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변화

1. 코로나19의 예술활동 영향도

1) 예술활동 유형별 영향수준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단체가 느끼는 코로나19가 예술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단체 활동 수입의 축소비율이 87.5%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예술관련 활동의 축소비율이 87.2%, 예술창작 활동 축소비율이 86.9% 등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예술창작활동, 관련활동, 단체 활동 수입 모든 면에서 매우 축소시키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그림 94]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변화여부

(단위 : %)



- 예술창작활동의 경우 설립 11~20년 이하 단체의 축소율이 무려 9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설립 21년 이상 단체들도 90.7%가 축소되었다는 응답을 보임 반면, 설립 3년 이하 단체들은 축소되었다는 비율이 78.4%로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임
- 단체유형별로 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기업의 경우 응답된 모든 단체가 예술창작활동이 축소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기타 단체가 96.0%, 비법인 사설단체가 85.6%, 전문예술법인이 8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북부권역 예술단체는 축소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로 나타났고 남부권역 예술단체는 86.2%로 조사됨

[표 131] 비교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영향수준 (단위 : %)

구분	사례수	축소(1+2)	보통(3)	증가(4+5)	
전체	328	86.9	8.8	4.3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78.4	16.2	5.4
	4~5년	64	85.9	7.8	6.3
	6~10년	67	86.6	6.0	7.5
	11~20년	69	94.2	5.8	0.0
	21년 이상	54	90.7	7.4	1.9
단체 유형	국공립	4	10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84.4	13.3	2.2
	법인체	37	83.8	13.5	2.7
	비법인	201	85.6	9.0	5.5
	사회적기업	16	100.0	0.0	0.0
	기타	25	96.0	0.0	4.0
권역	북부권역	96	88.5	7.3	4.2
	남부권역	232	86.2	9.5	4.3

[표 132] 비교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관련활동 영향수준 (단위 : %)

구분	사례수	축소(1+2)	보통(3)	증가(4+5)	
전체	328	87.2	8.8	4.0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81.1	13.5	5.4
	4~5년	64	84.4	10.9	4.7
	6~10년	67	83.6	10.4	6.0
	11~20년	69	95.7	4.3	0.0
	21년 이상	54	92.6	3.7	3.7
단체 유형	국공립	4	10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86.7	13.3	0.0
	법인체	37	86.5	8.1	5.4
	비법인	201	86.6	8.5	5.0
	사회적기업	16	93.8	6.3	0.0
	기타	25	88.0	8.0	4.0
권역	북부권역	96	83.9	10.8	5.4
	남부권역	232	84.4	11.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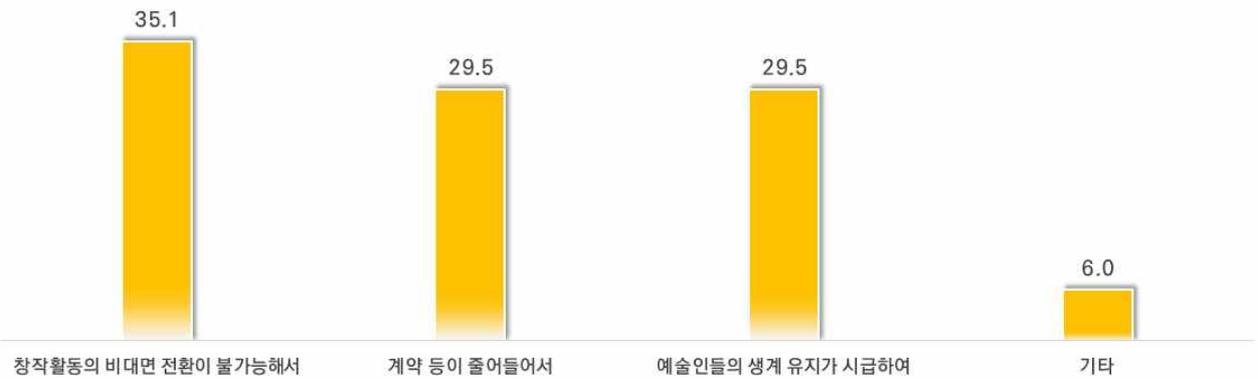
[표 133] 비교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단체 활동 수입 영향수준 (단위 : %)

구분	사례수	축소(1+2)	보통(3)	증가(4+5)	
전체	328	87.5	8.5	4.0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85.1	8.1	6.8
	4~5년	64	85.9	10.9	3.1
	6~10년	67	83.6	9.0	7.5
	11~20년	69	91.3	8.7	0.0
	21년 이상	54	92.6	5.6	1.9
단체 유형	국공립	4	10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93.3	6.7	0.0
	법인체	37	83.8	8.1	8.1
	비법인	201	86.1	9.5	4.5
	사회적기업	16	93.8	6.3	0.0
	기타	25	88.0	8.0	4.0
권역	북부권역	96	84.9	8.6	6.5
	남부권역	232	85.4	12.5	2.1

2) 예술창작활동 축소 및 증가 이유

-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 활동 영향수준에서 축소되었다고 응답한 경우(n=285) 그 이유에 대해 창작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해서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계약 등이 줄어서가 29.5%, 생계 유지가 시급해서가 2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5]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축소 시 이유 (단위 : %)



- 예술창작활동 축소 이유 중 창작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은 설립 21년 이상 단체가 44.9%로 가장 높고, 다음 11~20년 이하 단체가 41.5%, 5~10년 이하 단체가 3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설립년도가 오래될수록 창작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 됨

[표 134] 비교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축소 시 이유 (단위 : %)

구분	사레수	창작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해서	계약 등이 줄어서	예술인들의 생계 유지가 시급하여	기타	
전체	285	35.1	29.5	29.5	6.0	
설립 년도	3년 이하	58	25.9	32.8	39.7	1.7
	4~5년	55	30.9	32.7	30.9	5.5
	6~10년	58	32.8	25.9	36.2	5.2
	11~20년	65	41.5	23.1	24.6	10.8
	21년 이상	49	44.9	34.7	14.3	6.1
단체 유형	국공립	4	50.0	0.0	50.0	0.0
	전문예술법인	38	13.2	50.0	28.9	7.9
	법인체	31	45.2	22.6	29.0	3.2
	비법인	172	38.4	25.0	29.1	7.6
	사회적기업	16	25.0	56.3	18.8	0.0
기타	24	37.5	25.0	37.5	0.0	
권역	북부권역	85	34.1	28.2	29.4	8.2
	남부권역	200	35.5	30.0	29.5	5.0

○ 반면, 일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n=14) 그 이유에 대해 창작활동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가능해서가 2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 활동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개로 매우 적어 비율차이 분석에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우므로 단순 참고 수준으로 이용하여야 함

[그림 96]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증가 시 이유 (단위 : %)



[표 135] 비교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증가 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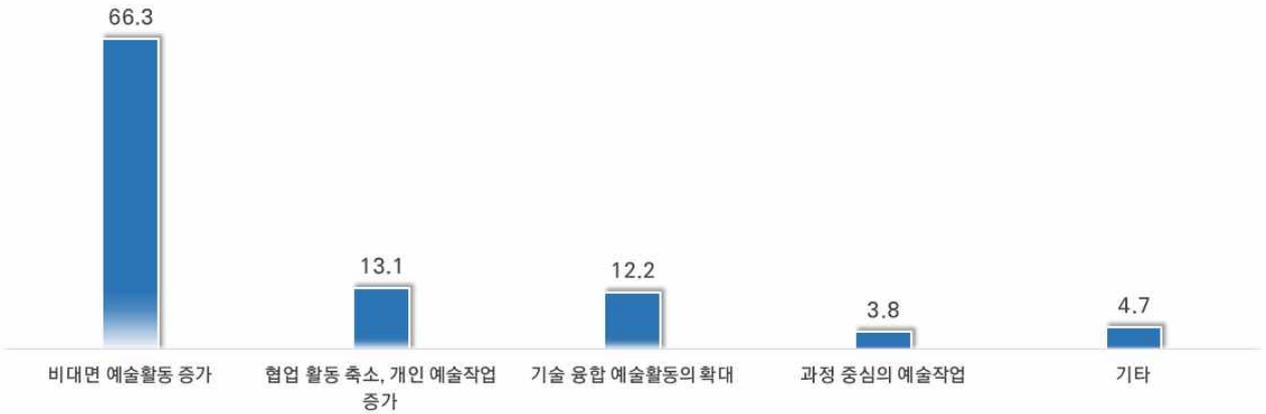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창작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해서	예술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가능하여서	코로나19 이후 활동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공동작업보다 개인작업 형태로 변화되어서	기타	
전체	14	35.7	21.4	14.3	7.1	21.4	
설립 년도	3년 이하	4	0.0	0.0	25.0	25.0	50.0
	4~5년	4	25.0	25.0	25.0	0.0	25.0
	6~10년	5	60.0	40.0	0.0	0.0	0.0
	21년 이상	1	100.0	0.0	0.0	0.0	0.0
단체 유형	전문예술법인	1	0.0	0.0	100.0	0.0	0.0
	법인체	1	100.0	0.0	0.0	0.0	0.0
	비법인	11	36.4	27.3	9.1	9.1	18.2
	기타	1	0.0	0.0	0.0	0.0	100.0
권역	북부권역	4	25.0	0.0	0.0	25.0	50.0
	남부권역	10	40.0	30.0	20.0	0.0	10.0

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환경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환경의 달라진 점에 대해 비대면 예술활동의 증가가 전체 6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협업 활동 축소, 개인 예술작업 증가가 13.1%, 기술 융합 예술활동 확대가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7]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 환경 변화

(단위 : %)



- 설립년도별로 비대면 예술활동 증가 응답비율이 높은 그룹은 설립 3년 이하 단체가 7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설립 4~5년 이내 단체가 69.8%, 설립 21년 이상 단체가 64.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고 비대면 예술활동 증가 응답비율이 높은 단체유형은 기타유형이 76.0%, 법인체가 75.0%, 전문예술법인이 7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36] 비교집단별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창작 환경 변화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대면 예술활동 증가	협업 활동 축소, 개인 예술작업 증가	기술 융합 예술활동의 확대	과정 중심의 예술작업	기타	
전체	320	66.3	13.1	12.2	3.8	4.7	
설립 년도	3년 이하	72	70.8	8.3	13.9	4.2	2.8
	4~5년	63	69.8	7.9	15.9	0.0	6.3
	6~10년	66	62.1	15.2	16.7	4.5	1.5
	11~20년	65	63.1	18.5	4.6	4.6	9.2
	21년 이상	54	64.8	16.7	9.3	5.6	3.7
단체 유형	국공립	4	50.0	25.0	0.0	0.0	25.0
	전문예술법인	45	73.3	6.7	8.9	4.4	6.7
	법인체	36	75.0	13.9	8.3	2.8	0.0
	비법인	194	62.4	14.9	13.9	3.6	5.2
	사회적기업	16	62.5	0.0	31.3	6.3	0.0
기타	25	76.0	16.0	0.0	4.0	4.0	
권역	북부권역	95	69.5	13.7	9.5	3.2	4.2
	남부권역	225	64.9	12.9	13.3	4.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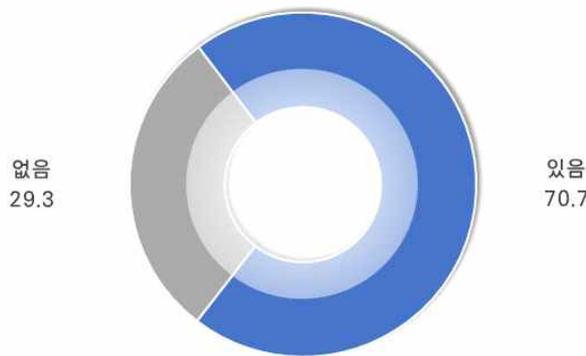
07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및 정책

1.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현황

1)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예술단체 중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70.7%로 나타났고 신청 경험이 없는 경우가 29.3%로 조사됨

[그림 98]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단위 : %)



- 설립 6~10년 이내 단체의 신청경험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립 11~20년 이내 단체가 75.4%, 설립 21년 이상 단체는 70.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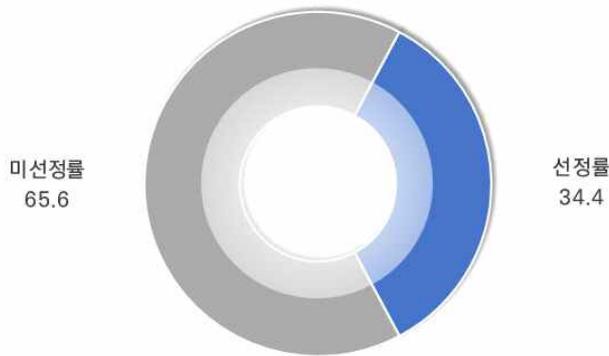
[표 137] 비교집단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신청 경험 (단위 :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28	70.7	29.3
설립 년도	3년 이하	63.5	36.5
	4~5년	68.8	31.3
	6~10년	76.1	23.9
	11~20년	75.4	24.6
	21년 이상	70.4	29.6
단체 유형	국공립	50.0	50.0
	전문예술법인	80.0	20.0
	법인체	73.0	27.0
	비법인	69.2	30.8
	사회적기업	81.3	18.8
	기타	60.0	40.0
권역	북부권역	74.0	26.0
	남부권역	69.4	30.6

2) 공모지원사업 신청횟수 및 선정횟수

-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n=232) 평균 신청횟수는 5.6회 정도이고, 이 중 선정된 횟수는 평균 1.9회로 조사됨.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평균 선정률은 약 34.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99]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예술단체 선정률 (단위 : %)



- 설립년도별 선정률 결과, 설립 4~5년 이내 단체의 선정률이 38.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설립 21년 이상 단체가 36.9%, 설립 3년 이하 단체가 34.4%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체유형별로는 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고 법인체와 사회적 협동조합기업의 선정률이 40.5%로 가장 높았고, 비법인 사설단체가 35.4%, 전문예술법인이 2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는 북부권역 예술단체 선정률이 36.0%로 남부권역 예술단체 선정률인 33.7%보다 2.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38] 비교집단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예술단체 선정률 (단위 : 회, %)

구분	사례수	총 신청횟수	총 선정횟수	총 선정비율	
전체	232	5.6	1.9	34.4	
설립 년도	3년 이하	47	4.0	1.1	34.4
	4~5년	44	3.8	1.5	38.8
	6~10년	51	5.2	1.6	30.3
	11~20년	52	7.2	2.5	33.0
	21년 이상	38	7.8	2.7	36.9
단체 유형	국공립	2	1.0	0.5	50.0
	전문예술법인	36	7.9	2.6	29.1
	법인체	27	5.5	2.6	40.5
	비법인	139	5.3	1.6	35.4
	사회적기업	13	5.4	2.8	40.5
	기타	15	3.5	1.0	19.7
권역	북부권역	71	6.2	2.2	36.0
	남부권역	161	5.3	1.7	33.7

2.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선정 예술인의 확대가 전체 5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다양한 예술분야 선정과 공모지원 금액 증가가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0]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제도적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 %)



- 설립년도별로 선정 예술인 확대 비율이 높은 그룹은 설립 3년 이하 단체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립 6~10년 이내 단체가 52.2%, 설립 4~5년 이내 단체가 5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공립단체를 제외하고 선정 예술인 확대 비율이 높은 단체유형은 기타유형이 60.0%, 비법인 사설단체가 52.2%, 법인체가 48.6%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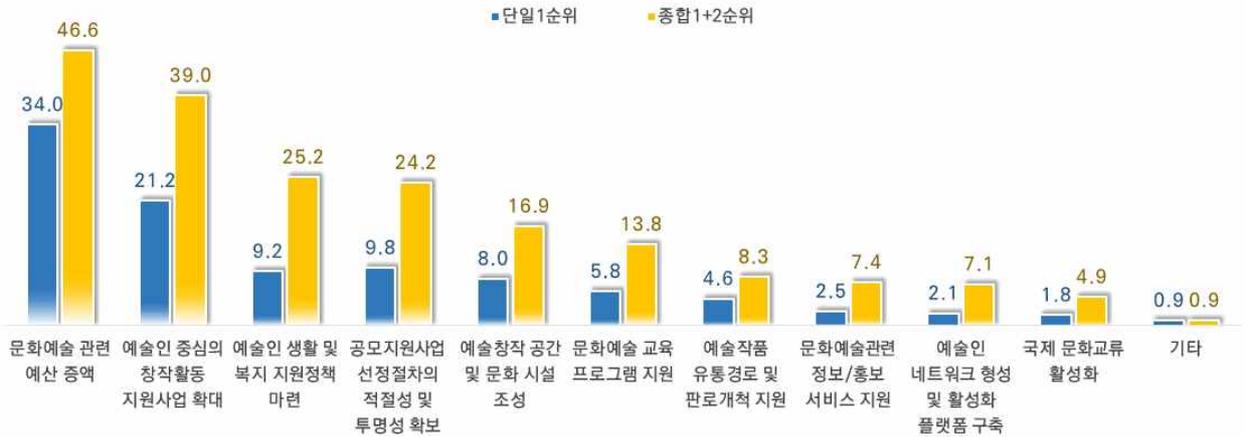
[표 139] 비교집단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제도적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 %)

구분	사례수	선정 예술인 확대	다양한 예술분야 선정	공모지원 금액 증가	기타	
전체	328	50.3	21.0	21.0	7.6	
설립 년도	3년 이하	74	52.7	24.3	17.6	5.4
	4~5년	64	51.6	20.3	18.8	9.4
	6~10년	67	52.2	20.9	19.4	7.5
	11~20년	69	49.3	20.3	26.1	4.3
	21년 이상	54	44.4	18.5	24.1	13.0
단체 유형	국공립	4	25.0	50.0	25.0	0.0
	전문예술법인	45	44.4	20.0	28.9	6.7
	법인체	37	48.6	18.9	24.3	8.1
	비법인	201	52.2	19.9	19.9	8.0
	사회적기업	16	37.5	31.3	25.0	6.3
	기타	25	60.0	24.0	8.0	8.0
권역	북부권역	96	50.0	22.9	17.7	9.4
	남부권역	232	50.4	20.3	22.4	6.9

3. 경기문화재단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해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결과 단일 1순위와 종합 1+2순위 결과 모두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종합1+2순위 결과를 기준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의 응답비율은 전체 46.6%로 나타났고, 예술인 중심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는 39.0%, 예술인 생활 및 복지 지원정책 마련은 2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1] 경기문화재단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고려사항 (단위 : %)



[표 140] 비교집단별 경기문화재단 예술정책 및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향후 고려사항 (단위 : %)

구분	사례수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	예술인 중심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	예술인 생활 및 복지 지원정책 마련	공모지원 사업 선정절차의 적절성 및 투명성 확보	예술창작 공간 및 문화 시설 조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술작품 유통경로 및 판로개척 지원	문화예술 관련 정보/홍보 서비스 지원	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플랫폼 구축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	기타	
전체	326	46.6	39.0	25.2	24.2	16.9	13.8	8.3	7.4	7.1	4.9	0.9	
설립년도	3년 이하	74	48.6	39.2	31.1	17.6	14.9	17.6	6.8	4.1	8.1	0.0	2.7
	4~5년	64	45.3	34.4	17.2	28.1	20.3	14.1	14.1	3.1	10.9	4.7	1.6
	6~10년	66	37.9	47.0	22.7	30.3	15.2	12.1	10.6	6.1	4.5	9.1	0.0
	11~20년	68	47.1	44.1	26.5	20.6	19.1	17.6	1.5	11.8	4.4	2.9	0.0
	21년 이상	54	55.6	27.8	27.8	25.9	14.8	5.6	9.3	13.0	7.4	9.3	0.0
단체유형	국공립	4	25.0	25.0	25.0	25.0	50.0	25.0	0.0	25.0	0.0	0.0	0.0
	전문예술법인	45	57.8	44.4	28.9	20.0	8.9	11.1	8.9	4.4	4.4	0.0	0.0
	법인체	36	47.2	41.7	27.8	33.3	13.9	13.9	2.8	8.3	2.8	8.3	0.0
	비법인	200	46.5	38.5	24.5	21.0	17.5	15.0	7.0	8.5	9.0	6.0	1.0
	사회적기업	16	43.8	31.3	6.3	31.3	31.3	6.3	25.0	0.0	12.5	6.3	0.0
기타	25	32.0	36.0	32.0	40.0	16.0	12.0	16.0	4.0	0.0	0.0	4.0	
권역	북부권역	93	47.3	38.7	18.3	19.4	17.2	22.6	7.5	9.7	6.5	4.3	0.0
	남부권역	95	50.5	36.8	26.3	25.3	12.6	10.5	7.4	9.5	11.6	5.3	1.1

| 2 0 2 1 년 경 기 도 예 술 인 전 수 조 사 |

제5장 예술인 지원정책 제언

01 경기도 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견 제언

- 본 전수조사 과업 진행 시 선행된 사전 논의회의에서 나온 예술인 지원정책 수요 의견과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종합하여 경기도 예술인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언함

(제언1) 예술인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복지 지원 정책마련 시급

- 예술인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복지 지원은 최우선 지원 과제로 선정함
- 정량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경기도 예술인들의 생계유지와 생활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경기도 예술인은 생계에 필요한 예술 활동 수입이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계를 위해 예술 활동과 겸업하여 활동하는 예술인 역시 43%에 달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 활동 수입이 축소된 경우가 77.4%에 달했으며, 특히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한 창작 활동 예술인의 피해가 더욱 극심한 것으로 확인됨 (창작예술가 60.2%)
 - 경기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창작을 위한 최저 생계비용 부족'에 대한 의견이 매우 높음. 또한 부족한 예술 지원금과 일자리 부족은 예술인 생계유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로 현재 예술인들은 창작활동 보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저생계유지가 보존되어야 비로소 창작활동이 가능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경기도 예술인에 대한 생활복지 지원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에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예술인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작은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복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점차 발전된 지원 정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제언2) 예술인 대상 다양한 지원 사업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 지원사업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횡수, 규모, 분야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고, 많은 예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야 함
- 먼저 그 동안 진행되어온 전통적인 예술인 지원 사업 (제작비 지원, 공간지원, 공모사업지원 등)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되어야 하나, 특히 수혜대상의 확대와 지원금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등을 고려해

야 할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본 전수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 예술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저하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예술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 :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35.0%
- 지원사업의 홍보 방법 또한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 소통이 가능한 형태의 다양한 홍보 채널 마련 이 필요함
 - 연령별 주요 접근 채널을 활용한 지원 사업 홍보방안 마련
 - 온/오프라인 예술인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또한, 경기도 예술인 중 활동경력이 10년 미만인 예술인이 과반에 가까우며, 창작예술가의 비율이 높은 만큼, 예술교육 지원에서 창작결과물 생산까지 창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예술인 생애 주기에 기반을 둔 단계별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제언3) 소통과 상생이 가능한 예술인 공동체 육성 지원

- 경기도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예술 환경에 대한 정보,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등 소통이 가능한 정보교류 장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음
-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경기도 추진 정책 및 지원의 아쉬운 점으로 예술 활동 정보 교류의 부족과 예술 활동 공동체 육성 부족 등에 대한 아쉬움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예술인 간의 정보교류 뿐 아니라 일반인과 예술인의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공유 공간의 필요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경기도 예술인 10명 중 2명은 경기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에 대해 타 지역은 예술소비 수요가 높고 다른 예술인과의 교류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내 예술 활동 제고와 예술소비 순환을 일으키고 예술 환경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공동체 활용 공간(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공동체 활용 공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 모두가 필요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각 권역별 거점 형태로 구성할 경우 이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 0 2 1 년 경 기 도 예 술 인 전 수 조 사 |

제6장 부 록

※ 다음의 문8 - 문10번은 여러분의 수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술인 소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술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문항들이니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솔직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8. 귀하의 최근 3년간 가구 전체 연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들의 전체 수입을 작성해주세요.)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2021년 예상
▷ 가구 전체 수입 []만원	▷ 가구 전체 수입 []만원	▷ 가구 전체 수입 []만원

9. 그렇다면 최근 3년간 귀하 개인의 전체 연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술활동 수입 + 그 외 기타 수입 모두 포함)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2021년 예상
▷ 개인 총 수입 []만원	▷ 개인 총 수입 []만원	▷ 개인 총 수입 []만원

10. 최근 3년간 귀하 개인의 전체 연수입 중 예술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예술활동 수입 = 예술창작활동 수입 + 예술관련활동 수입(강의, 교육, 레슨, 제작, 작품판매 등))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2021년 예상
▷ 총 수입 대비 약 []%	▷ 총 수입 대비 약 []%	▷ 총 수입 대비 약 []%

II. 예술활동 현황

11. 현재 귀하께서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① 가평군	② 고양시	③ 과천시	④ 광명시	⑤ 광주시	⑥ 구리시	⑦ 군포시
⑧ 김포시	⑨ 남양주시	⑩ 동두천시	⑪ 부천시	⑫ 성남시	⑬ 수원시	⑭ 시흥시
⑮ 안산시	⑯ 안성시	⑰ 안양시	⑱ 양주시	⑳ 양평군	㉑ 여주시	㉒ 연천군
㉓ 오산시	㉔ 용인시	㉕ 의왕시	㉖ 의정부시	㉗ 이천시	㉘ 파주시	㉙ 평택시
㉚ 포천시	㉛ 하남시	㉜ 화성시	㉝ 경기 이외 지역	활동 지역 : _____		

12. 귀하의 현재 예술활동은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① 필요한 소득 전체를 예술활동을 통해 해결함 (실제 소득이 그만큼 발생하는 것과 무관) (※ 문13번으로)
② 필요한 소득 일부를 예술활동을 통해 해결함 (실제 소득이 그만큼 발생하는 것과 무관) (※ 문12-1번으로)
③ 예술활동 목적이 소득과 관련이 없음 (취미로 활동하나 소득/수입이 발생한 경우 포함) (※ 문12-1번으로)

12-1. 예술활동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① 자영업 운영	② 정규직 직원
③ 기간제/계약직/임시직	④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⑤ 비예술분야 프리랜서	⑥ 기타 []

13. 귀하의 예술분야 입문(데뷔) 시기는 언제인가요?
 (입문(데뷔)시기의 기준은 '예술활동을 통해 최초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 생각해주세요.)

▷ 입문(데뷔) 년도 : []년

13-1. 귀하께서 처음 어떤 경로를 통해 입문(데뷔) 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적어주세요.

[]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어요.”

※ 다음의 문24번 ~ 문46번까지는 선택응답 항목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질문에 응답해주세요.

N. 생활 및 근로복지

24. 현재 귀하의 개인 지출비용을 다음의 항목별로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 ▷ 전체 지출비용이 100%라면,
- = 생활비 _____ %
- + 예술창작활동비(재료구입비 포함) _____ %
- + 개인 예술역량 개발비 _____ % (예술분야 교육, 학습, 훈련에 사용되는 비용)
- + 기타 비용 _____ % [기타비 내용 : _____]

25. 현재 귀하의 연평균 수입은 예술가로 활동하거나 생활하시는데 있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항목별로 필요한 금액이 100이라 가정한다면 현재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작성하여 주세요.

- ▷ 생계 및 생활측면에서 필요한 금액이 100이라면, 현재 수입은 _____ 수준
- ▷ 예술(창작)활동 측면에서 필요한 금액이 100이라면, 현재 수입은 _____ 수준

26. 귀하께서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아래 해당 항목별로 체크해 주세요.

▷ 국민연금 (직장, 지역,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① 가입	② 미가입
▷ 건강보험 (직장 및 직장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 의료급여 1-2종 등)	① 가입	② 미가입
▷ 고용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 직장 산재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27. 지난 1년간 예술인으로서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시나요?

(예술활동 관련 고용에 대해서 응답해주세요.)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② 고용원이 없는 1인 사업자
- ③ 정규직
- ④ 기간제/계약직/임시직 등
- ⑤ 일용직
- ⑥ 파트타임/시간제
- ⑦ 프리랜서
- ⑧ 기타 [_____]

28. 귀하께서는 현재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저작권이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 ▷ 저작권 보유여부 ① 있음 [보유갯수 : _____ 개] ② 없음
- ▷ 자격증 보유여부 ① 있음 [보유갯수 : _____ 개] ② 없음
(단, 문화예술관련 자격증만 해당)

29. 귀하께서 예술창작활동과 관련 활동에 투입하는 일수는 1주일 당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 ▷ 예술창작활동 일수 : 일주일 평균 _____ 일 투입
- ▷ 예술관련활동 일수 : 일주일 평균 _____ 일 투입 (강의, 교육, 레슨, 제작, 작품판매 등)

※ 다음의 문1번 ~ 문18번까지는 필수응답 항목입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주세요.

1. 일반현황

1. 귀 단체의 최근 3년간 (2019~2021년) 단체로서 활동한 예술활동 실적과 수상내역은 어떻게 되시나요?
 (단, 수상 내역은 국가 및 지자체, 협회 주관 등 공신력 있는 내용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기재하신 활동 및 수상내용이 불확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조사 참여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활동 내용	활동 횟수	활동 장소	활동 기간
	회		년
	회		년
	회		년

▷ 수상경험 []회

▷ 수상 내역 (최대 3개까지 작성) []
 []
 []

(※ 활동 내용과 횟수가 없는 경우 조사종료)

2. 귀 단체명은 무엇인가요? []	3. 설립연도는 언제인가요? []년도
4. 대표자님 성명은 무엇인가요? []	5.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

6. 귀 단체의 소재지(주소)는 어디인가요?

① 가평군	② 고양시	③ 과천시	④ 광명시	⑤ 광주시	⑥ 구리시	⑦ 군포시
⑧ 김포시	⑨ 남양주시	⑩ 동두천시	⑪ 부천시	⑫ 성남시	⑬ 수원시	⑭ 시흥시
⑮ 안산시	⑯ 안성시	⑰ 안양시	⑱ 양주시	⑲ 양평군	⑳ 여주시	㉑ 연천군
㉒ 오산시	㉓ 용인시	㉔ 의왕시	㉕ 의정부시	㉖ 이천시	㉗ 파주시	㉘ 평택시
㉙ 포천시	㉚ 하남시	㉛ 화성시	㉜ 경기 이외 지역 거주 (※ 조사종료)			

6-1. 시/군 이후 상세주소를 아래에 적어주세요

▷ 상세주소 : []

7. 귀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작성해 주세요) []	8. 귀 단체의 SNS 주소는 무엇인가요? (SNS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9. 귀 단체의 형태는 아래에서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① 국공립단체 (도/시/구/군)	②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	③ 법인체 (사단/재단/특수법인 등)
④ 비법인 사설단체 (민간/임의)	⑤ 사회적 협동조합/기업	⑥ 기타 []

※ 다음의 문19번 ~ 문32번까지는 선택응답 항목입니다.

IV.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거래 경험

19 귀 단체에서는 소속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①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체결	② 비교적 표준계약서로 체결하는 편
③ 표준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로 체결	④ 계약서 체결하지 않음

20 귀 단체에서는 최근 3년 이내 불공정 거래 및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① 있음 (☞ 문 20-1번으로)	② 없음 (☞ 문 21번으로)
--------------------	------------------

20-1.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횟수는 몇 번 인가요?

▷ 피해경험 횟수 _____ 회

20-2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피해 유형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아래에서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적절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함	② 대금 지급 지연
③ 계약기간보다 더 많은 작업(근로) 요구	④ 개인정보 무단 이용당함
⑤ 예술창작활동에 부당한 지시나 간섭, 방해 받음	⑥ 창작물의 저작권(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⑦ 기타 [_____]	

V. 경기도 예술활동 환경 및 지원정책

21. 예술단체로서 경기도 내에서 예술활동을 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창작을 위한 최저생계비용 부족	② 예술관련 인적 인프라 부족
③ 지역예술 정책의 전문성 부족	④ 예술 지원금 부족
⑤ 시민들의 관심 및 인지도 부족	⑥ 예술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⑦ 예술활동 공간 부족	⑧ 기타 [_____]

22 경기도 내 예술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과 발표공간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창작공간 : ① 매우 부족 ② 부족 ③ 보통 ④ 충분 ⑤ 매우 충분

▷ 발표공간 : ① 매우 부족 ② 부족 ③ 보통 ④ 충분 ⑤ 매우 충분

23 경기도 내 예술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예술활동 공간 마련 시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저렴한 이용금액		② 필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	
③ 넓고 쾌적한 공간		④ 창작활동 관련 용이한 정보 교류	
⑤ 동료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킹		⑥ 공동작업/협업이 용이한 공간	
⑦ 편안한 휴게공간		⑧ 기타 [_____]	

경기도 예술인 전수조사

2021년 12월 인쇄

2021년 12월 발행

발행 : (재)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http://www.ggcf.kr>

주소 :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대표번호 : 031-231-7200

조사기관 : (주)비온드리서치
